

사명당 유정 대선사 선필 禪筆로 만나다

佛心宗祖達磨圓覺大師

美 歷 乙 巳 吉 以 善 法 存 趣 以 奉 皇 求 於 鷹 石 乃 辭 新 心 也

經 山 三 年 七 代 孫 河 陰 伯 於 平 子



「사명당 유정 대선사, 선필^{禪筆}로 만나다」

2025. 7.12. Sat ~ 10.19. Sun

월정사성보박물관 기획전시실

출품기관(가나다순)



국립중앙박물관
경남대학교박물관
밀양시립박물관
불교중앙박물관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수원박물관
영주부석사
은해사백흥암
은해사성보박물관
표충사호국박물관
통도사성보박물관
포항 대성사

자료 협조(가나다순)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불교중앙박물관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표충사호국박물관
통도사성보박물관

일러두기

1. 이 도록은 2025년 월정사성보박물관 특별전 「사명당 유정 대선사, 선필^{禪筆}로 만나다」의 전시도록이다.
2. 유물의 명칭과 편년은 각 박물관 기본 자료를 토대로 하였다.
3. 유물의 크기는 세로 x 가로 x 높이를 원칙으로 기재하였으며, 실측 단위는 cm이다.
4. 유물에 따라 영인본 여부를 기재하였고, 전시에 출품되지 않는 유물의 경우 참고자료라고 기재하였다.
5. 본 도록에 실린 글과 사진은 월정사성보박물관의 동의 없이 무단 전재할 수 없다.

| | | | |
|----|--|-----------|---|
| 5 | | 발간사 |  |
| 6 | | 사명대사 문화유산 |  |
| 82 | | 약력 |  |
| 84 | | 부록 |  |
| 98 | | 논고 |  |

발간사

「사명당 유정 대선사, 선필禪筆로 만나다」 특별전 개최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명당 유정(惟政, 1544~1610) 대선사께서는 조선 중기의 대표적 고승으로서, 오대산에 주석하시며 폐허가 된 월정사의 중창불사(1587~1590)를 이끄셨고, 오대산사고 건립에도 큰 영향을 미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월정사는 다시금 수행과 신앙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되찾게 되었으며, 그 정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스승 서산대사와 함께 승병을 이끌고 직접 전장에 나서셨을 뿐 아니라, 전후에는 외교 사절로서 일본과의 평화 교섭에 앞장서며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셨습니다. 이러한 행적은 무武와 문文, 수행과 실천을 아우른 조선 불교의 위대한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사명대사의 진영과 유묵을 중심으로, 그 깊은 정신세계와 사상을 조명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국내뿐 아니라 일본 장군, 스님들조차 감명을 받았다고 전해지는 대선사의 글은, 단지 뛰어난 서예로서의 가치를 넘어서 수행자의 깨달음과 호국의 염원이 담긴 정신적 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명 대사의 글 마다 스며든 ‘선禪의 기운’은 시대를 초월한 울림을 지니며, 그 필력이 곧 나라를 지키는 힘으로 발현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전시는 더욱 뜻깊습니다.

전시에는 사명대사와 관련한 문화유산이 공개될 예정으로 400여 년 만에 국내로 돌아온 사명대사의 친필유묵 ‘불심종조달마원각대사佛心宗祖達摩圓覺大師’, 사명대사의 진영眞影, 원불願佛 선가귀감禪家龜鑑과 청허집淸虛集, 근현대에 대선사를 기리기 위해 제작된 창극 앨범과 문헌 등도 함께 소개되어, 대선사의 다양한 면모를 통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전과 도록 발간을 통해 사명대사를 현창하고, 월정사 중수의 역사적 의의를 널리 알리는 한편, 대선사께서 수행자의 경지를 글씨로 구현한 선필禪筆을 통해, 선종 사상의 정수를 담은 정신적 유산이자 한국 서예사 속에서 빼어난 예술성을 보여준 면모를 조명하고, 그 뜻이 오늘날에도 살아 숨 쉬는 스님의 정신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뜻깊은 전시와 도록의 준비를 위해 아낌없이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작업이 후대에도 오래도록 전해지는 귀중한 문화 자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7월

월정사성보박물관장 해운



“사명당이 지은 여러 가지 기록은
그때 그때 특별히 마음쓰지 않고
붓에 맡겨 휘두른 것이니
마치 형산(荊山) 사람이 옥으로
까치를 잡는 것과 같이 수월했다.”

- 뇌묵대사 처영 -

* 형산(荊山) : 중국의 옥 채굴지

“사명당은 흰칠한 키에
엄숙한 얼굴이었으며,
말은 간략하였으나
뜻은 원대했다.”

- 교산 허균 -

“사명당의 시는 맑고
깨끗하여 당나라의
아홉 승려에 버금간다.”

- 하곡 허봉 -

삼척 영은사에 모셔진 사명대사의 진영

영은사 사명당 대선사 진영

靈隱寺 四溟堂 大禪師 眞影

조선, 1788년
비단 바탕에 채색
화면 96.8cm × 68.5cm
월정사성보박물관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삼척 영은사에 소장되어 있던 사명대사 유정(惟政, 1544~1610)의 진영이다. 사명대사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화면 왼쪽을 비스듬히 바라보고 있는데 오른손에는 염주를, 왼손으로는 주장자를 들고 있다.

화면 왼쪽에는 ‘대匡輔國崇祿大夫四溟堂大禪師眞影’이라고 쓰여있다. 화기는 없으나 영은사에 함께 전해오는 신겸의 범일국사 진영(조선, 1788년)의 양식과 화풍이 매우 유사하여 같은 해에 동일 화사에 의해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영천 은해사에 모셔진 사명대사의 진영

은해사 사명대사 진영

銀海寺 四溟大師 眞影

조선
비단바탕에 채색
화면 100.0 × 76.8cm
은해사성보박물관



사명대사가 정면을 향해 의자에 앉은 모습으로 그려진 진영이다. 왼손은 지물을 들어 오른 어깨에 걸쳤고 오른손은 불자의 말총 부분을 쥐고 있다. 바닥에는 돛자리의 무늬가 돋보이게 표현되었다. 화면 왼쪽에는 '홍제존자분총감난사명진(弘濟尊者奮忠勤難四溟眞)'이라고 쓰여져 있다.

양산 통도사에 전해오는 사명당 유정 진영

조선, 18세기 말 ~ 19세기초
비단바탕에 채색
화면 123.0 × 80.0cm
통도사성보박물관
경상남도 유형문화유산

양산 통도사 사명당 진영

梁山 通度寺 泗溟堂 眞影



통도사에 소장되어 있던 사명대사의 진영으로 화면 왼쪽을 바라보고 왼손에는 불자를 쥐고있는 모습이다. 진영의 우측에는 '대광보국승록대부홍제존사사명당대선사지진(大匡輔國崇祿大夫弘濟尊者泗溟堂大禪師之眞)' 이라는 영제와 풍원군(豊原君) 조현명(趙顯命)의 찬이 쓰여있다.



통도사사명당대선사 진영 화기

정병과 석장만 가지고 빈산에 쓸쓸히
고목이나 식은 재처럼 지냄은
어찌 그리 고요하였던가

어느 날 칼을 잡고 일어나
적들을 삼대처럼 벤 것은
어찌 그리 용감하였던가

나는 불자들이 체(體)만 있고
용(用)은 없다는 말을 믿지 않는다

풍원군(豐原君) 조현명(趙顯命) 찬함

瓶錫空山索然 若枯木死灰 何其靜也
一日杖鉤而起 斫賊如麻 何其勇也
吾不信佛氏之有體而無用也

豐原君 趙顯命 贊

의성 대곡사에 전해오는 사명대사 진영

수인, 보학, 지순, 신오
조선, 1782년
비단 바탕에 채색
화면 116.0 × 82.1cm
불교중앙박물관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

의성 대곡사 사명당 유정 진영

義城 大谷寺 泗溟堂 惟政 眞影



사명대사가 초서체가 쓰여진 병풍을 배경으로 불자를 쥐고 앉은 모습으로 그려진 진영이다. 화면 오른쪽에는 붉은 바탕에 그림 제목이 ‘유명조선국대광보국승대장사명당진영(有明朝鮮國大匡輔國僧大將泗溟堂眞影)’이라고 쓰였으며, 화면 하부의 기록에 의해서 조선후기 1782년 화원 수인(守印), 보학(普學), 지순(智淳), 신오(新晤) 등이 동참하여 그린 그림임을 알 수 있다.

화기: 乾隆四拾七年壬寅四月日 畫員守印 普學 智淳 新晤 供養主富寬 化主 普運堂大師德澄 別座 淵花堂 首座茶旻



사명대사의 발원이 담긴 원불과 원장

포항 대성사 소장 금동여래좌상

浦項 大聖寺 所藏 金銅如來坐像

조선, 15세기

황동

9.5 × 4.8cm

포항 대성사

경상북도유형문화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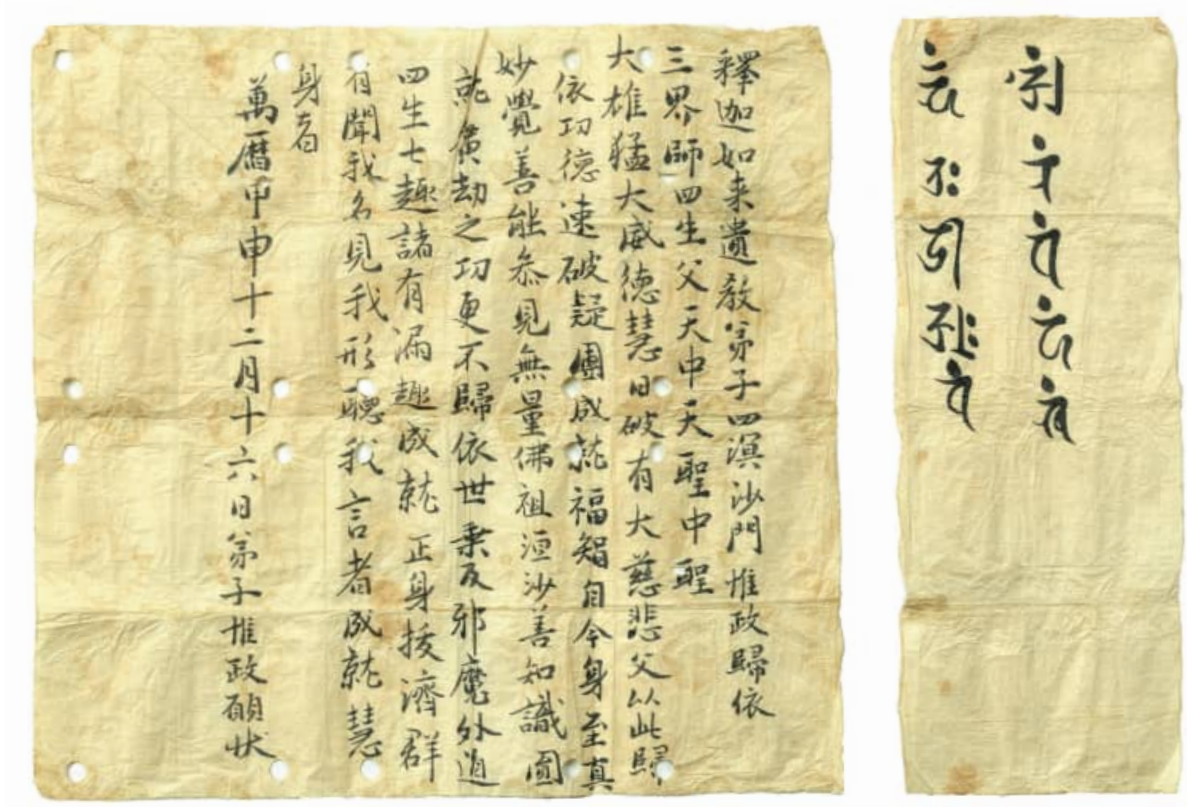


사명대사의 원불(願佛)로 전해지는 금동여래좌상이다. 전체 높이 9.5cm에 이르는 소형의 불상이지만, 신체 각 부의 비례와 조형적 안정성에서 세련된 조형미를 확인할 수 있다.

연화문 대좌 위에 결가부좌한 자세로 안치되어 있으며, 편단우견의 대의를 착용하고 있다. 오른손이 무릎 아래로 내려져 지권인을 취하고 있으며, 대좌는 상·하연이 연결된 이중 연화좌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 이는 고려 말기에 유입된 라마교 불상 양식의 영향을 보여주는 특징으로, 조성 시기의 추정을 가능케 한다.

사명대사 원장
四溟大師 願狀

조선, 1584년
종이
20.2×21cm, 20.4×7.5cm
포항 대성사
경상북도유형문화유산



사명대사의 원불(願佛) 내부 복장(腹藏)에서 나온 사명대사가 1584년 12월 16일에 작성한 발원문이다. 겉종이는 범어가, 본지에는 발원하는 바가 적혀 있으며 40대 초반인 대사의 글이 해서(楷書)체로 담백하게 쓰여져 있다. 원장이라는 형식의 특성상 단정하면서도 글자에 따라 행서(行書) 기운이 더해 약간의 흥취가 드러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장년이 된 사명대사의 극히 드문 해서를 감상할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

석가여래께서 남기신 가르침에 부처님의 제자 사명 유정이 귀의합니다
삼계의 스승이시며 생명들의 아버지이시고 가장 높고 존귀한 존재시여,
위대한 힘과 큰 덕으로 지혜의 태양으로 모든 것을 깨뜨리시는 대자대비하신
아버지께 이로써 귀의합니다. 공덕에 의지하여 의심의 덩어리를 속히 깨뜨리고
복과 지혜를 성취하여 지금의 몸으로부터 진실한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한량없는 부처님과 조사와 수많은 선지식을 공손히 뵈고 원만한 깨달음을 이루
겠습니다. 광겁의 공을 이루고 세간의 욕망과 사탄 마구니나 외도에 귀의하지 않
으며, 사생칠취의 모든 번뇌 가득한 세계에서 바른 몸을 이루어 중생을 구제하겠
습니다. 저의 이름을 듣고, 저의 모습을 보고, 저의 말을 듣는 자는 모두 지혜로운
몸을 성취하게 하소서.

만력 갑신년(1584) 12월 16일 제자 유정이 삼가 글을 올립니다.

釋迦如來 遺教弟子 四溟沙門維政 歸依
三界師 四生父 天中天 聖中聖
大雄猛大威德慧日 破有大慈悲父 以此歸依
功德速破疑團 成就福智 自今
身至真妙覺善能 恭見無量佛祖 洎沙善知識
圓就廣劫之功 更不歸依世葉及邪魔外道
四生七趣諸有漏趣 成就正身 撥濟群有
聞我名 見我形 聽我言者 成就慧 身者

萬曆 甲申 12月16日弟子維政願狀

사명대사가 쓴 안양루 증창기

부석사 안양루 증창기 현판

浮石寺 安養樓 重創記 懸板

조선, 1644년
나무
42.5×200.7cm
영주 부석사

부석사 안양루는 1555년에 화재로 소실되었던 것을 1576년 여름에 석린(石麟) 스님이 중수를 시작하여, 1578년 가을에 경휘(敬暉) 스님이 단청을 마친 것으로 이러한 내용이 사명대사가 지은 안양루 증창기에 기록되어 있다.

증창기의 글은 금강산 보덕암에서 정진하던 사명대사가 1580년(선조 13) 가을 37세 나이로 부석사에 와 짓고 쓴 것으로, 1644년(인조 22)에 현판으로 새겨 걸었다고 한다. 부석사의 풍수적인 입지와 장엄한 경관, '부석(浮石)'이란 사찰명이 지어진 연유, 건물의 소실과 새로이 지어진 역사 등이 기록되어 있다.

활달하고 거침없는 필체로 획 굵기와 자형의 크기에 큰 폭의 변화를 주어, 특유의 리듬을 살린 것으로 보인다. 대사가 왕희지의 초서를 기본으로 초서 명가의 글씨를 깊이 있게 습득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청년기 대사의 행초서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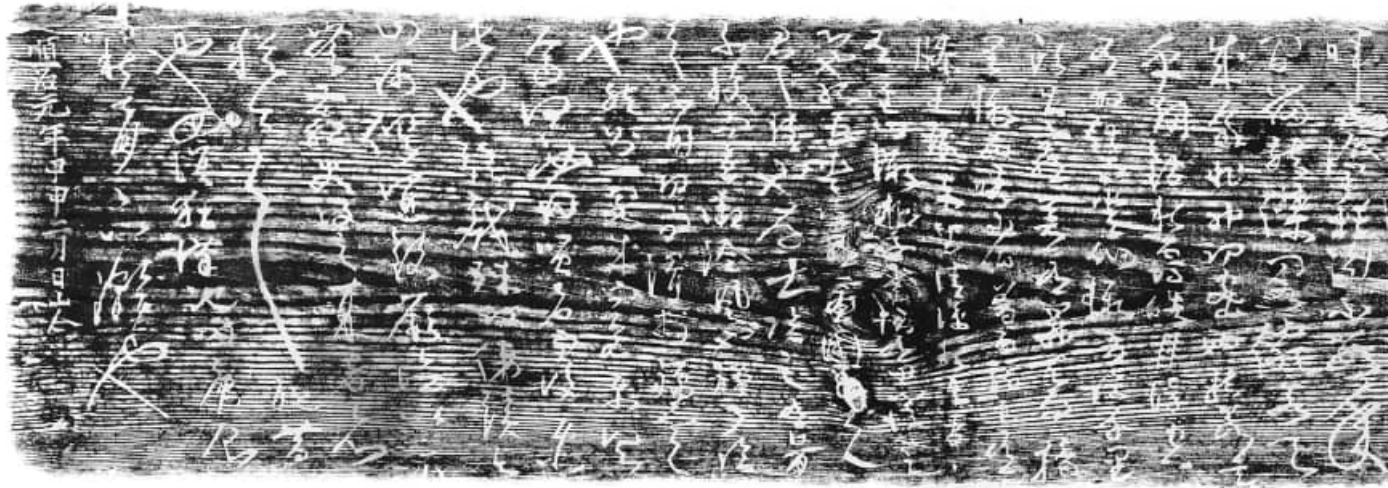


영주 부석사 안양루 전경(보물, 조선시대) ©국가유산청



부석사 안양루 중창기 현판 탁본

浮石寺 安養樓 重創記 懸板 拓本



부석사안양루중창기

산맥(山脈)은 아득히 백두(白頭)와 접하여 있고 물길은 멀리멀리 동해와 이어져서 남주(南州)를 웅거(雄據)하고 동해의 호랑이처럼 웅크리고 있구나. 그 이름은 봉황(鳳凰)이라. 울울(鬱鬱) 창창(蒼蒼)하고 령(靈)이 모이어 서기(瑞氣)가 쌓여서 남국(南國)의 정령(精靈)을 불러내는구나! 그 사이에 절이 있으니 현판(懸板)이 부석(浮石)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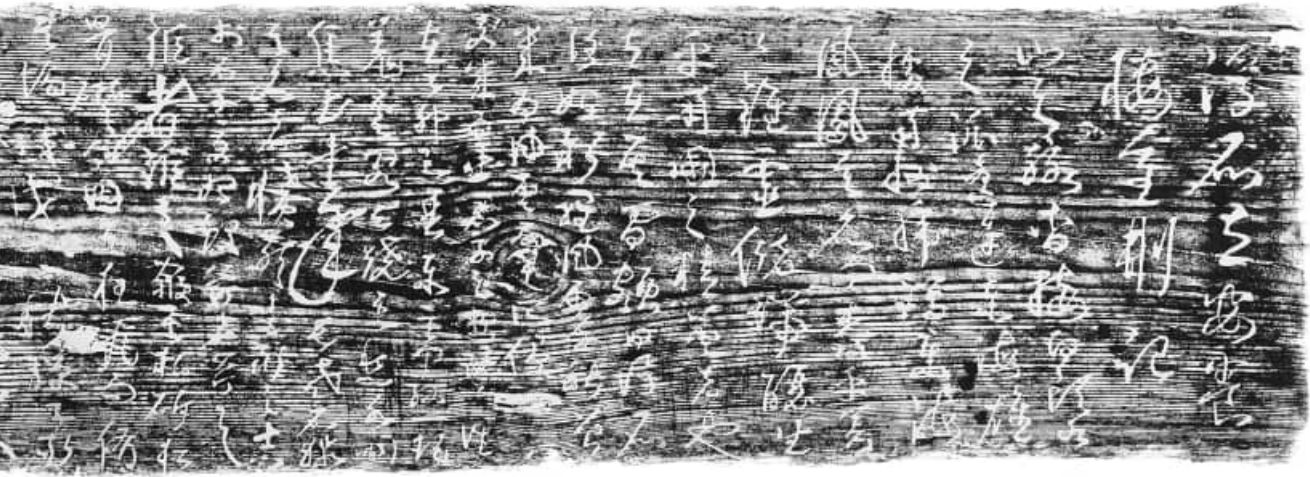
신라(新羅) 때 비로소 절을 지어. 천년의 세월 속에 일찍이 몇 번이나 풍운(風雲)의 침범을 만났고 얼마나 사군자(四君子)의 유소가 되었더니 지난 을묘년(1555) 봄에 역제손(亦帝孫)이 한번 강운각(光雲閣)을 일으켰으나 또한 불이 나서 없어졌으니 구름이 근심하고 물이 오열(嗚咽)하여 초토화(焦土化) 된지 십 년 만에 이 절의 장로(長老) 석린(石麟)이라는 스님이 분발(憤發)해서 새로이 중건할 뜻으로 병자년(1576) 여름에 일을 시작하니 도끼를 가진 자는 도끼로 일을 하고, 톱을 가진 자는 톱으로 울력을 하니, 그 눈빛으로 독촉(督促)해서 소나무를 다듬어서 기초(基礎)를 해서 그 기둥을 굳게 하고 기와로 새는 것을 수리하니 그 이듬해 무인년(1578) 가을에 선자(禪子) 스님 경휘(敬暉) 스님이 또 단청(丹青)을 하니 수년이 지나지 않아서 우뚝한 큰집이 엄연(儼然)의연한 것이 천년을 버틸 것 같으니 신(神)의 공(功)이 세밀한 것이 아니면 능히 이와 같겠는가?

연기(煙氣)가 가을의 찬 서리를 녹이고 밝은 달이 공중에 떠오르니 깃털이 생겨서 신선(神仙)에 오르는 흥취(興趣)가 있고 길이 천리가 되어서 누각(樓閣)의 머리가 창공(蒼空) 끝에 나르니 하늘에 올라 마을을 흔들게 하는 흥취(興趣)가 있고 서쪽으로 소백산(小白山)을 바라보니 정면으로 풍경(風景)을 가두어 등왕각의 흥취가 있고 동쪽으로 청량산(淸涼山)을 바라보니 가을 구름이 아득해서 부산(浮山)의 흥취가 있다.

선자(禪子)의 마음이라. 고신(孤臣) 나라를 근심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정(情)이 있으며 도사(道士)가 여기에 다다르니 뼈대를 바꾸지 않아도 곧 냉풍(冷風)을 막을 수 있고 선자(禪子)가 여기에 다다르니 일체 다른 것을 쓰지 않아도 선정(禪定)을 이룰 수 있으니 그러한 연유(緣由)로 한 누각(樓閣)이 완성되게 되어서 못 즐거움이 갖추어지니 하필이면 어찌 반드시 이름이 좋은 뒤에 이런 즐거움이 있으리오.

아~아~ 특출(特出)한 공(功)과 거룩한 업적이 산과 물로 더불어 함께하니 마땅히 그 덕을 새겨서 무궁(無窮)함을 보이노라. 다시 후세(後世)에 오는 자가 또한 지금 사람이 옛날을 보는 것과 같으리라.

때는 경진년(1579) 가을 칠월 상순에 어리석은 중 사명(四溟)이 적다.



浮石寺安養樓重勅記

石寺安養樓重勅記

山之脈杳接白頭水之派遙連東海雄據南州虎蹲東海鳳凰其名
而鬱乎蒼蒼鍾靈儲瑞釀出乎南國之精英者也寺在其間額曰浮石

經始新羅 風雨千秋 曾幾爲風雲之所侵

交幾爲士君子之遊暨 往在乙卯之春 赤帝孫一起 羗雲閣亦燒
雲愁水咽 焦土十年 長老石麟其名者 憤然重新之志 於丙子夏始役
斧者斧之 鉅者鉅之 鞭其根斫松骨 礎而固其柱 瓦而修其漏
越戊寅秋 禪子敬暉 亦塗彩 迄不數年間 巋然傑閣 儼若天成焉
非神功密助能若是乎

烟鎖秋霜 皓月浮空 有羽化而登仙趣

爲路千里 頭出窮蒼 有昇天而指星趣

西瞻小白 暮雨麗色 有滕王趣東望清涼

秋雲杳杳 有種山趣

遊子登臨 有思鄉之心也 孤臣登臨 有憂國戀君之情也

道士臨之 有骨不換 而直於冷風也 禪子臨之 不用功而濟於禪定也

然則一閣成而衆樂具焉 何必曰 賢名而後樂此也

於戲 殊功偉績與山河俱 宜銘厥 德以示無窮

使後之來者 亦猶今之視昔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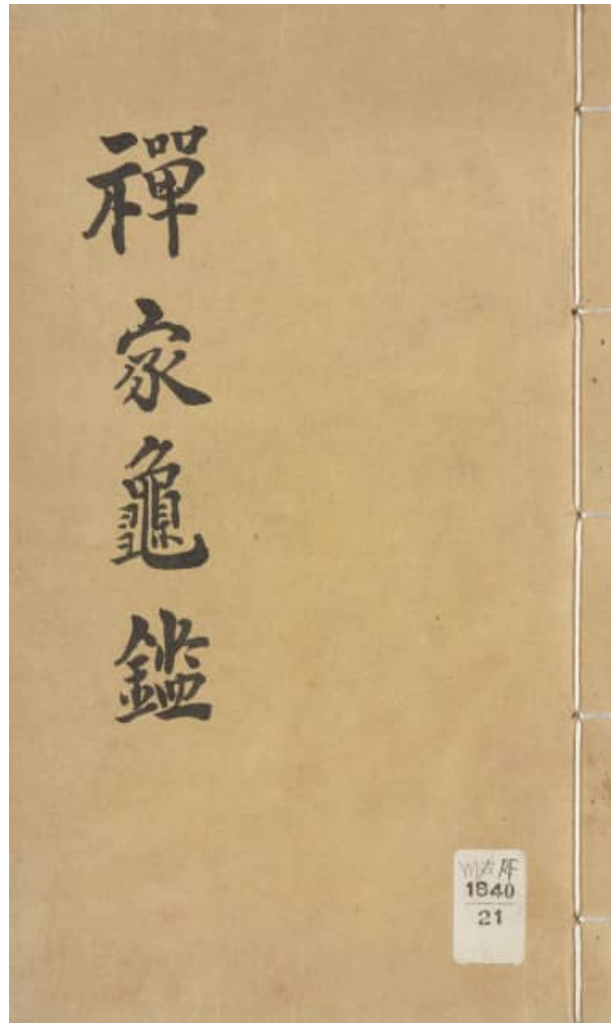
四溟狂漢記 時庚辰 秋七月上澣

사명대사가 간행한 서사대사의 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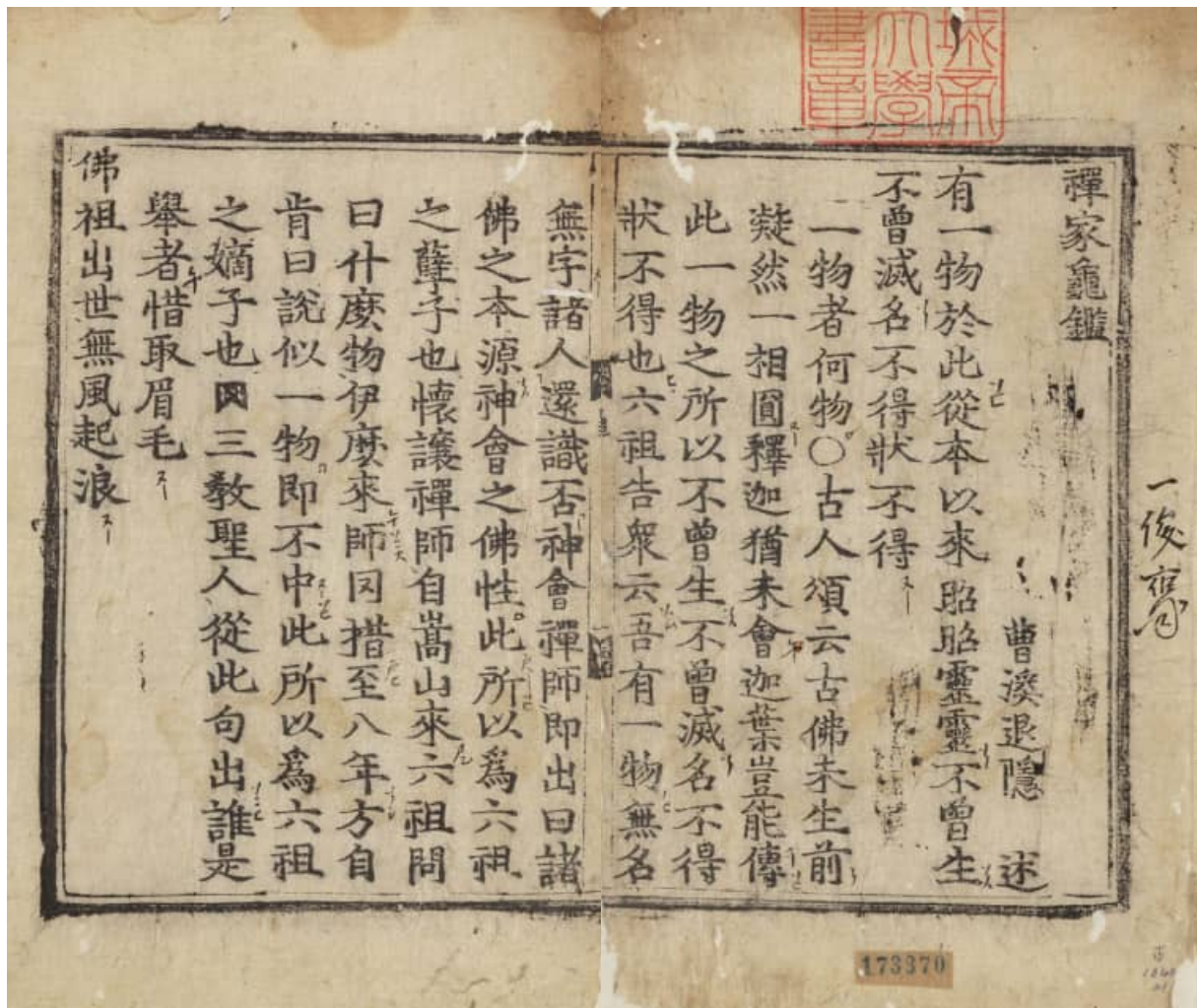
선가귀감

禪家龜鑑

조선, 1618년
종이에 인쇄
26.5 × 18.0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선가귀감》은 조선 중기 서산대사(西山大師) 휴정(休靜, 1520~1604)이 저술한 책으로, 선종(禪宗)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거울처럼 본받아야 할 지침서라는 뜻이다. 1564년 완성하여 10여년의 손질을 거쳐 1579년 제자 사명대사(四溟大師)에 의해 간행된 이후, 선종의 입문서로 중시되어 지속적으로 간행되었다. 1책의 한문본으로 마지막 면에 만력(萬曆) 기묘년(己卯年, 1597)에 사명대사가 쓴 발문, 또 만력 무오년(1618)에 송광사(松廣寺)에서 개판한다는 기문이 붙어 있다.



禪家龜鑑

一後寫

曹溪退隱 述

有一物於此從本以來昭昭靈靈不曾生
不曾滅名不得狀不得

一物者何物○古人頌云古佛未生前
巋然一相圓釋迦猶未會迦葉豈能傳
此一物之所以不曾生不曾滅名不得
狀不得也六祖告衆云吾有一物無名

無字諸人還識否神會禪師即出曰諸
佛之本源神會之佛性此所以爲六祖
之蘆子也懷讓禪師自嵩山來六祖問
曰什麼物伊麼來師因措至八年方自
肯曰說似一物即不中此所以爲六祖
之嫡子也因三教聖人從此句出誰是
舉者惜取眉毛
佛祖出世無風起浪

173370

대사가 1605년에 피로인 송환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던 당시에 언제나 은사인 서산대사의 가르침이 '불교의 자비심'에 있다는 것을 내세워 피로인 쇄환 문제를 종교적 양심에 호소하고 《선가귀감》 등의 저술을 가지고 가서 일본에 전함으로써 서산대사의 이름이 일본 불교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선가귀감(禪家龜鑑)》 사명 유정(四溟 惟政)의 발문

覺以謂中說本來成佛謂本
 覺性悟後置因求則任本邪
 見又中修習至明淨其能生妄
 失真常性則已成邪見者是也
 嗚乎殆弊斯甚之不傳以若是
 其甚也綿之消之如一髮引千鈞
 羊于落地步從各賴其地翁位
 西山一十年 報牛之及覽五卜

本經論語錄石有日用中參決
 焉切之語句則輕錄之時與言
 中三子詢之益悔之一如牧羊之
 法過者抑之彼者報之詔以中
 火覺之門老儒以爲激恩若是
 其切也索三子鈍根也返以法門
 之高低爲病吾以爲慈其建業
 多耗語句不入任之解之編於下

2

之帶結必操爲之功爲善事之有
 如山之高若海之深後若碎若
 骨粉乎命如中抑得一毫其亦
 至之知有見之中之不足不特記
 之讀之以爲寶玩則志以爲乎
 哉之下一子雲耳

時弟孫已卯 其以中夢語其意
 四德信筆推政珠手口訣因爲謹跋

寺南刊 祝願文 刻于秋
 今日至誠齋者古邑 學溥 弘彥
 西上刷遷潤居任 化士湛玄
 乾命乙巳生金厚 劫

4

行如世典之三義也知解二字佛法之
大害故特舉而終之荷澤神會禪師不
得為曹溪嫡子者以此也因而頌曰如
斯舉唱明宗旨笑殺西來碧眼僧然畢
竟如何 孤輪獨照江山靜自笑一聲
天地驚

禪家龜鑒終

右編乃曹溪老和尚退位沙翁
所著也噫二百年來師法益喪
禪者之徒多生妄見宗旨者唯
猶轉抄洗月美沙不知五教上
有直務人心使自悟入之了不
釋者自恃天真撥坐修證不知
如燈後如即為心修習業以
之意釋或混濫沙金同分圖

1

釋之鉤鑿是拜血脈相通義若
之為五宗之源極備於此之見
禪句之於宗向之備者固之深者
通之可釋釋教之龜鑒解外之
良藥也然師之而事與論之解
種一之末句如美句曰之事思心
乘重空欲以此流通方外謬得
已強也釋人白雲釋子著於宗之

人碧泉解德蓋天教之人大禪
地淨源一人大禪地太希門人青雲
道人法勝身務多再拜曰未嘗有
也蓋與同志之七人傾鉢葉中何
能入釋法通以林地韻訓義之思
也火揚於茲從淨源之各調海陸之
都龍珠重珊瑚者誠從宗之難
入海如陸之手顯亦免這法

3

《선가귀감(禪家龜鑑)》 사명 유정(四溟 惟政)의 발문

위 글은 바로 조계(曹溪) 노화상(老和尚)인 퇴은(退隱) 큰스님이 지은 것이다

아! 지난 2백 년 동안 사법(師法)이 갈수록 없어진 나머지, 선(禪)과 교(教)에 종사하는 자들이 각각 다른 소견을 내기에 이르렀다. 교(教)를 받드는 자는 오직 조박(糟粕)인 문자에만 탐닉하며 한갓 바다에 들어가서 모래알만 셀 따름이요, 오교(五敎)에 사람의 마음을 곧장 가리켜서 스스로 깨우쳐 들어가게 하는 문이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 그리고 선(禪)을 받드는 자는 스스로 천진(天真)한 본성만을 믿고서 수증(修證)하는 도리는 무시한 채 돈오(頓悟)한 뒤에 발심(發心)해서 만행(萬行)을 수습(修習)하는 뜻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선과 교가 혼잡스럽게 되어 모래와 금을 분간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원각경(圓覺經)》의 이른바 ‘본래 성불(成佛)’이라는 말을 듣고서 미오(迷悟)가 본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인과(因果)를 무시한다면 이는 곧 사견(邪見)을 이루는 것이다. 또 ‘무명(無明)을 수습(修習)한다.’라는 말을 듣고서 진심(真心)이 망념(妄念)을 낸다고 여긴 나머지 참되고 떳떳한 성품을 잃는다면 이것 역시 사견을 이루는 것이다.

아, 위태하도다! 사도(斯道)가 전해지지 않는 것이 어찌면 이토록 심하게 되었던 말인가! 면면히 이어져 온 우리의 도가 마치 한오라기 머리카락으로 천 근의 무게를 들어 올리듯 거의 땅에 떨어질 지경이 되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큰스님이 서산(西山)에 주석하신 10년 동안 마음의 소를 기르시는 여가에 50여 권의 경론(經論)과 어록(語錄)을 열람 하다가 일용(日用) 중에 참고할 만한 긴요한 어구가 있으면 번번이 기록해 두시고는 때때로 입실(入室)한 몇 명의 제자들에게 친절히 가르쳐 주시곤 하였다. 그리하여 한결같이 양을 기르는 것처럼 지나치면 억누르고 뒤쳐지면 채찍질하여 대각(大覺)의 문에 몰아넣으려고 노심초사하신 그 마음이 그토록 간절하였는데도 제자들은 그만 근기(根機)가 노둔한 탓으로 도리어 법문(法門)이 너무 높다고 불평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큰스님이 제자들의 미혹함을 불쌍히 여겨 각 어구 아래에 주석을 달아 해설하고 순서대로 정리해서 엮어 놓으니, 마치 쇠사슬처럼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면서 혈맥(血脈)이 상통하여 만 권의 대장경의 요지와 오종(五宗)의 근원이 빠짐없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어떤 말을 보더라도 진리를 드러내고 어떤 구절을 접해도 종지(宗旨)에 부합하였으므로 종전에 치우친 자는 원만하게 되고 막힌 자는 통하게 되었으니, 실로 선(禪)과 교(教)의 귀감(龜鑑)이요, 해(解)와 행(行)의 양약(良藥)이라고 이를 만하다.

그러나 큰스님이 항상 더불어 이런 일을 논하실 때에는 한마디 말이나 반 구절이라도 마치 칼날을 때만지듯 조심하면서 남의 평을 받게 될까 염려하셨으니, 어찌 이것을 방외(方外)에 유통시켜 당신의 능력을 내보이려 하신 것이겠는가! 문인(門人) 백운선자(白雲禪子) 보원(普願)이 베껴 쓰고, 문인 벽천선덕(碧泉禪德) 의천(義天)이 교정을 하니, 문인 대선사(大禪師) 정원(淨源)과 문인 대선사 태상(太常)과 문인 청하도인(靑霞道人) 법융(法融) 등이 머리를 조아리고 두 번 절하며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라고 하고는, 마침내 동지 6~7인과 함께 바랑(鉢囊) 속의 재화(財貨)를 기울여 간행해서 유통 시킴으로써 몽매함을 깨우쳐 주신 큰스님의 은혜에 보답하기로 하였다.’

조사(祖師)의 대기(大機)와 용궁(龍宮)의 장경(藏經)이 마치 깊은 못과 가없는 바다처럼 아득하기만 하니, 흑룡(黑龍)의 턱 밑의 구슬을 찾고 산호(珊瑚)를 캐어 보려고 한들 무슨 수로 구하겠는가! 마치 땅을 밟는 것처럼 바다에 들어 가는 솜씨가 아니라면, 물가에서 바라보며 탄식하는 일을 결코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보면 요점만 간추려 정리한 공로와 미혹함을 깨우쳐 준 은혜야말로 산처럼 높고 바다처럼 깊다고 할 것이니, 만 번 뼈가 부서지고 천 번 목숨을 바친다 하더라도,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는가! 천 리 밖에서 이를 보고 듣고서 놀라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으며, 공경히 받들어 읽으면서 보배로 삼는다면, 참으로 이른 바 천년 뒤에 하나의 자운(子雲, 식견이 높은 사람)이 될 것이다.

만력(萬曆) 기묘년(1579) 봄에 조계(曹溪) 종수(宗遂) 사명(四溟) 은봉(隱峰) 유정(惟政)은 배수(拜手) 구결(口訣)하고 삼가 뒤에 쓰다.

右編 乃曹溪老和尚退隱師翁所著也

噫 二百年來 師法益喪 禪教之徒 各生異見
宗教者 唯耽糟粕 徒自筭沙 不知五教上有直指人心 使自悟入之門
宗禪者 自恃天真 撥無修證 不知頓悟後始即發心 修習萬行之意
禪教混濫 沙金罔分 圓覺所謂聞說本來成佛 謂本無迷悟 撥置因果 則便成邪見
又聞修習無明 謂真能生妄 失真常性 則亦成邪見者 是也

嗚呼殆哉 斯道之不傳 何若是其甚也
綿綿涓涓 如一髮引千鈞 幾乎落地無從矣
賴我師翁 住西山一十年 鞭牛有暇 覽五十本經論語錄
間有日用中 叅決要切之語句 則輒錄之 時與室中二三子 詢詢然誨之
一如牧羊之法 過者抑之 後者鞭之 驅入於大覺之門 老婆心得徹困 若是其切也
奈二三子鈍根也 返以法門之高峻為病焉 師翁愍其迷蒙 各就語句下 入註而解之
編次而繹之 鉤鎖連環 血脉相通 萬藏之要
五宗之源 極備於此 言言見諦 句句朝宗 向之偏者圓之 滯者通之
可謂禪教之龜鑑 解行之良藥也

然師翁常與論這般事 雖一言半
句 如弄劍刃上事 恐上紙墨
豈欲以此流通方外 誇衒己能也哉
門人白雲禪子普願寫之 門人碧泉禪德義天校之 門人大禪師淨源
門人大禪師太常 門人青霞道人法融等 稽首再拜曰 未曾有也
遂與同志六七人 傾鉢囊中所儲 入梓流通 以報師翁訓蒙之恩也

大機龍藏汪洋渺若淵海 雖言探龍珠采珊瑚者 孰從而求之
非入海如陸之手段 頗不免望涯之嘆 然即撮要之功 發蒙之惠
如山之高 若海之深 設若碎萬骨粉千命 如何報得一毫哉
千里之外 有見之聞之
不驚不疑 敬之讀之 以為寶玩 則真所謂千歲之下
一子雲耳 時萬曆己卯春節

曹溪宗遂 四溟隱峰惟政
拜手口訣因為謹跋

청허당집

清虛堂集



《청허당집》은 서산대사 휴정의 시문집으로 허균의 서문에 의하면 직전 제자 사명대사 유정에 의해 1612년 경 처음 간행되었다. 이 책은 순조(純祖) 때의 묘향장판(妙香藏板)으로 4권 2책이며 1794년(정조 18) <어제정조서(御製正祖序)>와 <국일대사청허당상(國一大師清虛堂像)>이 수록되어 있다. 「선교결(禪教訣)」은 선(禪)의 요지를 말하고 그 법을 제자 유정에게 부촉한다는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청허당집》 서산대사의 모습과 대사께서 스스로를 평한 글

자찬

80년 전에는 그가 나이더니 80년 후에는 내가 그로구나

自贊

八十年前渠是我 八十年後我是渠

此種門列正宗
（禪門寶鑑卷五）
（四庫全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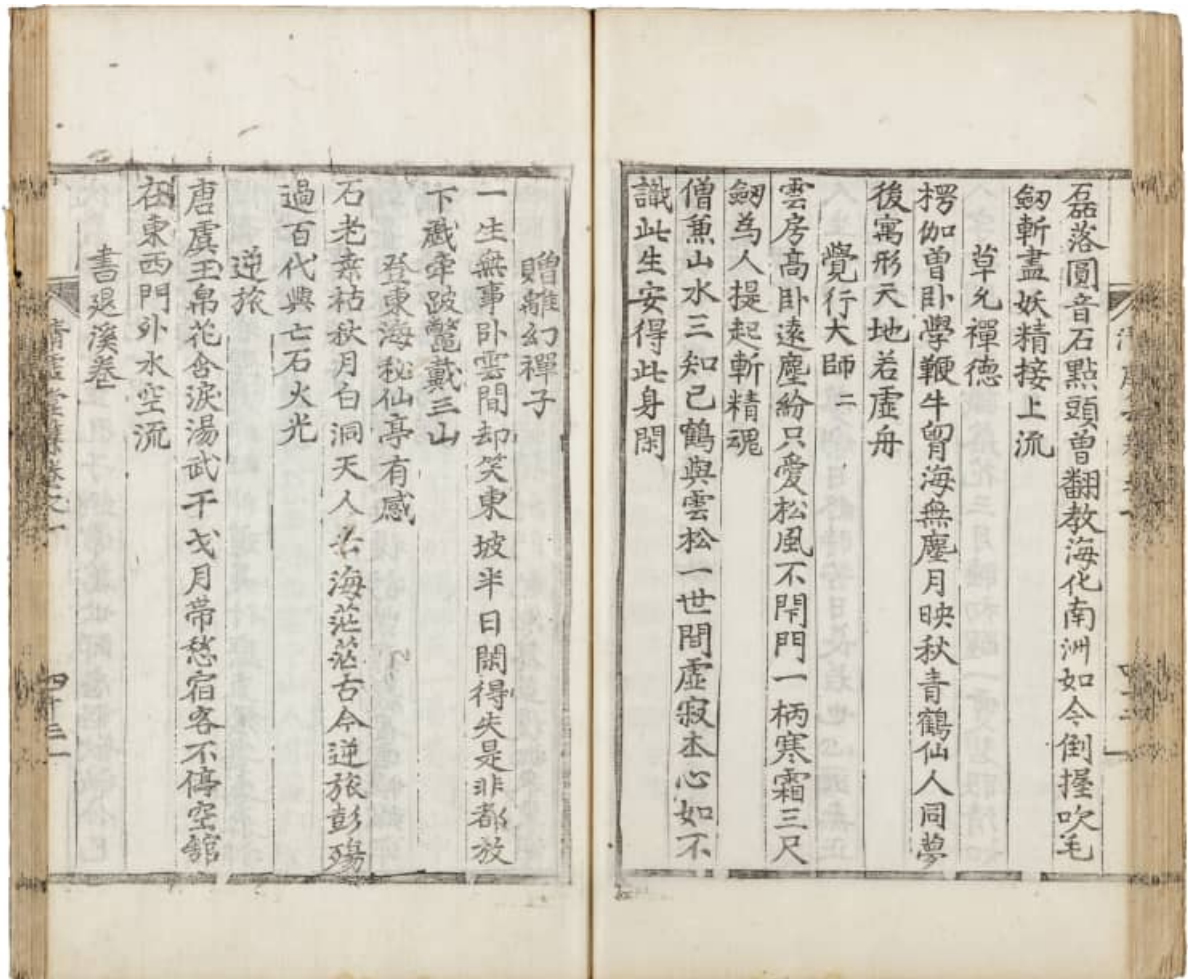
禪教訣 示惟改大師

今禪者曰此吾師之法也今教者曰此吾師之法也
一法上同於同異於異而指馬交誇嗚呼其孰能談
之熱禪是佛心教是佛語也教也者自有言至於無
言者也禪也者有無言至於無言者也自無言至於
無言則人莫得而名焉強名曰心世人不知其由謂
學而知思而得是可慙也教者曰教中亦有禪也云
者出於非聲聞乘非緣覺乘非菩薩乘亦非佛乘之
語也於此禪家入門之初句非禪旨也世尊一代所
說之教也譬如將三種慈悲之網張三界生死之海

以小網挽蝦蟇小如人天以中網挽鯢鱓中如緣覺以大
網挽鯨鰲大如大衆俱置於涅槃之岸焉此教之序也
其中有一物鬣如朱火爪如鐵戟眼射日光口吐風
雷者翻身一轉白浪滔天山河震動日月晦暝起
乎三網之外直上乎青雲之端注甘露而益群生焉
正如祖門教外別傳之機此禪之別於教者也此禪之法吾佛世
尊亦別傳乎真傳祖師者也非古佛之陳言也今錯
承權旨者或以頓漸之門為正脉或以圓頓之教作
宗乘或引外道書說密旨或以弄茶識為本分或以
認光影為自已者至於恣行盲翫棒喝無慚無愧者

法苑珠林卷之四

廿三



磊落圓音石點頭曾翻教海化南洲如今倒握吹毛
劍斬盡妖精接上流

草允禪德

楞伽曾卧學鞭牛曾海無塵月映秋青鶴仙人同夢
後寓形天地若虛舟

覺行大師

雲房高卧遠塵紛只愛松風不閉門一柄寒霜三尺
劍為人提起斬精魂
僧兼山水三知己鶴與雲松一世間虛寂本心如不
識此生安得此身閑

贈離幻禪子

一生無事卧雲間却笑東坡半日閑得失是非都放
下戲牽跛鼈戴三山

登東海秘仙亭有感

石老素枯秋月白洞天人必海茫茫古今逆旅彭殤
過百代興亡石火光

逆旅

唐虞玉帛花含淚湯武干戈月帶愁宿客不停空館
衲東西門外水空流

書退溪卷

青蓮全集卷之二

四十一

이환 선자에게 주다

贈離幻禪子

한평생 일없이 구름 사이에 누웠나니
동파의 한나절의 한가함이 우스워라
잘잘못과 옳고 그름 모두 다 내려놓고
장난삼아 자라 끌어와 삼산을 이계 하였노라

一生無事臥雲間
却笑東坡半日閑
得失是非都放下
戲牽跛鼈戴三山

사명대사가 쓴 발문이 있는 경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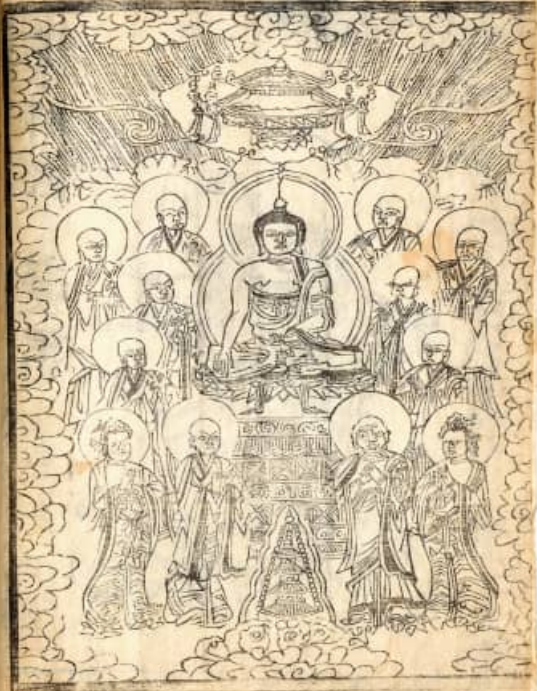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조선, 1608년
세로 29.4cm
국립중앙박물관



《약사경》에서 설하는 약사불의 능력은 수명의 연장과 질병의 제거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내용을 주로 한다. 따라서 일찍부터 주요한 기원의 대상이 되었고,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부처가 될 수 있었다. 이 경전의 앞에는 변상도가, 마지막에는 1608년 사명당(四溟堂) 유정(惟政)의 발문이 있다. 사명대사가 30세에 쓴 《허응당집발》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해서와 행서가 합해져 힘을 더하였고, 기세를 넘어 박진감까지 느껴지는 서풍을 보여주고 있다.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宣

大唐三藏法師玄奘奉

詔譯

如是我聞一時薄伽梵遊化諸國至廣
嚴城住樂音樹下與大苾芻眾八千人
俱菩薩摩訶薩三万六千及國王大臣
婆羅門居士天龍藥叉人非人等無量
大衆恭敬圍遶而為說法
尔時曼珠室利法王子承佛威神從座
而起偏袒右肩右膝着地向薄伽梵曲

宰関把断水世不通不空彩蓮電光以
及三世諸佛以此持在佛依占代祀此只
待空自族我况是不涉言候文字且為此
難卷難又從甚哀受得末為辨別以王將
何而崖撒手不交人觸在或系於不先打
當藤吉地法仁者公識此散卷於本堂
不從王降不從人得盡從特方應為父母
進冥福一心上信出無更先亡法界口口
情另不為着然難如是彩涉他口口是

交持一向作底生道不是空者徒勞
何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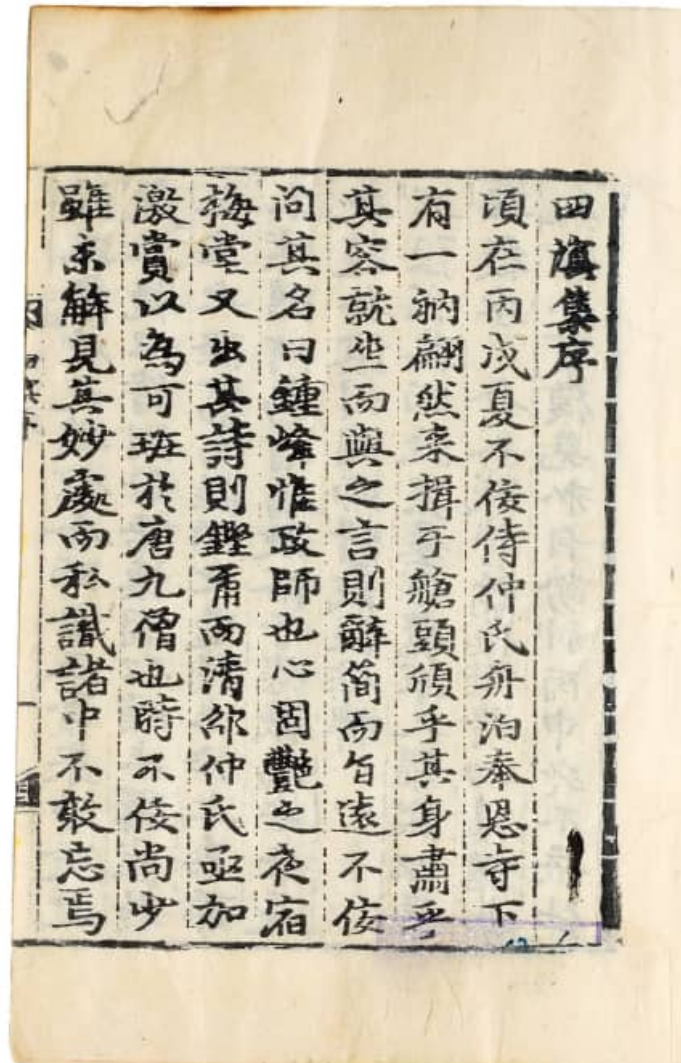
高曆三十七年戊申五月廿四日四溟松雲謹跋

사명대사가 쓴 시와 기문을 모은 시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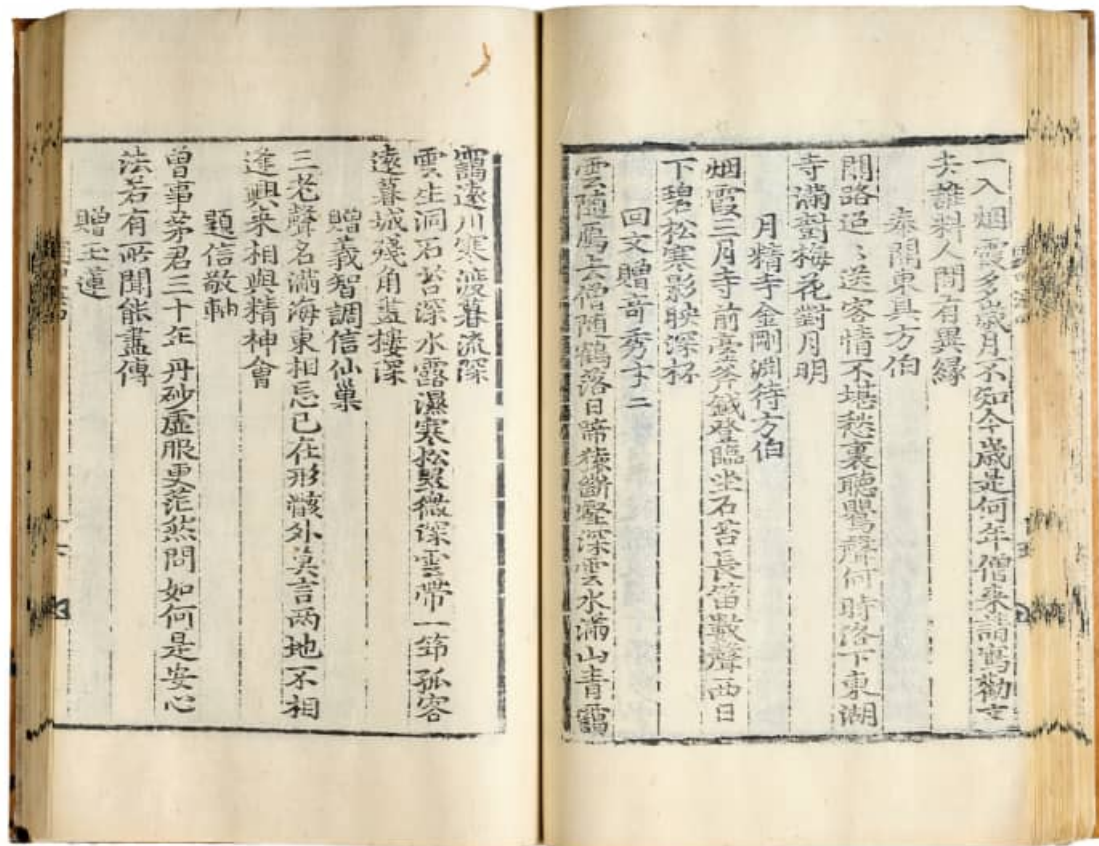
사명당대사집

四溟堂大師集

조선, 17세기
종이에 인쇄
27.3 × 19.2cm
월정사성보박물관



《사명당대사집(四溟堂大師集)》은 임진왜란 당시 의승장으로 활약한 사명대사가 쓴 시와 기문을 모은 시문집이다. 제자 혜구(惠球)가 1612년에 7권 1책의 목판본으로 간행하고, 성일(性一)이 1653년에 중간본을 간행하였다. 《사명당대사집》에는 사명대사가 월정사 중창 당시에 쓴 글(月精寺法堂開椽疏文)이 전한다.



월정사 금강연에서 방백(관찰사)을 접대하며
 연하의 삼월 절간 앞의 누대
 부월(관찰사)이 왕립하여 이끼 낀 돌에 앉았네
 긴 젓대 몇 소리에 서산에 해는 지고
 푸른 술 찬 그림자 넘치는 술잔에 비치네

月精寺金剛淵待方伯

烟霞三月寺前臺
 斧鉞登臨坐石苔
 長笛數聲西日下
 碧松寒影映深杯

사명대사의 월정사 중창이 담긴 기록

《사명당대사집》에 기록된 월정사 법당의 서까래를 고치고 올린 글

청년 시절에 머리를 깎고 백발의 몸으로 두루 돌아다닐 적에, 구름과 같은 발자취가 이곳을 지나다가 옛날의 영광을 돌아보매 오늘의 광경이 마음 아프기에, 8백 년의 유적을 수습하여 거듭 새로이 할 뜻을 마침내 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정해년(1587, 선조 20) 여름에 권선문(勸善文)을 속에 품고 다니다가 기축년(1589, 선조 22) 봄에는 법당을 고치고 서까래와 마룻대를 올렸으며, 그 여름에 계속해서 범종루(泛鐘樓)의 서까래와 마룻대를 새로 만들고, 마침내 신도들과 함께 큰 마음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

이 청정한 가람(伽藍)이야말로 범부를 성인으로 만드는 용광로로서, 고승 대덕의 본거지요, 승복의 동산 숲인 데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천지가 개벽한 이래로 지금까지 신선이 사는 산으로 칭해져 왔고, 당(唐)이 망하고 송(宋)이 흥해도 참선하는 사찰로 일컬어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오래되어 마룻대와 들보가 꺾였으므로, 승려가 우리러 사모하고 속인이 간하여 아뢰니 누구의 눈에서도 눈물이 줄줄 흘러나왔고, 빗발이 내리치고 바람이 불어다치매 불상(佛像)의 얼굴에 이끼가 파랗게 끼었습니다. 이에 제자(유정)는 말을 내었으나 길이 없는 것을 깨닫고, 공을 세우려면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멀리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5년 동안 권선문을 몸에 지니고서 지팡이를 끌고 사해를 돌아다녔으나, 연기 낀 마을과 비 내리는 도시에서는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적어 탄식하고, 가을 달과 봄바람 앞에서는 세월이 빠르게 지나감을 애석해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집집이 다니면서 한 자치의 벼와 세 줌의 쌀을 거두어 황우(黃牛, 기축년(1589)) 늦봄에 이르러 법당을 고쳐 새로 수리하고, 백호(白虎, 경인년(1590))의 단오를 맞이해 향조(香藻)대회를 열었습니다. 그 일이 비록 초가 집을 엮은 것 같은 단순한 일이지만, 그 공력은 하늘을 오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시냇가의 차와 어수리가 비록 변변찮은 제사 음식이지만, 정성을 들이고 목욕재계(沐浴齋戒)한 것은 상제(上帝)에게 올릴 수가 있을 만한 것입니다. … 원하옵건대 이 법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정각(正覺)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러 옥호를 대하여 정성껏 이 소를 지어 바치는 바입니다.

《泗溟堂大師集》月精寺 法堂 開椽疏文

月精寺法堂改椽疏

弟子某云云 本以法界中一漚 出沒四生 會承微善 受生湖西 青年祝髮 白首周遊 雲蹤過此 覽古傷今 收拾八百年遺蹟 遂發重新之志 丁亥夏袖勸疏 己丑春改法殿上椽棟 是夏繼創泛鐘樓椽棟 遂與檀子輩 同發大心 伏為主上殿下 聖壽萬歲 王妃殿下 聖壽齊年 王子諸君 壽命千秋 國泰民安 法輪常轉 次願大檀信等 各各隨喜施主 緣化比丘等 伏為先亡云云 無主孤魂 俱生淨界 亦為各各己身保體 現增福壽 當生淨刹 各各一門子孫 災消障盡 福足惠圓 然願法界有情 舉蒙解脫之願 精備玆羞香燈燭 布施之儀 供養十方法界雲海聖賢 三界四府羣真 動勤作法 仰祈妙援者 右伏以茲氏之現寶閣 成佛有分 桓仁之建蓮宮 生天無疑 矧此清淨伽藍 實是聖凡鑪鋪 龍象之淵藪 縑素之園林 天開地闢 萬萬古之仙山 唐廢宋興 藉藉曰之禪刹 歲月其遠 樑棟云摧 僧膽俗謁 衆唯之淚潸焉 雨擊風攻 佛面之苔綠也 於是弟子某 自覺立言無路 遠思立功有懷 袖疏五年 携笻四海 烟村雨郭 嘆知音者寡 秋月春風 惜光景其忙 得千門之一斜 收百戶之三撈 至黃牛之春晚 改堂殿而修新 丁白虎之端陽 置香藻之大會 事雖同於結草 功可侔於登天 澗溪茗苴 雖同淺羞 心誠齋沐 可薦上帝 營締縱臥 菱鑑即周 伏願主上殿下 陰陽沍之頓空 年月厄之並釋 聖壽增崇 甲子周天而不老 玉候彌固 崑崙偃岳而恒常 山海產祥 乾坤釀瑞 赤眉潛迹 白額亡形 王妃殿下 脇誕天縱 頂娠生知 能綏寶體 壽命齊年 王子諸君 壽命千秋 亦願大施主某等隨喜各各保體 生增福壽 死入蓮胎 然願法界有情 同成正覺者 仰對玉毫 披達誠疏

壽萬歲 王妃殿下聖壽齊年 世子部下壽萬千
秋亦為其共希莫合意所求如心災消墮上福且壽
圓然後願法界有情等沐德感戴苦難仰酬金容
表言詩詠

月精寺法堂改緣跋

弟子某云：本以法界中一酒出沒四生會承微善
受生湖西青年祝髮自負周遊雲蹤過此覽古傷今
收拾八百年遺蹟遂發重新之志丁亥夏袖勸疏已
丑春改法殿上緣棟是夏繼創從鐘樓棟遂通種
子輩同獲大心伏為 主上殿下聖壽萬歲 王妃

殿下聖壽齊年 王子諸君壽命千秋國泰民安法輪
常轉次願大禮信等各、隨喜施主緣化比丘壽伏
為先云、無主孤魂俱生淨界亦為各、已身保
體現增福壽當生淨刹各、一門子孫災消障盡福
之惠圓然願法界有情舉蒙解脫之願精情殊專香
燭燭布施之儀供養十方法界雲海聖賢三界四府
羣真勲動作法仰祈妙援者右伏以慈氏之現寶閣
成佛有分和仁之建蓮宮生天無疑矧此清淨伽藍
實是聖凡鑪鑪龍象之潛數縹素之園林天開地闢
萬古之仙山唐虞宋興籍、曰之禪刹歲月其遠

樑棟云推僧賤俗謂眾昨之淡清焉兩擊風吹佛面
之蒼綠也於是弟子某自覺立言無路遂思立功有
樑棟五年排第四海烟村兩郭莫知有者當秋月
春風惜光景其忙得千門之一斜收百戶之三按至
黃牛之春晚改堂殿而修新丁白帝定端陽置香藻
之大會事雖同按結章功可俾救登天潤澤名並輝
同淺若心誠齋沐可薦上帝贊締繫前菱鑑即周伏
願 主上殿下陰陽珍之頓空年月九之並釋聖壽
增崇甲子周天而不老玉候彌罔風風偃岳而恒常
四海蒼蒼乾坤醞瑞赤眉潛迹白輪亡形 王妃殿

下賜誕天縱頂娘生知能履實體壽命齊年王子諸
君壽命千秋亦願大施主某等隨喜各、保體注增
福壽死入蓮胎然願法界有情同成正覺者仰對玉
毫披達誠跋

尚珠大師舊跋

佛法之有覺於羣迷如天地之產百嘉師資之無窮
於大義若君臣之成一道倘闕於洪造誰拔於冥遊
瞻彼魂典是我思待伏念我師稟精靈之逸氣生禁
域之皇城張座世之軟紅暮金仙於蓮島斬周羅於
龍門仍受具足決已事於鉅公之席遂入禪那

관동의 구 방백에게 드리다 奉關東具方伯

| | |
|--------------------------|---------|
| 관동 길 아득아득 객을 보내는 정이여 | 關路迢迢送客情 |
| 시름 속에 피꼬리 소리 차마 못 들겠소 | 不堪愁裏聽鶯聲 |
| 어느 때나 한양 땅 동호의 절간(봉은사)에서 | 何時洛下東湖寺 |
| 나무 가득 매화 아래 밝은 달 마주할지 | 滿樹梅花對月明 |

- 사명대사, 《사명당대사집》

오대산 월정사 시에 차운하다

| | |
|--------------------|-------|
| 명산이라 진실로 뛰어나며 | 名山誠俊偉 |
| 옛 절은 맑고도 그윽하니 | 古寺亦清幽 |
| 평생의 소원 비로소 풀며 | 始抒平生想 |
| 기쁘게 이틀 묵으며 머무네. | 仍拚信宿留 |
| 여전한 추위라 길에 눈 있고 | 餘寒澗道雪 |
| 푸른 돌 여울은 연못 되었네. | 淡碧石渦湫 |
| 뛰어난 곳은 하늘이 빌려준 것 | 勝地皆天借 |
| 멀리 유람하는 게 무슨 상관이라. | 何傷作遠遊 |

- 구사맹(具思孟, 1531~1604), 《팔곡집(八谷集)》

사명대사가 부산과 대마도에서 지은 시

부산의 대양에서

釜山大洋

| | |
|--------------------------|---------|
| 만리 물결 헤치고 일위로 뜻대로 달리나니 | 一葦橫驅萬里波 |
| 하늘에 이어진 저 멀리 탄화 같은 섬 하나 | 彈丸孤島接天賒 |
| 황하의 근원은 응당 하늘 서북쪽일 텐데 | 河源應是天西北 |
| 무슨 일로 동쪽에 박망의 뗏목 띄웠는지 | 何事東浮博望樓 |
| 그 동안 귀밑머리 해마다 백발이 늘거마는 | 邇來衰髮逐年華 |
| 또 남녘 바다에 팔월의 뗏목을 띄웠구나 | 又泛南溟八月樓 |
| 팔 굽히고 허리 꺾는 일도 나의 뜻 아니거니 | 曲臂折腰非我意 |
| 어떻게 머리를 숙이고 원수의 집에 들어가랴 | 奈何低首入讐家 |

- 사명대사, 《사명당대사집》

대마도 객관에서 왼쪽 두 번째 어금니가 괘히 시리고 아파서 옆드려 신음하다

在馬島客館 左車第二牙無故酸痛 伏枕呻吟

| | |
|------------------------|---------|
| 병든 몸 객관에서 어금니까지 아프다니 | 病局賓館痛生牙 |
| 앉아서 세어 보니 평생 좋은 일 없었다네 | 坐算平生百不嘉 |
| 머리 깎고 중 되어도 항상 길에 있었고 | 剃髮作僧長在路 |
| 세상 본받아 수염 남겨도 집은 없었네 | 留鬚效世且無家 |
| 연하의 산중생활도 설어서 익히기 어려웠고 | 烟霞事業生難熟 |
| 존성하는 공부에도 채찍을 가하지 못했다오 | 存省工未榮未加 |
| 진퇴의 두 길 모두 그르치고 말았는데 | 進退兩途俱錯了 |
| 흰머리로 어이하야 또 배를 땀는지 원 | 白頭何事又乘槎 |

- 사명대사, 《사명당대사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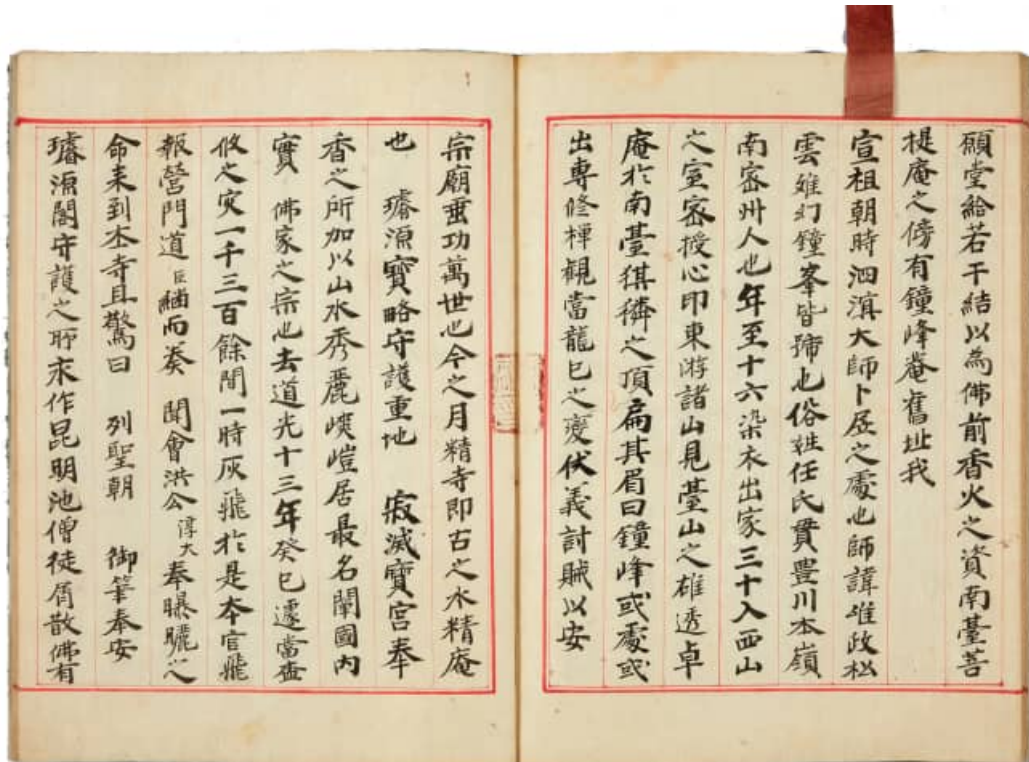
오대산사적 병·정본

五臺山事績 丙·丁本

대한제국 1902년
종이에 먹
병본 36.7 × 25.5cm
정본 38.4 × 30.0cm
월정사성보박물관



《오대산사적》 병·정본



《오대산사적》 정본 「山中散記」

《오대산사적》은 오대산의 신기한 사건과 신라 고승 자장(慈藏)이 창건한 이래 월정사의 영험한 내력을 담은 기록이다. 정본은 고려후기 문신 민지(閔漬, 1248~1326)의 오대산사적기를 중심으로 1902년 간행되었다. 조선 태조와 세조 관련 기록, 오대산 사고의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에 있는 여러 기록[山中散記]」에 사명대사가 남대 기린봉 정상에 있는 암자에 ‘종봉(鐘峰)’이라 써서 내걸고 선관(禪觀)을 닦았다고 전한다.

《오대산 사적》 「산에 있는 여러 기록[山中散記]」에 보이는 사명대사 · 오대산 사고 관련 기록

… 남대 보리암(菩提菴)은 그 옆에 종봉암(鐘峰菴)의 옛 터가 있는데, 선조 때 사명대사가 머물렀던 곳이다.

대사의 법명은 유정(惟政)이며, 송운(松雲), 이환(離幻), 종봉(鐘峰)은 모두 법호이다. 속성은 임씨(任氏)이고 관향(貫鄉)은 풍천(豊川)이며 태어난 곳은 영남 밀양(密陽)이다. 나이 16세에 삭발 출가하였고, 30세에 서산대사 문하에 들어가 심인을 전수받았다. (心印. 문자나 언어로써 나타낼 수 없는 깨달음의 경지)

동쪽으로 여러 산을 행각하다가 오대산의 웅장함을 보고, 남대 기린봉 정상에 우뚝이 있는 암자에 마음이 통하여 편액에 ‘종봉(鐘峰)’이라 써서 내걸고 출입하거나 머물거나 오로지 선관(禪觀)을 닦았다.

임진년(1592)에 일본이 침략해오자, 의승병을 일으켜 왜적을 토벌하고 종묘사직을 안정시켜 만세에 전할 큰 공을 세웠다.

… 【1914년(대정 3) 3월 3일 총독부 소속원이 평창군에 이르렀다 (서무주임 히구치와 고용된 조병선 등이 오대산에 와서 머물며 선원보각에 소장되어 있는 사서 150책을 읽어지고 강릉군 주문진으로 옮겼다. 곧장 수입하는 곳은 일본 동경대학교였다. 당시 운반하는 사람들은 평오동에서 3~11일 동안 작업을 해서 마쳤다.】

… 南臺菩提菴之菴傍有鐘峰庵舊址我宣祖朝時泗溟大師卜居之處也師諱唯政松雲離幻鐘峰皆號也俗姓任氏貫豊川本嶺南密州人也至十六染衣出家三十入西山之室密授心印東游諸山見臺山之雄透卓庵於南臺麒麟之頂扁其眉曰鐘峰或處或出專修禪觀當龍巳之變仗義討賊以安宗廟垂功萬世也今之月精寺即古之水精菴也璿源譜畧守護重地寂滅寶宮奉香之所加以山水秀麗嶺居最名闡國內實佛家之宗也去道光十三年癸巳遽當鬱攸之災一千三百餘間一時灰飛於是本官飛報營門道臣繼而奏聞會洪公淳大奉曝曬之命來到本寺且驚曰列聖朝御筆奉安璿源閣守護之所永作昆明池僧徒屑散佛有露地之座豈小事哉回拜之日即以奏聞上命下空名帖四百張重建法堂御室閣大樓閣療舍百廢俱興衆體悉備自是山門以之光輝神祇以之歡喜法侶齊集拈香慶祝曰洪祚帶河礪山而遠存寶壽如松如栢而長青金枝永舞於海岸玉葉長春於漢陽佛日恒照法輪重轉云爾…

… 大正三年三月三日總督府屬員及平昌郡【庶務主任桶口雇員趙秉璇等來當本山留鎮璿源寶閣藏史冊壹百五十負移運于江陵郡注文津直輸入地日本東京大學校其時運搬人間坪五洞舉行自三日至十一日畢役】…

아미타 부처의 명호

무량광

無量光

1605년경(추정)

종이에 먹

33.0 × 78.0cm

개인소장



‘무량광(無量光)’이라는 큰 글씨 옆에 세로로 ‘유정(惟政)’이라고 비교적 작은 글씨로 쓰였으며 글자가 정연하고 품격 있는 필력의 행서이다. 시방 삼세에서 첫째가는 부처의 명호(名號)로서, 아미타 부처는 그 이름을 열 번만 부르면 누구라도 반드시 자신의 세계에 태어나게 해 달라는 서원을 세웠다.

첫 글자 ‘無’가 보편적인 자형에서 가로획이 한 획 추가된 점이 독특한데 유사한 자형이 남북조시기와 수나라 때의 글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서예에 능했던 대사가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사명대사의 몇 없는 대자 목적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여느 행서 못지않은 조화로움, 절묘한 자형적 아름다움을 확인할 수 있다.



사명대사의 선시가 쓰인 병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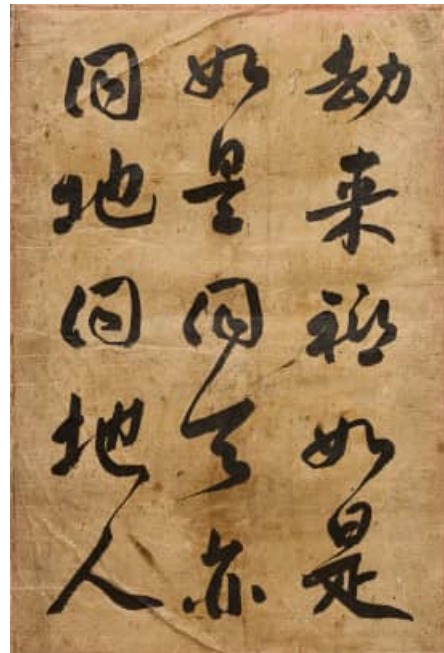
팔곡병

八谷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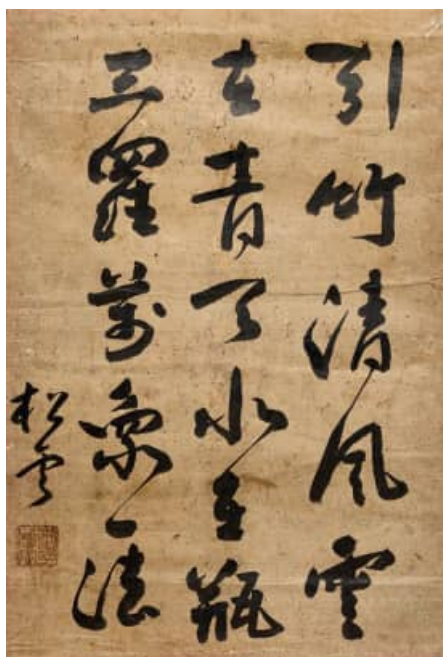
조선
종이에 먹
각 72.0×36.0cm
개인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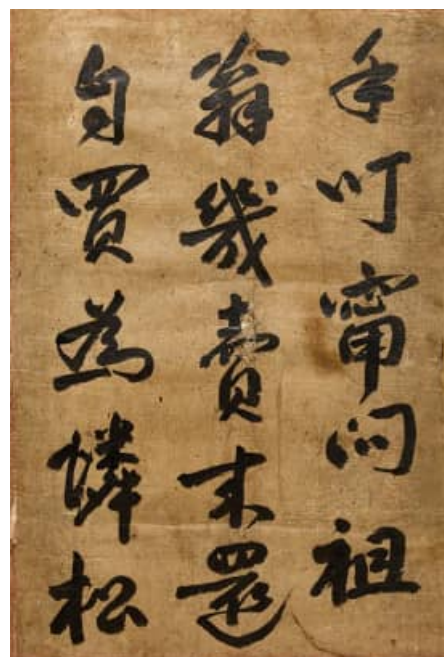
4쪽



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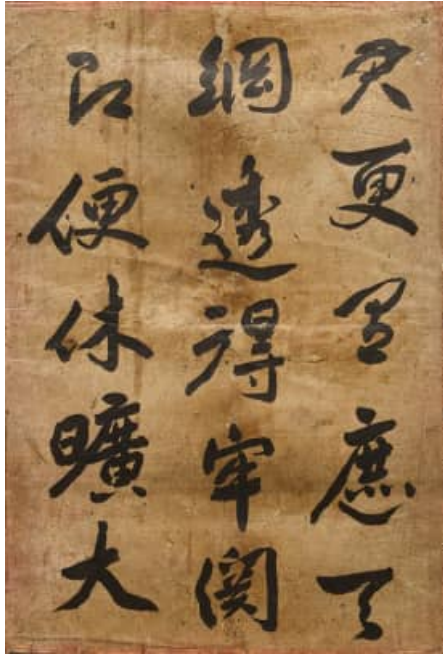
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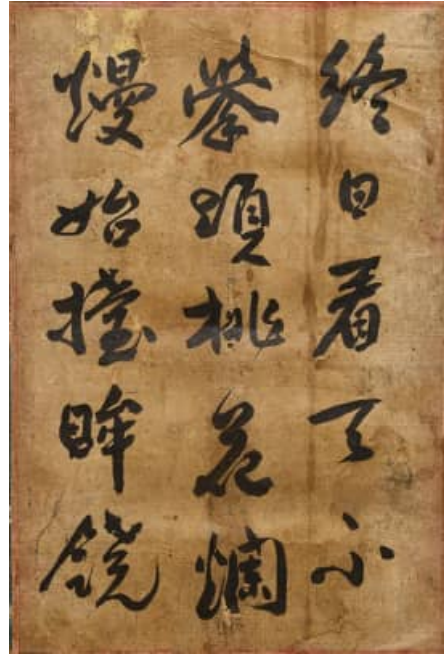
7쪽

사명대사가 행서로 쓴 선시병풍이다. 당과 송대의 선사(禪師)들이 쓴 선시명구(禪詩名句)를 차용하여 쓴 묵서로 모두 8폭으로 되어 있는데 원시와 달리 빠진 글자와 다른 글자, 순서가 바뀐 글자가 있다.

〈팔곡병〉 글의 말미 왼쪽 하단에는 사명대사 아호 ‘송운(松雲)’ 목기, 불제자(佛弟子) ‘송운(松雲)’ 전서방인이 남겨져 있으며 투박하고 중후하게 써져 있다. 선적 사유를 담고 있는 선시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사명대사가 고승의 시 가운데 명구를 적고 머리 병풍으로 삼아 계송(偈頌)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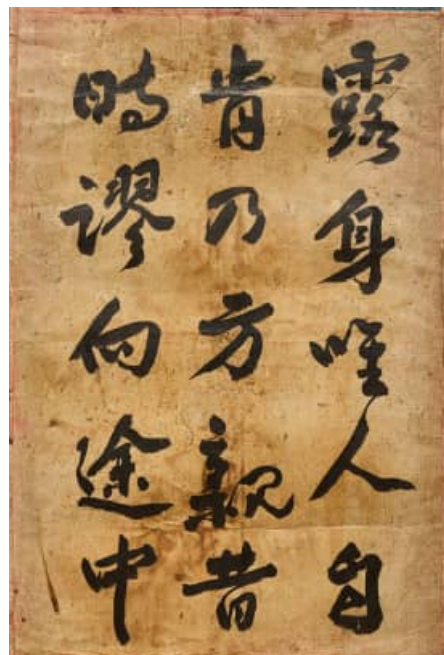
2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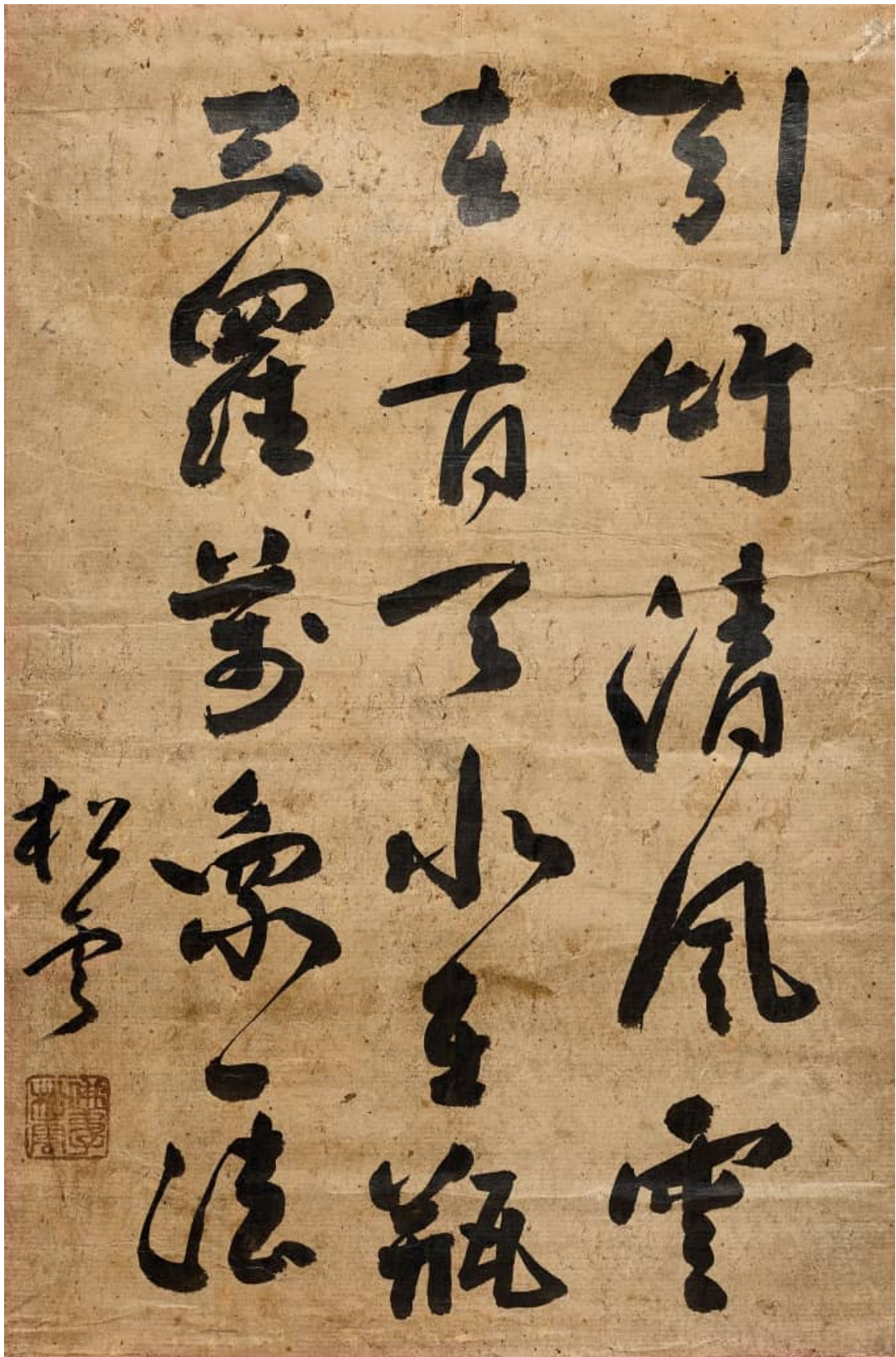
1폭



6폭



5폭



온종일 하늘을 보되 머리를 들지 않더니
복숭아 꽃이 흐드러져 눈을 뜨기 시작했네
다시 하늘의 그물로 가리운다 하여도
굳은 관문을 뚫고 (진리를) 알았으니 이젠 편히 쉬리

終日看天不舉頭
桃花爛漫始擡眸
饒君更有遮天網
透得牢關即便休

* 불등수순(佛燈守珣) 선사 시 차용

광대한 겁으로부터 그저 이렇게 왔고
이렇듯 하늘과 땅도 같다
하늘과 땅 같다고 하니 어떤 꼴인가
어떤 꼴이냐? 옳지 않음이 없다

曠大劫來祇如是
如是同天亦同地
同地人作麼形
作麼形兮無不是

* 온주본선(溫州本先) 선사 시 차용

** 제 3구 원전 同地同天作麼形

만상 가운데 홀로 드러난 몸
오직 사람들 스스로가 수궁하고 친해지내
예전에는 잘못 알고 길거리에서 찾았는데
이제는 불 속에서 얼음을 보는 것 같구나

萬象之中獨露身
唯人自肯乃方親
昔時謬向途中覓
今日看如火裏冰

*장경혜릉(長慶慧稜)선사시 차용

산밭 한 조각 한가한 밭에
공손히 정성껏 노인장께 물었네
몇 번이나 팔고 다시 돌려 샀는가
대숲과 솔숲에 이는 맑은 바람이 좋아서라네

山田一片閑田地
叉手丁寧問祖翁
幾賣來還自買
爲憐松引竹清風

*오조법연(五祖清演) 선사 시 차용

**제 3, 4구 원전 幾度賣來還自買
爲憐松竹引清風

구름은 푸른 하늘에 있고 물은 병 속에 있네
삼라만상이 하나의 법이라

雲在青天水在瓶
三羅萬象一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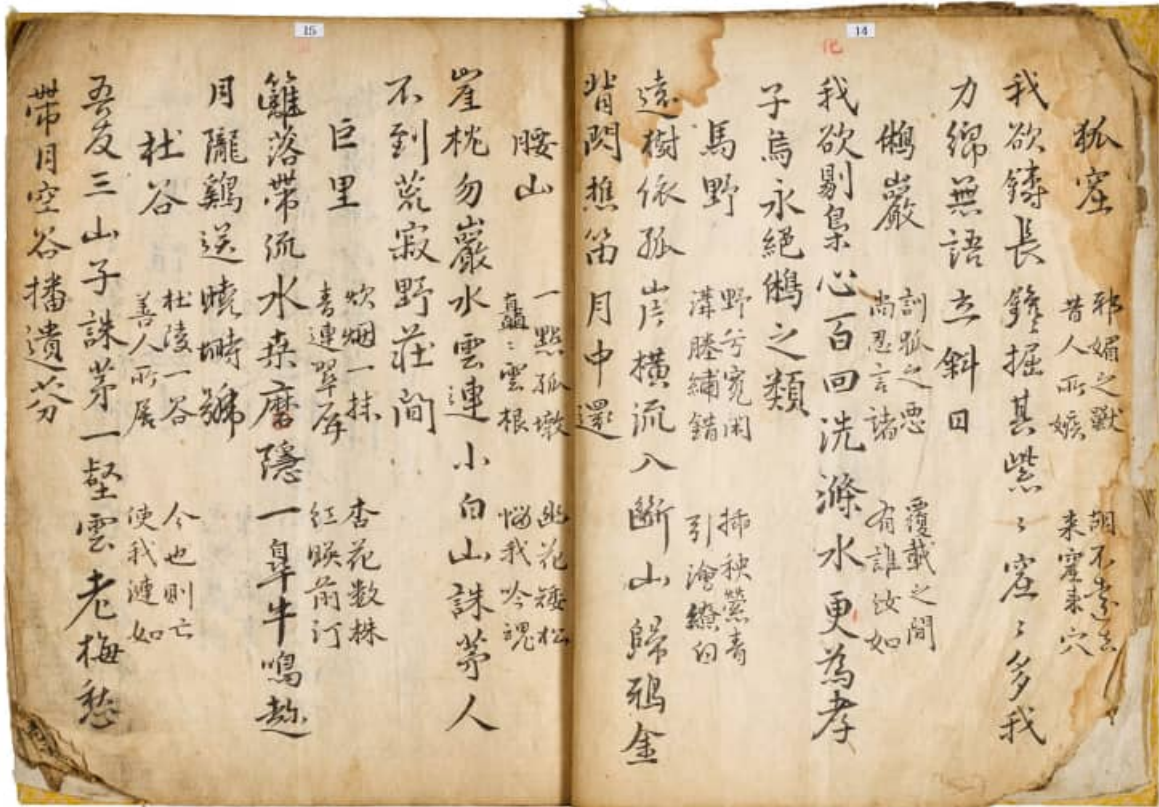
송운

松雲

용담취규정잡영 해서본

龍潭翠叫亭雜詠 楷書本

조선, 1599년
종이에 먹
29.0 × 22.5cm
밀양시립박물관
경상남도 문화유산자료



송운대사 친필 해서본(1599)

사명대사는 임진왜란 직후인 1599년, 1600년 경 안동 용수사에 머물며 죽친 용담 임흥(任屹, 1557~1620)의 집에 내왕 하면서 그곳 사대부들과 시를 짓고 글을 썼다. 이 전적은 임흥이 쓴 《취규잡영》에 있는 시를 사명대사가 필사한 것이다. 행서가 가미된 해서로 격조있는 필체가 돋보이며 해서본의 마지막 부분에는 ‘기해년(1599) 정월 용산에서 쓰다(己亥書于龍山)’라 기록되어 있다.

琴架

架以度琴
錦以韜琴

琴之實之
野其至音

峽月冷侵絳江風送韻癖之倚半

耐暗解心之愠

清

藥圃

維藥有圃
手自鉏灌

詩春斲秋
以丸以散

欲采圃中藥煉為民壽丹均露瘴

疾輩使有春心欲

鶴砌

紅白
次第開謝

雲曉携芳節
月夕傳翠

花開天地仁花落乾坤翕陰陽自

健來浪喜浪愁蝶

醉石

存子醒澤
陶令醉石

傷時苦恨
做酒難歸

生憎興慶草醉愛採愁常臥有

綠雲私頻呼玉友

釣艇

艇小如葉
載月弄風

畫日自橫
倚有漁翁

斫却北山松刺衣為江上艇扣船一

聲歌桂棹秋光冷

碧碣

兼薄之潤
砌水流碧

觸石鳴琴
遇漁喧聲

幽谷響潺湲家泉細作碣福後我

非人時之歡且盥

已亥正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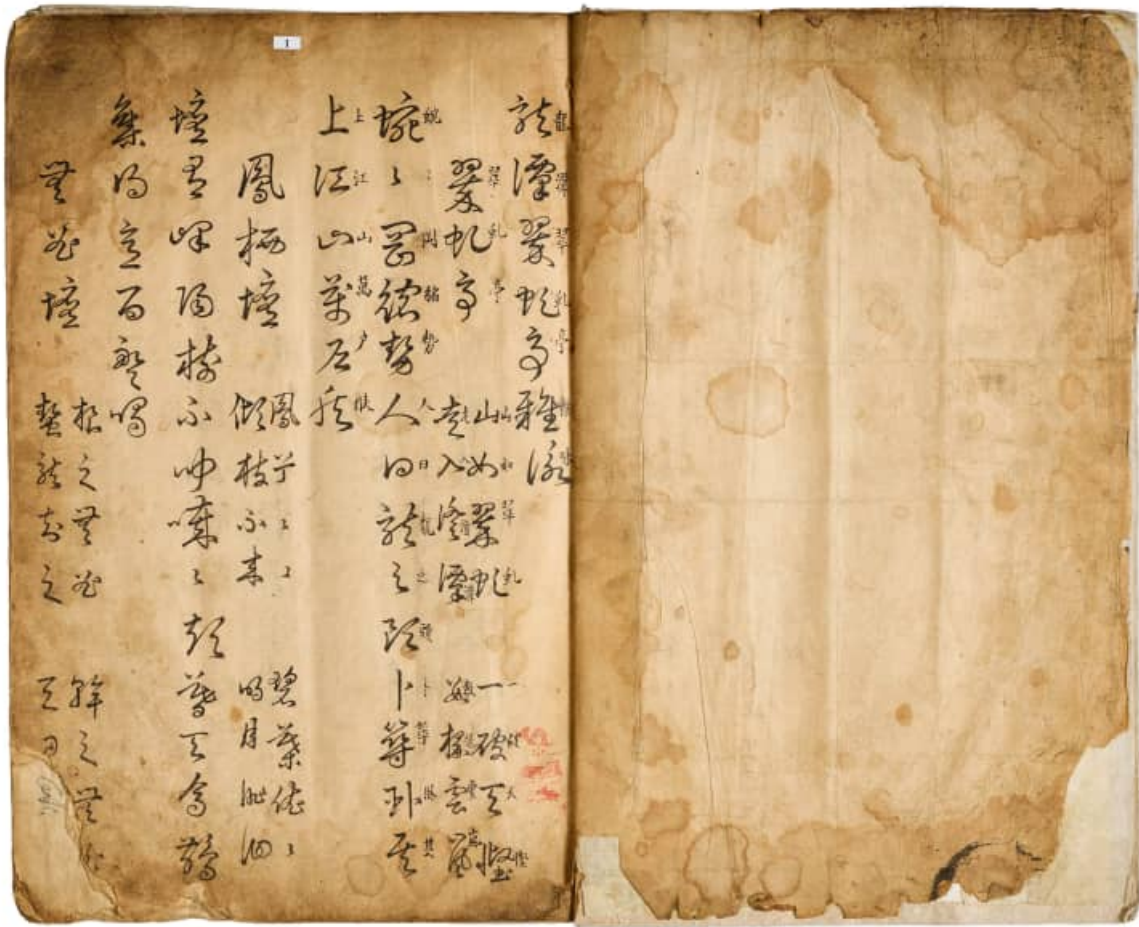
Handwritten calligraphy in cursive script, likely a continuation of the text from the previous pages.

임진왜란이 끝나고 사명대사가 안동 용수사에서 필사한 문집

용담취규정잡영 초서본

龍潭翠叫亭雜詠 草書本

조선, 1600년
종이에 먹
35.6 × 24.0cm
밀양시립박물관
경상남도 문화유산자료



송운대사 친필 초서본(1600)

사명대사가 1559년 용담 임흥의 시를 해서본으로 필사한 《용담취규정잡영》을 다음해인 1600년 초서로 다시 쓴 책이다. 사명대사가 활동하던 16세기 서예가들의 유묵에서도 보이는 서풍으로 단정한 소초(小草)로 쓰여져 있다.

家以鑄古鏡極其美，在八家力待多
多其語立斜日
鶴岩 訓經之七 唐詩之四
家名到案上石曰洗滌水其有君子
會水結結之類

松蘿噴雲

在嘉澗海中央之山巖水窟蓋為雲
迤來蒼茫起片，新陰暮下勢紛々
青髯白衣遙隨兒及，尺山徑猶未分
曉羅玉老獨月嬉遊之不堪持贈君
柳峰噴雲
霜清一斗社王高木紅酣光煦耀
翠空翠心紫瀟瀟况及斜暉明寺山

古塚 晚波古塚 李月花
吊古，城名滿今，塚雲照，今古

燒香 山旌地塔 唐詩一畫
燒香四山雲藝之子晴，乘陰風噴翠

快化入鏡夾鏡
漁翁 一江上漁父 草疎薑皓

三公 江上 羅漢
極峻 臨江 羅漢

不是半翁子名性畫一，以只氣味五

山店 試及口店 稱善為歷

菜根馬三松石向言小，乘銀唇帶面

是社 社名曰蓬 或去冬月

조타이(承兌)가 사명대사를 찬한 글

사명대사는 문필재능이 신 같이 뛰어났다.
구절마다 기특하고 말마다 절묘하여
즐거움을 감당할 수 없다.

필적 또한 아름다워
내 집의 보물로 삼으려 하자
꽤히 승낙하였다.

-사이쇼 조타이(西笑承兌)-

조타이(承兌)에게 주다

비 온 뒤에 먼지 없이 깨끗한 정원
동풍에 버들가지 날리는 특별한 봄날
그 가운데 남종(南宗)에 귀 뚫린 객이 있나니
세상 모두 취했는데, 홀로 깬 사람이로세

- 사명대사, 《사명당대사집》 -

사명대사가 쓴 이백의 시구

곡조음청일

谷鳥吟晴日

조선, 1605년
종이에 먹
37.1 × 11.4.cm
표충사호국박물관





강하에서 송지제와 헤어지다

江夏別宋之悌

초 땅의 물은 맑아 하늘 같고
 멀리 푸른 바다와 통하여 하는구나.
 그대는 천리길 멀리 떠나니
 흥취는 한 잔 술 가운데 있구나.
 계곡의 새들은 맑게 갠 날을 노래하고
 강가의 원숭이 저녁 바람을 우네
 평생에 눈물 한번 흘리지 않다가
 이로부터 눈물이 그치지 않을구나

楚水清若空
 遙將碧海通
 人分千里外
 興在一杯中
 谷鳥吟晴日
 江猿嘯晚風
 平生不下淚
 於此泣無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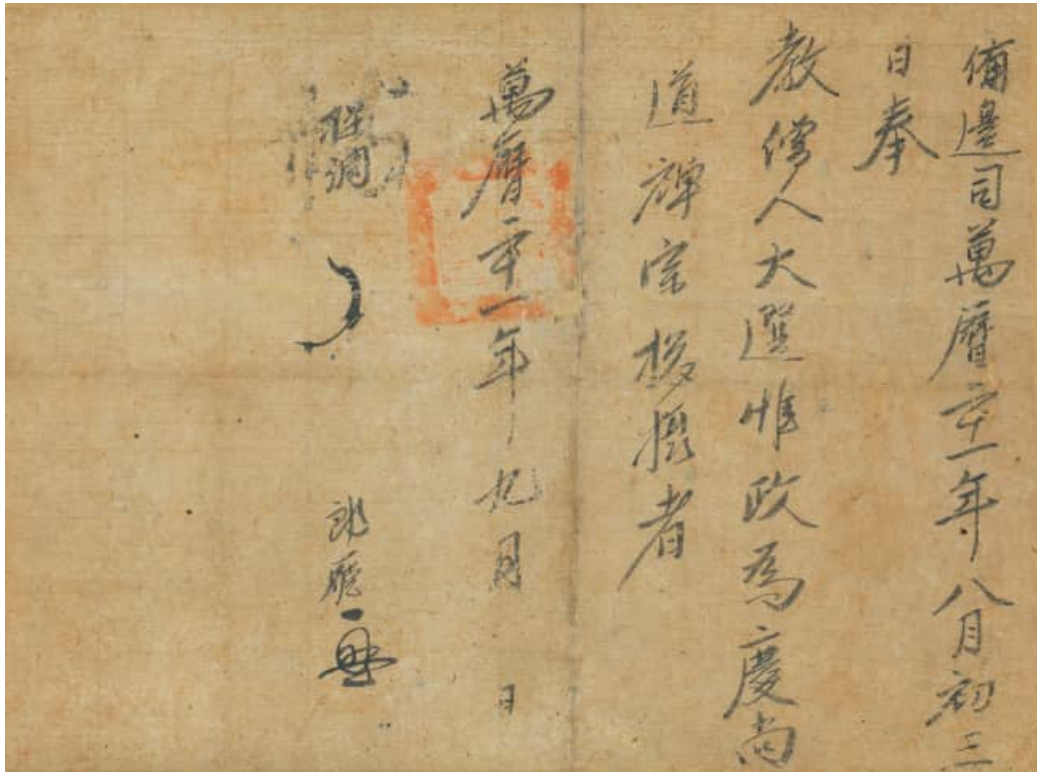
사명대사 친필 시문으로 정유재란 이후 피로인 송환을 위해 일본에 탐적사로 머물렀던 1605년 당시 누군가에게 써준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인 송운대사 곡조음(朝鮮人 松雲大師 谷鳥吟)'이라는 표제가 있는데 '곡조음청일'은 중국 당나라 이백(李白)이 쓴 '강하별송지제(江夏別宋之悌)'라는 시 구절 중 하나로 유배 가는 송 지제를 강하에서 만나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 시이다. 이 친필시문은 한 구절만 잘려서 전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사명대사는 26세(1569년) 무렵, 하곡 허봉(荷谷 許筠)과 교류하며 중국 당나라 문장가 한유(韓愈)의 글을 외우는 내기를 하기도 하고, 소재 노수신(蘇齋 盧守愼)으로부터 많은 책을 빌려 읽고 중국 당나라를 대표하는 시인 이백·두보의 시를 섭렵한 것으로 전하는데 이 초서 유묵은 한 호흡으로 단숨에 써 내려간 일필서로 숙련된 아름다움이 일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명대사를 경상도 총섭으로 임명하는 왕명이 담긴 문서

사명당 유정 교첩

四溟堂 惟政 教牒

조선, 1593년
종이에 먹
37.5 × 50.3cm
표충사호국박물관
경상남도문화유산자료



사명대사는 1593년(선조 26) 1월 평양성을 탈환하는 데에 수훈을 세웠고 6월 권율이 영남으로 남하할 때 같이 남하하여 함안과 의령에서 전투와 수비 양면에 공을 세웠다. 선조는 3월에 여러 차례 전공을 세운 유정에게 선교종 판사(禪敎宗判事)를 제수하고 4월에는 당상관직을 줄 것을 명하였다. 9월 8일에 선조는 '유정(惟政)의 승군(僧軍)은 비할 수 없이 용감한데 이제 또 왜적을 죽여 수급을 베고 배를 빼앗았으니, 즉시 공로에 따라서 중한 상을 주라.'고 명하였다.

1593년 8월 3일에 비변사가 왕명을 받아 9월에 대선(大選: 승과에 합격한 스님이 처음 받는 법계)인 사명대사를 경상도 총섭에 임명한다는 내용으로 발급했다.

| | |
|----------------------------|----------------|
| 비변사 만력 21년(1593) 8월 초 3일 봉 | 備司萬曆二十一年八月初三日奉 |
| 교승인대선유정경상 | 敎僧人大選惟政為慶尙 |
| 도선종총섭자 | 道禪宗總攝者 |
| 만력 21년(1593) 9월 일 | 萬曆二十一年九月日 |
| 제조(수결) 낭청(수결) | 提調(手決) 郎廳(手決) |

임진왜란이 끝나고 사명대사가 지은 헌시

경차영연석상운

敬次榮宴席上韻

조선
종이에 먹
26.0 × 28.0cm
개인소장



〈칠언시〉는 왜란(1592-1598) 후 선조가 베푼 잔치에서 사명대사가 지은 헌시(獻詩)로 경차영연석상운(敬次榮宴席上韻)을 차운한 것으로 보인다. 제목의 ‘영연(榮宴)’이란 표현, 제 6구(頸聯) 마지막 글자인 ‘은(恩)’자를 한 글자 띄어 놓은 것으로 확인 되는 것과 전체적인 시의 내용으로 보아 왕이 내리는 은영연(恩榮宴)이 베풀어졌고, 이때 사은의 시로 사명대사가 쓴 작품으로 추정되며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행서로 쓰여졌다. 전반적인 장법이나 구도가 하나의 작품 같이 느껴지며 조화롭고 높은 예술성을 지닌다고 평가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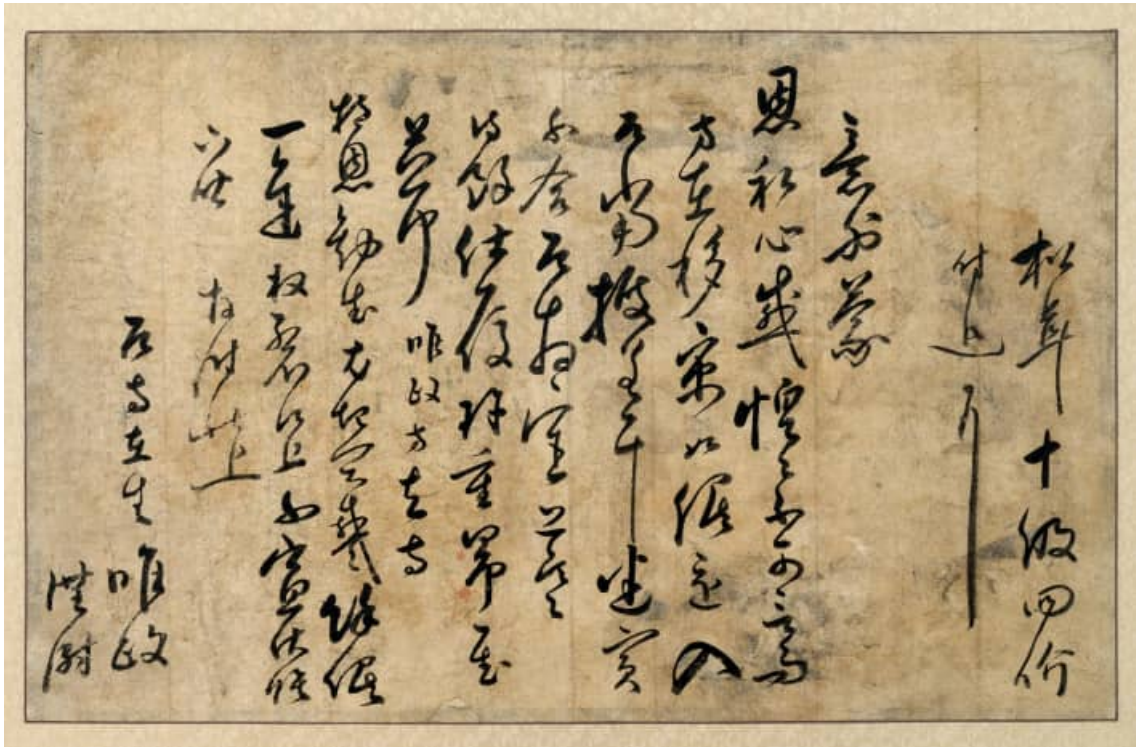
경사스런 봄날 적덕문 바라보니
 단구 (신선 사는 곳) 용이 읍남촌에 나네.
 홀연히 세월가니 상투 어리고,
 놀라운 병기가 조선의 어려움을 극복하네.
 영광스런 연회에 여럿이 감격할세,
 붉은 누각(궁전)에 꽃 떨어짐은 임금의 은혜일세.
 본래 충효는 하나 뿐으로
 힘써 기르고 공익을 위하고 돈독해야 한다.
 임 유정 삼가 씀

餘慶方看積德門
 丹丘龍躍邑南村
 螢忽去歲顯頭髻
 利器今朝遇錯根
 宴席光生感數郡
 紫樓花降沐洪恩
 從來忠孝本無二
 爲勉吾公益厚敦
 任惟政謹稿

사명대사유묵

泗溟大師遺墨

조선
종이에 먹
44.0 × 24.0cm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사명대사의 친필로 전해지는 간찰로 누군가의 편지글에 답장하는 내용이다. 초서로 쓰여져 있으며 사명대사의 재세 당시 일반 선비들의 간찰과 통하는 내용과 서풍을 가지고 있다. 자연스러운 운필과 대소 장단의 필획을 마음 가는 대로 구사하여 뜻을 전하고 있는 글이다.

뜻밖에 천은을 입어 제 마음에 황감함이 이미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방금 우거를 옮겼는데 서울로 되돌아 올라오라고 할 것 같으면 곧 당장에 군색한 이 몸에게는 맞지 않음을 피정할 것입니다. 지금 편지를 받고 저 문 날에 부모님 모시는 여가에 사리가 진중하심을 살피게 되니 매우 위안이 됩니다. 이곳 유정은 지금 절에 와 있는데 특별한 은총으로 권하고 위안해 주시니 더욱 안타깝고 송구합니다. 다른 말씀은 한 번 찾아뵈을 때 까지 미루고 우선 이렇게 아뢰입니다. 이만 줄이오니 잘 헤아려 주십시오. 절하며 답장을 드립니다. 즉일 절에 있으면서 생 유정이 삼가 답장 올립니다.

송이 열급 꾸러미 네 개를 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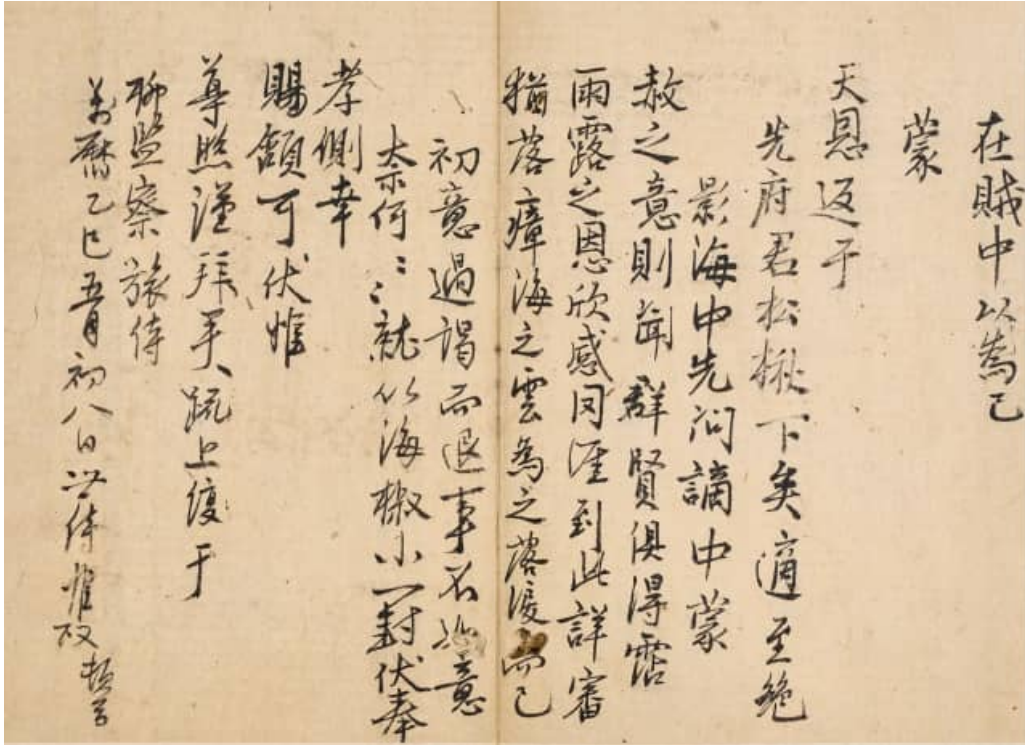
意外蒙恩 私心感 惶惶不可言 而方在移寓 如懷還入 即當披呈耳 迷賓不合 即拜審近寒 侍餘 仕履珍重 昂慰 只仰 政方在寺 特恩勸慰 尤起悶憾餘懷 一進收裂 以上 不宣 伏惟下照 拜謝狀上 即寺在生 惟政 謹謝

松茸十級 四价 付送耳

임진왜란 피로인을 송환하고 귀국직후 쓴 <간찰>

간찰
簡札

조선, 1605년
23.5 × 27.5cm
경남대학교박물관
해동명필



사명대사가 쓴 간찰로 1605년 5월 유감찰(柳監察)이라는 인물에게 보냈다. 인물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으나 대사가 1604년 9월부터 대마도에 3개월 체류한 후 1605년 3월까지 교토에 머물면서 탐적사의 임무를 수행하고 포로 송환을 위한 회담을 진행하던 시기에 쓴 글로 추정된다. 해서와 행서가 섞인 서풍을 보여주고 있다.

적중에 있으며 이미 임금의 은혜를 입어 선부군 산소 아래로 돌아가셨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절영도 앞 바다에 이르러 귀양 중에 사면의 은혜를 입으셨는지 먼저 물어보니, 여러 현인들이 모두 임금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기쁘고 감사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여기 이르러 여전히 장독이 많은 바닷가의 구름 속에 떨어져 계시는 것을 자세히 알고,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처음에는 들리서 뵈고 갈 생각이었는데, 일이 뜻과 같지 않으니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해초(海椒) 작은 봉지 하나를 효측(孝側)에 드리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헤아리시기 바라며 삼가 편지를 유감찰의 여시(旅侍)에 올립니다.

1605년 5월 8일 세시(世侍) 유정 올림

在賊中以爲己蒙天恩 返于先府君松楸下矣 適至絕影海中 先問謫中蒙赦之意 則群賢俱得霑雨露之恩 欣感罔涯 到此詳審 猶落瘴海之雲 爲之落淚而已 初意過謁而退 事不如意 奈何奈何 就以海椒小一封 伏奉孝側 幸賜額可 伏惟尊照 謹拜手疏上 復于柳監察旅侍

萬曆乙巳 五月初八日 世侍 惟政 頓首

사명대사가 일본으로 떠날 때 권율이 쓴 시

봉별사명대사왕일본

奉別四溟大師往日本

조선
나무

17.0 × 24.7cm
표충사호국박물관



권율이 일본으로 떠나는 사명대사를 위해 쓴 칠언절구의 송별시를 새긴 목판이다. 반듯하고 강인한 예서체로 쓰여진 시를 나무에 새겼다. 1594년 전쟁이 소강상태에 빠져들자 왜군은 울산, 거제도, 웅천 사이 여러 곳에 왜성을 쌓고 장기전에 대비하였다. 사명대사 또한 군량미 충당을 위해 승병을 동원해 땅을 갈고 보리를 심었다. 사명대사는 도원수 권율과 명군 도독 유정의 지시에 따라 울산 서생포에 주둔한 가토 기요마사의 진영에 들어가 4차례나 회담을 가졌다.

만리의 길에 험준한 바다 물결을 한 폭의 돛대로 행하니
하늘에 닿은 섬들은 마치 떠 있는 아지랑이와 같음이로다
이번 길에 왜적의 우두머리가 응당히 항복하라니
모름지기 관백을 가르쳐 다시 예경으로 합장함이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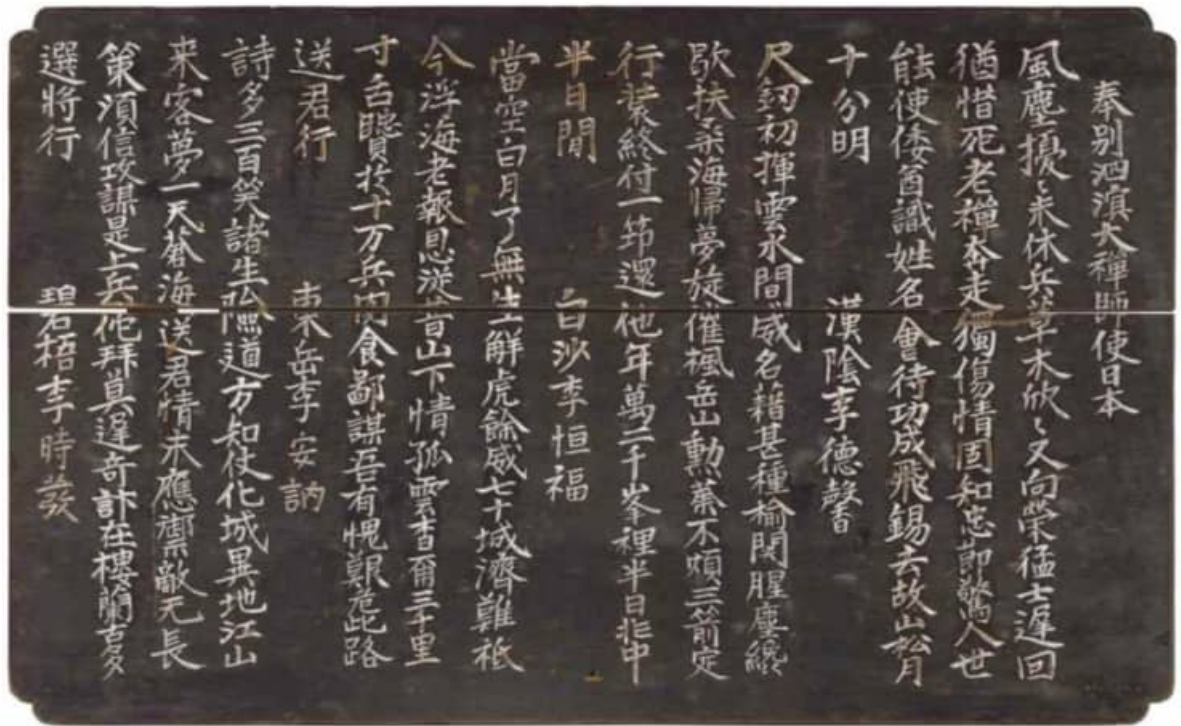
萬里鯨波一幅帆
接天島嶼似浮嵐
此去藩酋應拱北
須教關白更和南

사명대사가 일본으로 떠날 때 한음 이덕형 등 4인이 쓴 송별시

봉별사명대선사사일본

奉別四溟大禪師使日本

조선
나무
40.5 × 62.9cm
표충사호국박물관



일본으로 떠나는 사명대사를 위해서 한음 이덕형, 백사 이항복, 동악 이안눌, 벽오 이시발 등 4인이 쓴 송별시를 새긴 목판이다.

허공의 흰 달처럼 환히 무생 불법으로
 호랑이 싸움 말린 위엄이 70성을 투항시켰네
 국난 해결 위해 지금도 바다를 건너는 늙은 대사
 임금님 은혜 보답 위해 예전 산에서 내려온 마음이네
 외로운 구름은 아득히 삼천 리 밖에 있고
 세 치 혀는 백만의 군대보다 뛰어난네
 육식하고 식견 얇은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험난한 이 길을 떠나가는 그대를 송별하네

當空白月了無生
 鮮虎餘威七十城
 濟難祇今浮海老
 報恩縱昔下山情
 孤雲杳爾三千里
 寸舌賢於十萬兵
 肉食鄙謨吾有愧
 艱危此路送君行

사명대사가 일본 스님에게 써준 글

불심종조달마원각대사

佛心宗組達磨圓覺大師

조선, 1605년
종이에 먹
154.8 × 32.0cm
월정사성보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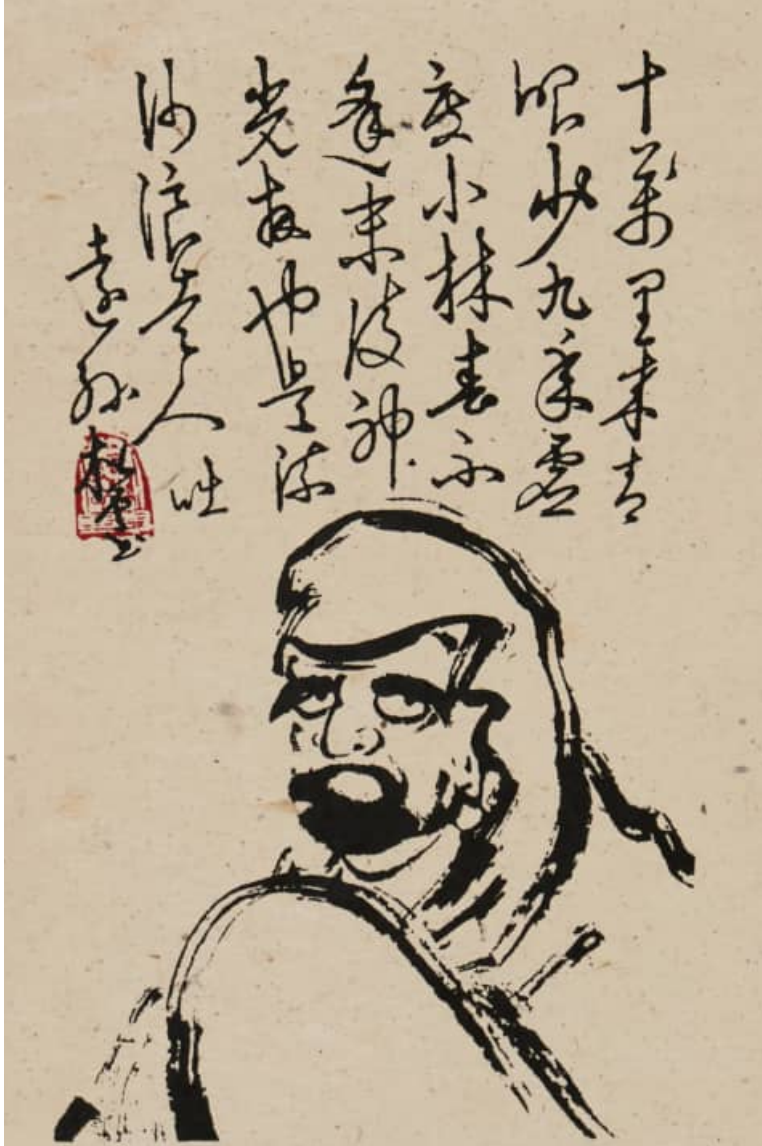




임진왜란 직후 사명대사가 일본과의 강화를 위해 사절로서 일본 교토에 머무르는 동안 일본 승려에게 써 준 유묵이다. 중앙에는 '불심종조달마원각대사(佛心宗祖達磨圓覺大師)'라고 하여 달마대사 존호가 행서(行書)풍의 해서로 기개있고 활달한 필치로 쓰였다. 오른쪽에는 유묵을 쓰게 된 이유를 밝혔다. '만력 을사년(1605) 봄에 중생을 널리 구제하고자 일본을 유람하던 중에 해서의 필사를 요구하기에 도타움에 거절하지 못하고 여기에 쓴다(萬曆乙巳春以普濟南遊日本以是求楷寫不得辭敦以書之)' 왼쪽에는 날카로우면서도 힘이 있는 글씨로 '경산 37대손 사명사문 송운이 쓰다(徑山三十七代孫泗溟沙門松雲云)'라 썼다. '달마의 37대손으로 경산(徑山, 대혜종고)를 거쳐 자신까지 37로 이어졌다는 선종 법맥을 계승한 사명대사의 의식을 짐작할 수 있다. 세속의 명필과 분위기가 다른 선필(禪筆)이다.

사명대사가 찬을 쓴 달마선사 진영

영인본
1605년
종이에 먹
92.5 × 45.7cm
개인소장



십만 리 멀리 왔으나 청안(靑眼)이 없어서
9년 동안 소림(少林)에서 봄을 허송했나니
뒤늦게 신광(神光)의 절을 받지 못했더라면
아마 유사에서 헛걸음한 사람이 되었을 수도

十萬理來靑眼少
九年虛度少林春
不逢末後神光拜
也是流沙浪走人

사명대사는 임진왜란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와의 강화를 위해 일본으로 가서 1604년 12월 교토(京都)에 도착해 이듬해까지 일본에 머물렀다. 사명대사는 고승으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가르침을 청하였다. 이 그림도 일본 승려가 대사를 찾아와 가져온 달마상에 찬을 청하여 써 준 글로 전해진다. 찬시가 달마도와 비슷한 공간을 차지하지만 풍격이 질박하고 자형이 단정해 그림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보인다.

사명대사가 대혜선사의 글씨를 보고 쓴 글

영인본
1605년
종이에 먹
120.0 × 54.0cm
표충사호국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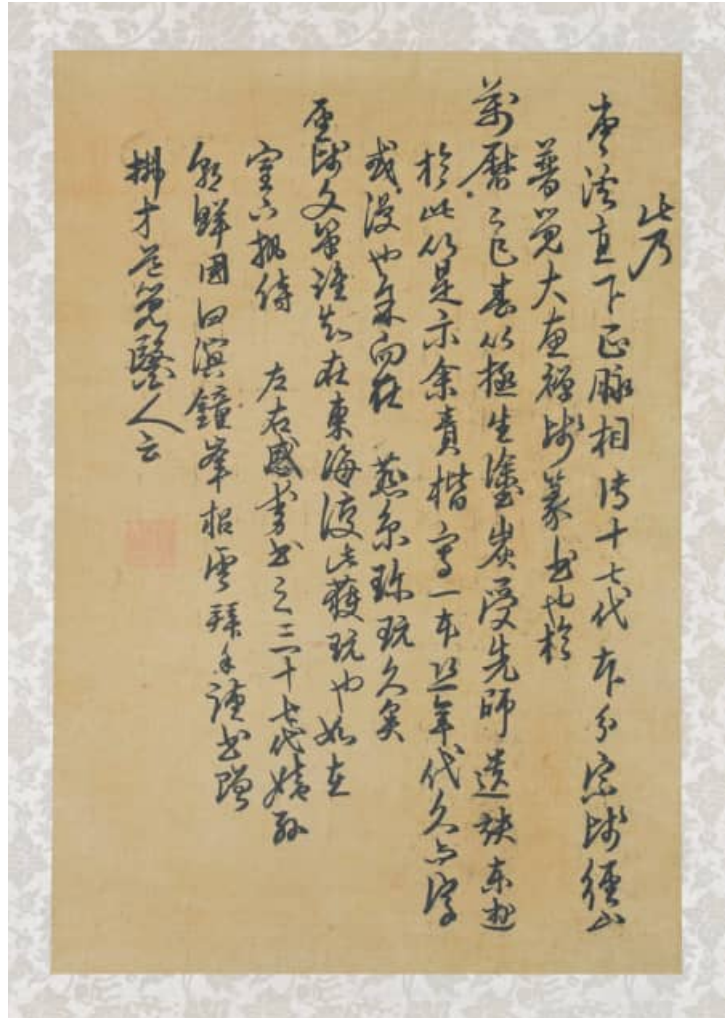
이는 조계에서 바로 내려온 정맥을 이어받은 17대 본분종사 경산보각 대혜선사가 쓴 전서 글씨이다. 1605년(선조 38) 봄에 중생을 도탄에서 구하라는 스승님(서산대사)이 남기신 뜻을 받고 동쪽(일본)의 이곳(교토)에 오게 되었다. 이 글씨를 나에게 보여주며 해서로 한 벌을 써 달라 하였는데, 연대가 오래되어 글자가 더러 없어진 것도 있었다.

내가 듣기로 전에 연경에서도 보배로 여긴 지 오래되었다고 하는데, 성사께서 쓰신 글씨를 동쪽 바다(일본)에서 다시 얻어 감상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마치 그분이 계신 방 아래 곁에서 모시고 있는 듯 감동하여 이 글을 쓴다.

37대 직계 후손인 조선국 사명 종봉 송운이 절하고 삼가 이 글을 써서 불제도 각의인에게 드린다.

송운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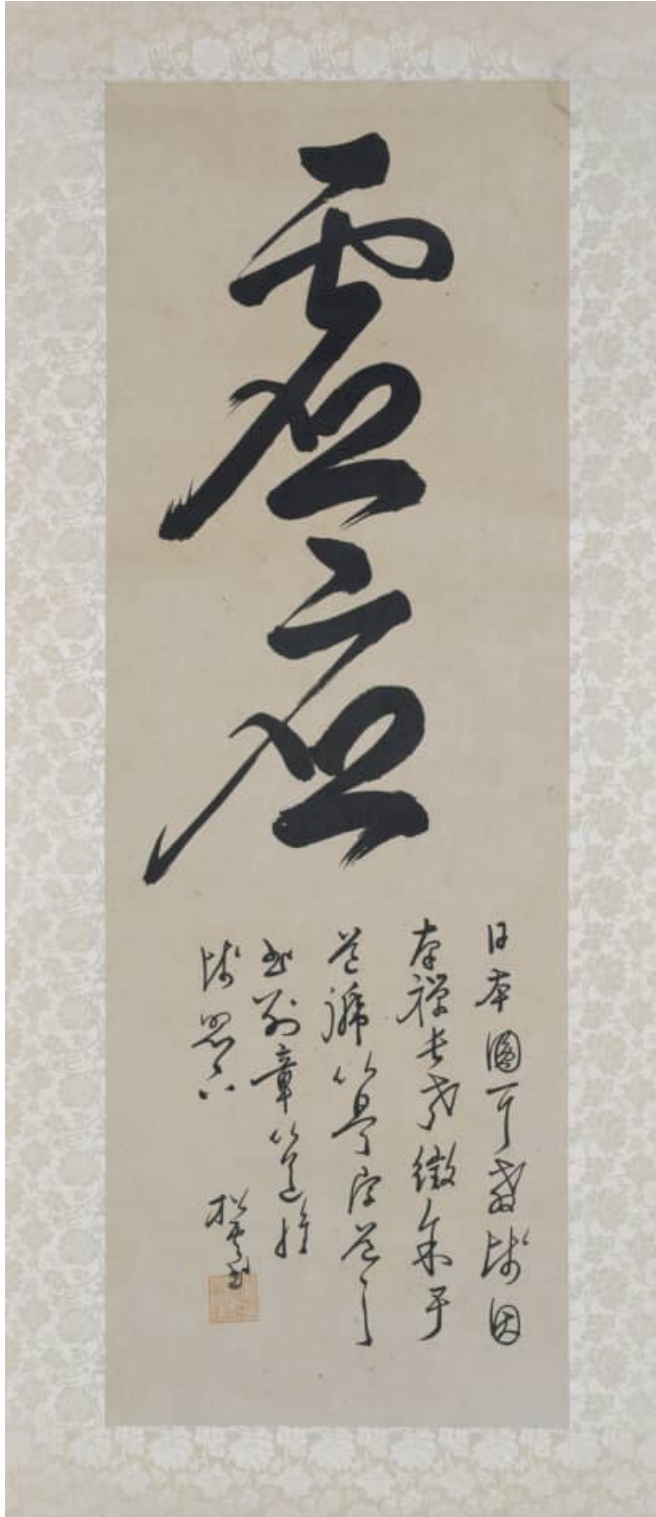
此乃曹溪直下正脉 相傳十七代本分宗師
徑山普覺大惠禪師篆書也 於萬曆乙巳春
以拯生塗炭 受先師遺訣 東遊於此 以是示
余 責楷寫一本 恐年代久而字或沒也 余向
在燕京 珍玩久矣 聖師文筆 誰知在東海
復此獲玩也 如在室下 執侍左右 感動書之
三十七代嫡孫 朝鮮國 四溟鐘峯松雲 拜手
謹書 贈拂才道覺醫人云
松雲道人



사명대사가 교토 고쇼지에 소장된 중국 남송의 선종 승려 대혜 종고(大慧宗杲, 1089~1163)의 전서(篆書) 글씨를 보고 감상을 적은 글이다. 사명대사는 이 글에 서산대사가 남긴 '중생을 구제하라.'는 말씀에 따라 일본에 왔음을 강조하며, 사행(使行)의 목적이 포로 송환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사행을 떠나기 전 입적(入寂)한 스승에 대한 추도의 마음을 드러냈다. 임제종의 법맥이 중국 선종의 6조 혜능(惠能, 638~713)으로부터 대혜를 거쳐 사명대사로 이어진다는 조선 불교계의 법통 인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단정하고 깔끔한 초서로 글의 내용과 상황에 알맞은 서풍을 구사한다고 평가된다.

사명대사가 승려 엔니에게 지어준 도호

영인본
1605년
종이에 먹
171.0 × 44.5cm
표충사호국박물관



허응

일본 엔니(圓耳) 교사(教師)가 남선(南禪)의 장로를 통해 나에게 요청하였기에 나는 도호(道號)를 이 글자로 짓고, 따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스님은 살피주시기 바랍니다. 송운(松雲)이 쓰다.

虛應

日本 圓耳教師 因南禪長老
徵余于道號 以是字道之
書別章以送 惟師照下
松雲 書

사명대사는 고쇼지를 창건한 승려 엔니료젠에게 '허응(虛應)'이라는 도호(道號)를 지어주고 두 글자를 크게 써 주었다. 엔니를 사명대사에게 소개한 남젠지(南禪寺) 장로 센소 겐소(仙巢玄蘇, 1537~1611)는 조선과 일본의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쓰시마 번(對馬蕃)의 외교승이기도 했다. 엔니와 겐소는 같은 임제종 승려였기 때문에 엔니는 겐소의 소개로 자연스럽게 사명대사와 교류할 수 있었다. 초서 대자는 부드럽고도 우아하게 보이며 두 글자의 비침이 획의 굵기에 변화가 크고, 유연함 속에 강직함이 내재되어 있다. 아래의 세필 초서도 본문 대자와 어울리게 쓰여져 있다.

日本國可了致謝因
存福考或徵年未予
首源以爲了信是了
出到章以爲了
此
此
此



사명대사가 「벽란도」의 시운을 빌려 지은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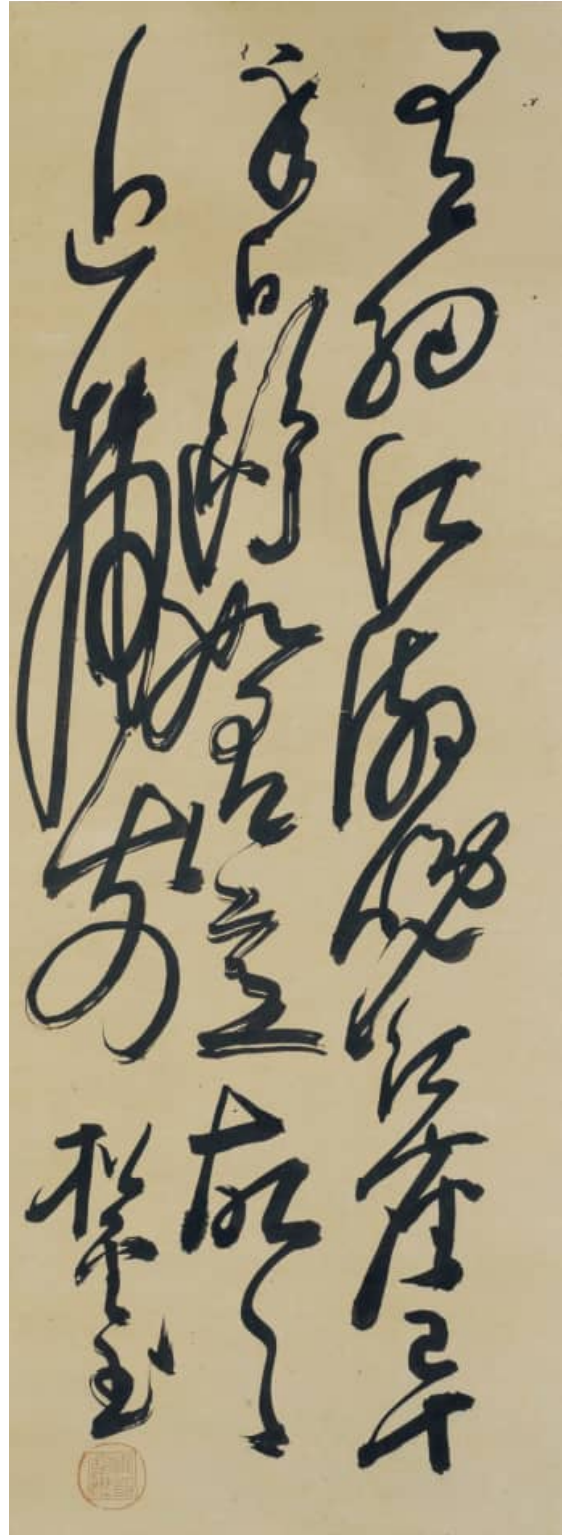
영인본
1605년
종이에 먹
175.0 × 46.5cm
표충사호국박물관

강호에서 만나기로 약속한지 오래되지만
어지러운 세상에서 지낸 것이 벌써 10년이네
갈매기는 그 뜻을 잊지 않은 듯
기웃기웃 누각 앞으로 다가오는구나

송운이 쓰다

有約江湖晚
紅塵已十年
白鷗如有意
故故近樓前
松雲 書

임진왜란부터 10여 년간을 돌아본 사명대사의 감회를 표현한 시로 고려말 문신 유숙(柳淑, 1324~1368)의 시 「벽란도(碧瀾渡)」를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시 속에 등장하는 ‘갈매기’는 옛사람들의 글에서 ‘마음을 알아주는 벗’ 혹은 ‘은둔’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로서 사명대사는 마음 속의 회포를 거침없이 쏟아내며 일본에서의 임무만 잘 마무리한 뒤에 속세의 일을 정리하고 선승(禪僧)의 본분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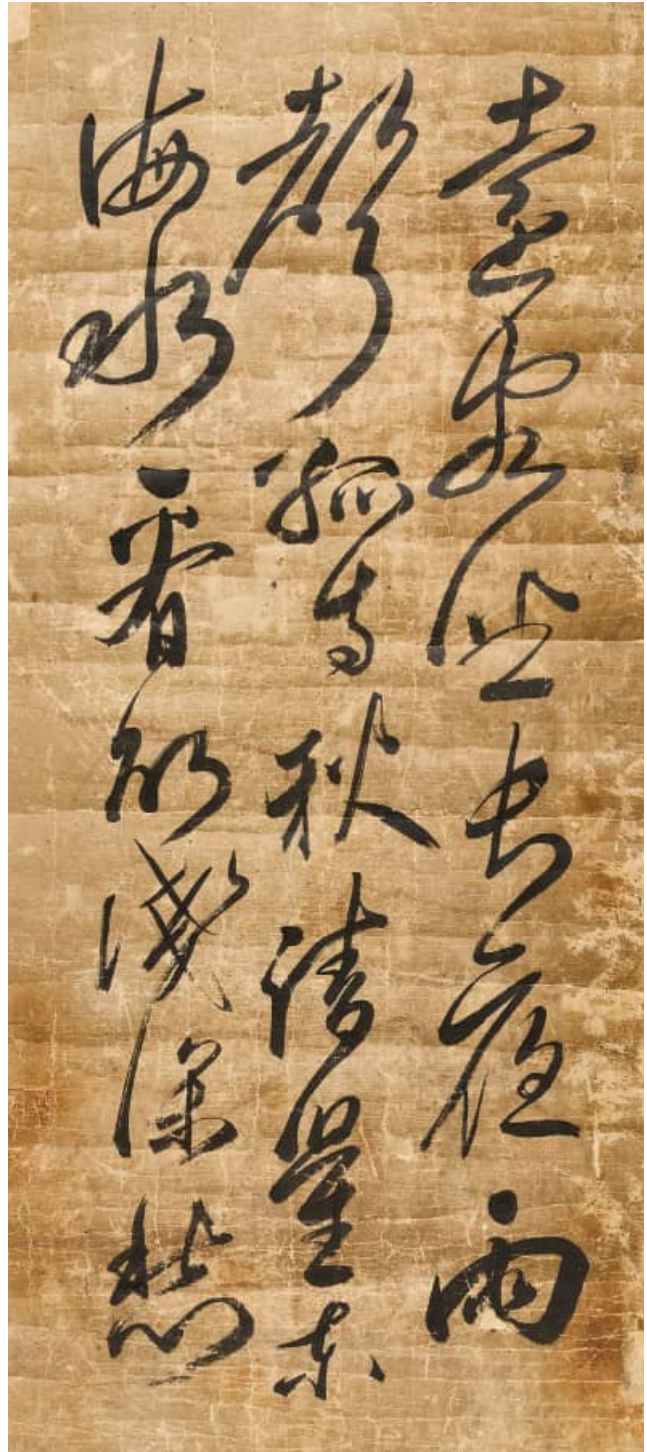
사명대사가 「우야정장관」 시운을 빌려 지은 시

1605년
종이에 먹
96.4 × 43.0cm
개인소장

멀리서 온 나그네 긴 밤 앉아 세우네
외로운 절에서 빗소리 듣는 가을 밤
동해바다 물과 깊이를 재어볼까나
이 내 수심과 어느 것이 얇고 깊은지를

遠客坐長夜
雨聲孤寺秋
請量東海水
看取淺深愁

사명대사 초서 유묵으로 중국 당대 이군옥의 ‘우야정장관(雨夜呈長官)’ 차용한 시이다. 당송시대의 시에 조예가 깊은 대사가 써서 지인에게 준 글로 추정되며 호방하고 막힘없는 필세로 쓰여져 있다. 광초(狂草) 기백을 통해 의병을 인솔했던 승병장 사명대사의 힘찬 의기가 느껴지며 중국 진, 당, 송, 원대 명필들의 글씨를 학습한 초서기운이 완연하게 드러난다.



매화나무 아래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다

매화수하

梅花樹下



사명대사가 임진왜란이 끝나고 선조의 명을 받아, 포로 송환을 위해 1604년부터 약 8개월 간 일본에 머무를 때 쓴 글로 송나라 대익(戴益)의 탐춘(探春)이라는 오도송에서 인용한 글이다. 매화나무 아래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는다. 곧 '진리를 찾아 멀리 헤매이다 가까이서 찾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글이며 '유정 송운(惟政 松雲)'이라는 사명대사의 법명과 호명 아래에 낙관이 찍혀있고 매화 두 글자는 행서, 수하와 관지(款識)의 글씨는 초서풍으로 반듯 하면서 힘찬 글씨로 쓰여졌다. 인위적인 꾸밈이 없이 예스러운 이 작품은 사명대사의 높은 선(禪)의 경지를 담고 있다고 평가된다.

매화나무 아래
경산 후손 송운이 쓰다

梅花樹下
徑山孫 松雲書

영인본
1605년
종이에 먹
36.0 × 94.0cm
개인소장



봄을 탐내어 대익(송)

종일 봄을 찾았지만 봄은 보지 못하고
짚신 신고 몇 번이나 언덕 위 구름까지 찾았네
돌아오는 길에 마침 매화나무 아래 지나려니
봄은 이미 가지 끝에 가득하네

探春 戴益(宋)

盡日尋春不見春
芒鞋遍踏隴頭雲
歸來適過梅花下
春在枝頭已十分

임진왜란 당시 사명대사의 활동 기록

송운대사분충서난록

松雲大師奮忠紓難錄

조선, 1739년
종이에 인쇄
30.4 × 20.3cm
월정사성보박물관



《송운대사분충서난록》은 임진왜란 기간 사명대사의 전란 관련 기록을 모아 간행한 책이다. 왜장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와의 수차례에 걸친 외교 회담을 일기체 형식으로 기록한 내용과 이와 관련된 보고 및 상소문들이 중심을 이룬다. 《사명당대사집》에 수록되지 않고 따로 전해져 오다가, 100여 년이 지난 1739년에 밀양 표충사에서 간행되었다. 판목은 밀양 표충사에 소장되어 있다.

《송운대사분충서난록(松雲大師奮忠紓難錄)》,
「유몽인이 지은 《어유야담》에 기록된 사명대사의 기록」



主橋智正而歸及 朝建重修 廟閣政鳩一國僧
軍以助後余嘗見政於香山善賢寺剝髮存齋糲
長至帶而白時為嘉善丈夫死於雉岳山年未七十
有文集

柳夢寅號於子能文章 宣朝朝登第
以正德○按松雲甲午疏有曰壬辰變初臣在
皆骨山拜入賊中與賊問答云云此記中所錄
榆店寺一事蓋其時實蹟而恨未詳悉○又
按僧海眼所撰松雲行蹟丁未秋乞骸還雉岳
山戊申間 宣廟諱音奔入京師拜哭因得病

八伽伽山調治庚戌示寂此記云死於雉岳山
者誤矣松雲生於嘉靖甲辰卒於萬曆庚戌年
年六十七

洪萬宗所著旬五志中記松雲事蹟
僧惟政號松雲壬辰之亂倡義擊倭虜獲甚多
上特拜僧大將名滿兩國亂定後還家康為日本關
白請信使于我 朝人皆憤惋而 朝廷恐生邊釁
遂准政于日本以試賊情倭素重其名欲試其節
之使降政曰吾奉命於吾 王通使于鄰國爾等不
宜侵凌吾膝不可為女屈倭又大熾炭火烈若紅爐

例無缺考諸國史驗以倭語間用己意而評述焉
蓋取他籍而增附焉或句而編成手書其尾曰佛氏
之教以空慧治一心以慈悲濟萬物其書與六經異
其行與五倫異其俗與百姓異生如由雲沒而野火
儒家輒力排之不休然試使學佛之徒讀是錄而慕
松雲之風觀其隻手勤 王出萬死不知七尺之軀
視刀山劍樹如平地即非禪空乎觀其至誠報 主
誓天復憐憂 宗社恤生靈力贊中興之策即非真
慧乎觀其一帆滄海歷孤嶺王脫數千俘氓於鯨
之口即非大慈悲乎其斯為無上菩提般若宗法而

雷霆可犯金石可貫鐵錘金尤莫敢與爭強者當是
物也由是而升天堂反是而墮地獄種瓜得瓜鼓鑪
聞鐘一念因果為佛為衆仰其法與五倫異其心
與百姓異此 朝家命之求忠祠意也又相同名
是歸意也鵬乎汝歸告雙林諸法侶越劍而傳之為
我謝曰 今王德澤壺山野爾欲為松雲是錄在
十四年戊午仲夏青泉申維翰跋

징비록

懲毖錄

조선, 1647년
종이에 인쇄
31.5 × 21.2cm
월정사성보박물관



징비록은 조선중기 문신,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이 임진왜란 당시 상황을 기록된 책으로 ‘징비(懲毖)’란 ‘미리 징계하여 후환을 경계한다.’는 뜻이다. 임진왜란 이전의 일본과의 관계, 명나라의 구원병 파견 및 제해권의 장악에 대한 전황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징비록》에 실린 의병이 일어나서 왜적을 무찌른 내용

…승려로 유정(惟政)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금강산(金剛山) 표훈사(表訓寺)에 있었다. … 왜적들이 이 산속으로 들어오자 절에 있던 중들은 다 도망하였으나 유정(惟政)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으니, 왜적들은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합장을 하고 공경하는 뜻을 표하면서 가버렸다. 내[유성룡]가 안주(安州)에 있으면서 공문을 사방으로 보내 각각 의병을 일으켜 국난을 구하러 나오라고 하였는데, 그 공문이 금강산 안에까지 이르자, 유정(惟政)은 그 공문을 불탁(佛卓) 위에 펴놓고 여러 중들을 불러 놓고 이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는 드디어 승군(僧軍)을 일으켜 거느리고 서쪽으로 달려와서 국난을 구하러 힘썼는데, 그가 평양(平壤)에 올 무렵에는 그 무리가 천여 명이나 되었다. 유정은 평양의 동쪽에 주둔하고 순안(順安)에 있던 관군(軍)과 함께 굳건한 형세를 만들었다.

之子頗有才略累與賊戰賊憚之固守鼎津使賊不得入安寧界人以高拜祐之功汚故武將世文之子禦賊于居昌牛脊峴累卻賊事聞推為右兵使病卒於軍中宗介起兵未久遇賊而死 朝廷嘉其志贈禮曹參議士珍前後射殺賊甚多賊稱為張將軍不敢入軍威界一日賊設伏誘之士珍寤追陷伏中猶大呼力戰夫盡賊擊斷士珍一臂士珍獨以一臂奮戰未已遂死事聞 贈水軍節度使其往忠清道者僧人靈奎前提督官趙靈前清州牧使金弘敏庶孽李山謙士人朴春茂忠州人趙德恭內禁衛趙

雄清州人李逢靈奎勇力甚關其憲復清州後為賊所敗皆死雄尤勇敢能馬上立馳殺賊頗多戰死其在京畿者前司諫禹性傳前正鄭叔夏水原人崔屹高陽人進士李魯奉山輝前牧使南彥經幼學人金稼前正郎俞大進忠義衛李軼庶孽洪李勇士人王五李勇最驍勇其餘各聚鄉里或百餘人或數十餘人以義為名者不可勝數而無可紀之績皆遷徙日關而已又有僧人准政在金剛山表訓寺賊八山中寺僧皆走惟故不動賊不敢逼或合掌致敬而去余在安州移文四方使各起兵赴難文至山中惟故展佛

早上呼諸僧讀之流涕遂起僧軍西赴勤 王叱至平壤眾千餘人屯平壤城東與順安軍作為形勢又有宗室湖城監率百餘人赴 行在朝廷歷秩為湖城都正使屯順安與大軍合勢其在北道者評事鄭文字訓戎僉使高敬民功最多云以李鎰為巡邊使 召李董選 行在鎰初守江灘平壤既陷渡江而南入黃海道從安岳至海州又自海州至江原道伊川從 世子募得兵數百聞賊入平壤久不出而 天兵將至遂還平壤結陣于林原坪在平壤東北十餘里與義兵將高忠倫等運勢頗

有斬獲而李董往順安每進兵輒北撫軍司從官皆欲以鎰代董元帥金命元獨主李董與撫軍司論議不協頗有相激之端 朝廷使余往順安軍中使之鎮定調解既而朝議皆言鎰勝董又聞 天兵將出恐董不勝任遂以鎰代之朴名賢代領鎰軍而董還 行在 獲賊謀金順良余自安州遣軍官成男持傳令密約進取于水軍將金億秋時十二月初二日也賊曰六日內回繳過期不繳追成男詰之成男云已使江西軍人金順良還納又捕順良來問傳令安在其人

사명대사 일대기를 주제로 한 역사소설

사명대사 상, 하
四溟大師 上, 下

1957년
19.0 × 13.0cm
월정사성보박물관



1957년에 간행된 사명대사를 주제로 한 소설로 상·하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적기나 설화를 바탕으로 한 신앙 체험담과 함께 대승불교의 근본 사상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상권에는 사명대사의 진영과 대사가 일본 강화사로 다녀올 당시 사절단을 잘 호송하라는 내용의 문서가 실려 있어 눈길을 끈다. 책의 저자는 이종익(李鍾益, 1912~1991)은 근현대기에 보조 지눌(普照知訥)과 원효(元曉)를 연구하고 보조 종조론(普照宗祖論)을 주장한 불교학자이다.

사명대사 일대기를 주제로 한 창극 음반

사명대사

四溟大師

1971년
30.7 × 30.7cm
월정사성보박물관



이용배(李龍培)와 한농선(韓弄仙)의 창(唱)으로 '사명대사(四溟大師) 1~4'를 녹음하여 유니버설레코드사에서 1971년에 제작 및 발매한 음반이다. LP음반 2장과 재킷으로 이루어졌으며, 재킷의 앞면에는 사명대사가 그려진 그림이 있고, 뒷면에 사명대사 관련 유물과 유적지 사진이 실려있다. 안쪽면에 음반의 추천글, 제작 취지와 의의, 사명대사의 생애에 관한 글이 수록되었다.

네 조각으로 깨뜨려졌던 사명대사 석장비

합천 해인사 홍제암 사명대사 석장비

陝川 海印寺 弘濟庵 四溟大師 石藏碑

조선, 1612년
각섬석

비신 높이 184.0cm, 너비 106.4cm, 두께 16.2cm
보물



합천 해인사 사명대사 석장비

해인사 홍제암에 있는 사명대사의 석장비(石藏碑)는 사명대사의 일대기를 기록한 비석으로, 광해군 4년(1612)에 세웠으며 허균(許筠, 1569~1618)이 비문을 지었다. 일제 강점기인 1943년에, 비문의 내용이 민족혼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하여 일본인 합천 경찰서장이 네 조각으로 깨뜨린 것을 1958년에 다시 접합하여 세웠다. 이 석장비는 현존하는 사명대사비 가운데 가장 먼저 건립되었으며, 문장이 매우 빼어나고 비문에 사명대사의 행적이 비교적 소상하게 적혀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다. 홍제암은 사명대사 입적 후 광해군이 내린 ‘자통홍제존자(慈通弘濟尊者)’라는 시호에서 따온 것이다.

국난이 있을 때마다 땀 흘리는 사명대사 표충비

밀양 표충비

密陽 表忠碑

조선, 1742년

화강암

비신 높이 271.0cm,

너비 96.4cm, 두께 56.6cm

경상남도 유형문화유산



사명대사 표충비는 종전 이후 일본에 건너가 포로로 끌려간 조선인들을 환국시킨 사명당(四溟堂) 송운대사(松雲大師) 유정(惟政)의 충절을 기리기 위한 비석으로 '사명대사비'라고 불리기도 한다. 국가에 큰 어려움이나 전쟁의 징조가 있을 때마다 땀방울이 맺힌다고 하여 '땀을 흘리는 비[한비(汗碑)]'로 알려져 있어 현대인들에게도 사명대사의 호국 정신이 전해짐을 알 수 있다.

松雲大律師銘

有明朝國憲傷義忠祠松雲大律師銘并序

粵我 昭發大日君實之二十五年日本城大舉兵入寇 皇上赫怒西極凶鋒肆滿 於中外食馬奇多有走避賊寇肆其蹂躪時松雲大夫行刺中樞而事 奉宜闕擢
 噴我誠見其備守重拉弗超茲感其法由是痛來大節偉者著類之慷慨而播德諸僧曰吾等信崇佛道 忠思也全國老宜以坐觀不救可乎乃事無至數百至赴順安時時
 師休靜方德諸道僧兵游以老拳伴自伏寇匿靜察後柝驚龍協同 天將破半陳誠隨都之將揮揮下榻南邊有影幢 上其數道際皆上使隨刺總兵從入堡營論老清也三清三
 區畫得要領正向前時有百手曰必有寶在也本起明是也也也但運 上召至也國應向事情仍 救曰昔初乘忠此厚老俱以山入蓋莊園家南老長數百里之常三分無
 取不可勝計以取和 止上不廢其志特給武庫食俸俾抄營餘賊已及劫其誠得術實完你勝即之印證積善之條不許丁商隱再運仔蘇到二督府其有營助陸陸是喜群同和
 中樞辛丑又謂釜山賊甲不奉 國憲注日本請傷初頑強極受拘束推謹運被奪男婦三千餘口 命加附焉有傳籍籍以與之至漢李至老已疑自嫌入伽伽山會虎或秋不
 露馬子思佩德萬時著思著是字素手法名之所首識與時人直嘉運許其林子嗣李直與並著等清道可親有回傾進行于世姓斯堅師之士蓋稅辦不固不也也唯是舉亂
 委運自備謹誠明旨授與教而不者其結而固也也愧頑乳志頑倫而馬衡國之誠誠敬謝船乘運天亦其學律不能自棄片言所以尊視又勿建立疎憤者不可以誤害後
 為之一括釋以而倫之 聖引引有英傑茶題書亦德如其抱目之不學明豈不第一時之朝去孟代之律易也我嶺南之望陽有長史祠以尊將而休勝以有家物勒碑之功重重
 以鐵賦著列終又殉名古師立祀 肅宗朝令官供祭需 書以又今給復所以樹風聲勸來遠也師存存第不其長第第之為今道保當在祠中余竊不喜為釋子作文有非
 請揮摩之碑銘事結終尋家第一創月所遂篤之銘其詞曰 人有五倫一則君臣 陸華堂其有國身 斯若正理名教做道 聖賢釋佛也西人 獨守守自自甘素論 報
 廿老乳宜宜宜 傳說此宜此切心真 存爾宜精有爭精神 雅殿爾委不秀細坤 皇朝子理學清氣厚 泉其運法師守一新 翰哈報報會德崇其 九都安怡全信推切
 西山漢岩開微 重宏 雁岩隱處靈靈鼎肆 適假候多時傳緝錄 筆方三返九輪控拘 漢寶海壯氣薄秋波 以古代銘運攝強鄰 七軍兵戎功歷可茂 聖積善修論彩
 漳： 曰昔判此義以麒麟 予能原志信我勇在 下里三軍孟令可申 跡釋釋音其刺漁四 臣老之能頑與慕仁 冠林道誦殊鳥相親 是日茶檣獨控其陣 如紅驛財
 耀燄燄物 恩獎獨與美第之誌 臺臺運內法運經緯 塔廟過空玄珠不珠 避川報祀永結千香 遺德存才共戴觀氣 給當賜瀛 龍考其煩 增此一著益錫成拘 非
 必前代集教是固 三師齋草共行宜實 酬勿對烈純源安眠 我述其奉朝之貞誠 看何蓋子時長宜備 毋泥喜時運師滿志
 崇禎法再至戊十月 日五

左匡補國崇禎大夫領中樞而事 奉宜闕擢 喜善大夫行和文館副學如製 勅金銀高書 大臣補國崇禎大夫行刺中樞而事 命招其妻

밀양 표충비



사명대사 약력

| | |
|--------------------|--|
| 1544년 10월 17일 | 경남 밀양군 무안면에서 출생 |
| 1561년 | 신목화상에게 출가 |
| 1561년 | 선과에 합격 |
| 1569년 | 하곡 허봉과 교우, 이백·두보의 시를 배워 문장이 일취월장 |
| 1573년 4월 | 직지사 주지로 있으면서 허응당 보우의 문집, 잡저의 간행 도움 |
| 1576년 가을 | 운수행각에 나서 평양 부벽루에 올랐다가 해인사로 감 최치원의 족적을 찾아 유력 |
| 1579년 | 《선사귀감(禪家龜鑑)》의 발문 지음, 충주 송선사 수축에 관여 |
| 1580년 | 영주 부석사 안양루의 중창기문 작성 |
| 1584년 | 운수행각 당시 지닌 소형 호신불의 원장 (1584.12.16. 사명 사문 원장) |
| 1586년 | 운수행각 끝에 이 해 봄 옥천산 상동암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던 어느날, 밤 소나기에 뜰에 핀 꽃이 떨어진 것을 보고 무상의 법을 깨달음 열흘동안 가부좌, 두 번째 대오 |
| 1587년 | 오대산 월정사 영감난야에 머물며 월정사 중수 결심 |
| 1589년 늦봄 | 월정사 법당 신축 정여립 역모사건으로 강릉부 투옥 후 풀려남 |
| 1590년 | 단오절 맞아 월정사 중수가 끝나고 낙성식, 향조대회 |
| 1592년 6월 상순 | 유점사(일설에는 표훈사)에서 일본군을 처음 만남. 일본군이 사찰 스님들을 결박하고 보물을 강요함 사명대사가 태연히 들어가 대장과 필답함. '이절에는 도승이 있으니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팻말을 걸고 물러남 건봉사에서 승병 150여 명을 모으고 있었는데 조정과 서산대사로부터 격문이 도착 8월에 출병하여 10월 8일 경에는 1천여 명으로 불어남 도체찰사 유성룡과 도총섭 서산대사 휘하에서, 의승도대장(義僧都代將)에 임명되어 승병 2천명을 거느리고 평양과 중화를 왕래하는 적을 무찌름 |
| 1593년 1월 6일 | 조·명 연합군이 평양성을 공격하여 9일 탈환 연합군은 총 5만 3천명으로서 약 1만 8천명의 일본군을 상대 조선군 1만명 가운데 승병이 5천명으로 지리에 밝고 산타기에 능하여 전과를 올림 |
| 1593년 3월 25일부터 3일간 | 조선 관·의병 공동으로 노원평 우환동 일대에서 전과를 올리고 |
| 3월 27일 | 수락산 승첩을 거두었다. 사명유정을 선교종판사(禪敎宗判事)에 제수 |
| 4월 11일 | 당상관직을 제수하라는 전교가 내려짐 |

- 1594년 4월 9일 명(明) 도독 유정(劉綎)이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를 부추겨 관백 도요토미히데요시(豊臣秀吉)와 불화를 조성하려는 계책에 따라 울산 서생포왜성으로 파견되어 왜장 가토 기요마사와 회담
처음 면담을 요청할 때 사명 유정은 송운(松雲)이라는 새 호를 씀과 동시에 중국에서 구법 한 대선사(大禪師) 임을 내세움
- 1594년 4월 13일~4월 16일 가토 기요마사와의 1차 회담
- 1594년 7월 12일~7월 16일 가토 기요마사와의 2차 회담
- 1594년 12월 23일 가토 기요마사와의 3차 회담
- 1597년 3월 18일 가토 기요마사와의 4차 회담
- 1603년 부산에 머물고 있다가 여름휴가를 얻어 금강산으로 들어감
유점사로 가서 서산대사를 만나 도총섭직을 받들어 올리며 일본에 가게 될 일을 논의
서산대사는 “청안의 눈빛으로 언제 다시 만나, 선을 이야기하며 불자를 휘두를까”하는 석별의 시를 지어줌
- 1604년 2월 21일 서산대사가 입적하였다는 부음을 듣고 묘향산으로 가던 중,
양평 오빈역에서 서울로 올라오라는 조정의 연락을 받고 방향을 바꿈
탐적사로 쓰시마섬에 파견됨
- 1604년 교토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를 본법사(本法寺)에서 회견
- 1605년 4월 일본에 연행된 피로인(被擄人) 3,000여 명을 데리고 귀국
- 1606년 서산대사의 상을 치름, 선조의 부름을 받고 상경하여 삼청동에 초가를 지어 기거하면서 궁궐 공사를 감독
- 1608년 선조가 승하하자 서울로 올라와 배곡하고 이로 인하여 병이 더 심해져서 합천 해인사로 내려감
- 1610년 8월 26일 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입적
임종할 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네가지 요소(지수화풍)로 된 이 몸은 장차 참(眞)으로 돌아가려한다. 어찌하여 시끄럽게 왕래하면서 이 허깨비 같은 몸을 수고롭게 하겠는가. 내 이제 입멸하여 큰 조화에 순응하려 한다.” 하고 적멸에 듦



부록

「유몽인이 지은 《어유야담》에 기록된 송운의 사적」

「柳夢寅所著《於于野譚》中記松雲事」

유정은 우리나라의 호걸스러운 승려이다. 자호(自號)는 송운으로, 휴정의 제자이다. 일찍이 오대산 월정사에 있다가 만력 임진년(1592, 선조 25)에 금강산 유점사에 머물렀다. 이때 왜병이 대규모로 몰려오자 같이 거하던 승려들과 함께 깊은 골짜기로 피난하였는데, 어떤 승려가 가서 엿보니 왜적이 유점사에 들어가서 거승(居僧) 수십 인을 묶어 놓고 금은보화를 찾으며 내놓지 않으면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다. … 유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난병(亂兵) 속으로 들어가며 옆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니 … 왜적들이 혹은 앉고 혹은 누워서 칼과 창을 서로 휘둘렀는데, … 곧장 법당으로 올라가니 여러 왜장(倭將)이 모두 의자를 나란히 하고 앉아 있었다. …

“당신의 나라에서도 칠조(七祖)를 높이는가?” 유정이 답하였다. “육조(六祖)가 있지, 칠조가 어디에 있는가?”

그가 말하였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에 유정이 곧바로 육조를 차례로 써서 보여 주니, 왜장이 대단히 경이롭게 여겼다. 그리고는 말하였다. “이 절에 금은보화가 있을 터이니, 네가 모두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죽일 것이다.” 유정이 말하였다. “우리나라는 금은을 보배로 삼지 않고, 단지 쌀과 베를 쓸 뿐이다. 금은 같은 보배는 온 나라를 통틀어도 흔치 않은데, 하물며 산속의 중들이겠는가. 그들은 단지 불공을 일삼고 채식과 초의(草衣)로 살아가며, 혹 곡기(穀氣)를 끊고 술값을 먹기도 하며, 혹 마을에서 걸식하면서 살 뿐이니, 어찌 금은 같은 보배를 모아 두었겠는가. 그리고 장군을 보건대, 불사(佛事)와 육조가 있음을 잘 알고 있는데, 불법은 완전히 자비와 불살생을 으뜸으로 삼는 바이다. 지금 보건대, 죄 없는 어리석은 중들을 행랑 아래에 묶어 놓고 진귀한 재물을 내놓으라고 다그치는데, 저들은 지팡이 하나로 1천 산을 돌아다니며 민간에서 밥을 얻어 아침저녁 끼니를 메우는 자들이니, 비록 몸을 쪼개고 뼈를 가루로 만든다 해도 한 치의 보화인들 어디서 나오겠는가. 바라건대 장군은 그들을 살려 주도록 하라.”

이에 여러 왜적들이 그 글을 돌려보고는 안색이 변하여 하졸(下卒)을 돌아보며 뭐라고 지시를 하니, 하졸이 법당에서 내려가 양쪽 행랑에 있던 20여 명의 승려를 모두 풀어 주었다. 유정이 다시 소매를 휘저으며 지팡이를 끌고 나오니, 왜장이 큰 글자로 큰 널빤지에 써서 절의 문간에 “이 절에는 도를 아는 고승이 있으니, 모든 군사들은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걸어 놓고는 즉시 군대를 거두어 떠나갔으며, 그 뒤로는 왜병이 다시 유점사에 들어가지 않았다.

조정이 유정을 승장(僧將)에 제수하여 8도의 승군을 통솔하게 하고, 왜적의 진영에 출입하며 유세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유정이 일찍이 적진에 들어가서 왜장 청정(加藤清正)을 만났는데, 청정이 말하였다. “당신의 나라는 무슨 보배가 가장 귀한가?” 유정이 말하였다. “우리나라는 보배로 삼는 것이 없다. 보배로 삼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장군의 머리이다.” 청정이 억지로 웃었으나 속으로는 실로 꺼림칙하게 여겼다. … 조정에서 묘궐(廟闕)을 증수할 때에 유정이 온 나라의 승군을 모아 역사(役事)를 도왔다.

蹟惟政者 東或豪僧也 自號松雲 休靜弟子也 嘗居五臺山月精寺 萬曆壬辰居金剛山楡店寺 倭兵大至 與同舍僧 避寇深谷間 有僧往規倭入楡店寺 縛居僧數十人 索金銀諸寶不出 將殺之 政聞之 欲往救之 僧皆挽之曰 吾師欲爲同舍僧 救其死 其慈悲莫大 然探虎口將虎鬚無益 只取禍耳 政不從入亂兵中 傍若無人 倭兵恠之 至沙門 諸倭或坐或臥 劒戟交鋸 政不拜揖 不顧呵 不留行 曳筇揮手而入 倭熟視而不之禁 歷山影樓 至法堂下 僧皆縛在兩廡下 見政而泣 政不之顧有倭在禪堂外 治文書如軍目者 政立觀 倭兵亦不禁呵 觀其文字不可曉 直上法堂 諸倭將皆列椅而坐 政垂手不爲禮 彷徨縱觀之如癡人 有一將以文字問曰 爾解字否 政曰粗解文字 又問之曰 爾國尊七祖乎 政曰有六祖焉有七祖 曰願聞之 即列書六祖視之 倭將大異之曰 此寺有金銀諸寶 爾可盡出之 不然當殺之 政曰我國不寶金銀 只用米布 金銀諸寶 舉一國所罕有 況山之僧 只事供佛菜 食草衣 或絕粒食松 或乞食民間以爲生 豈有蓄金銀之寶 且觀將軍 能知佛事有六祖佛法全以慈悲不殺爲上 今觀無罪愚僧 縛在廡下 責以珍貨 彼一筇千山寄食民間 以度朝夕者 雖剖身粉骨 豈有一寸寶 願將軍活之 諸倭傳示其書 動色顧下卒云云 下卒趨下堂 盡解兩廡二十餘僧 政又揮袖曳筇而出 倭將以大字書大板 掛沙門曰 此寺有知道高僧 諸兵勿更入 即罷兵而去 自此倭兵 更不入楡店寺 朝廷除政倭將 統管八道僧軍 出入倭陣 以遊說爲任 嘗入賊陣 見倭將清正 清正曰 爾國何寶最貴 政曰 我國無所寶 所寶惟將軍之首也 清正強笑 而中實憚之亂既乏 奉朝命 入日本國 家康以雪綿子二萬斤與之 辭不得 盡與對馬 島主橋智正而歸 及朝廷重修廟闕 政鳩一國僧軍以助役 …

자통홍제존자사명대사석장비명 유명조선국 자통홍제존자 사명 송운대사 석장비명 병서

불교가 동쪽으로 삼한(三韓)에 전해지고 나서 교(敎)와 율(律)을 아울러 주창하고 원(圓)과 점(漸)의 문이 나뉘는 가운데, 수천 년 동안 가사(加黎)를 입은 자들마다 제각기 석가모니의 보배를 손에 넣었다고 자랑하였다. 그러나 그중에서 오직 목우(牧牛, 普照知訥)와 강월(江月, 普濟懶翁)이 홀로 황매(黃梅, 弘忍)의 종지(宗旨)를 얻어 울연(蔚然)히 선문(禪門)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니, 검추(鉗錘)를 한번 휘두르매 만인(萬人)이 모조리 쓰러졌다. 그리하여 열반묘심(涅槃妙心)과 정법안장(正法眼藏)이 청구(靑丘)의 땅에 은밀히 전해지게 되었으니, 어찌 기이하다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보계(普濟)로부터 5대를 전하여 부용영관(芙蓉靈觀)에 이르는데, 그때 청허(淸虛) 노사(老師)가 입실제자(入室弟子)를 칭하였다. 그는 혜관(慧觀)과 묘오(妙悟)의 경지에서 전배(前輩)보다 뛰어난 점이 있었으니, 그야말로 근대의 임제(臨濟)요, 조동(曹洞)이라고 칭할 만하였다. 그 뒤에 그의 법을 이어받은 사람이 없지 않았으나, 치문(縑門)에서는 사명대사(四溟大師)를 성대히 추대하며 서산(西山)의 법통을 이를 만하다고 말을 하니, 어찌면 그 말이 맞는 듯도 싶다.

대사의 이름은 유정(惟政)이고, 자(字)는 이환(離幻)이며, 사명(四溟)은 자호(自號)이다. 그의 선비(先妣)가 분만(分娩)하던 날에, 백운(白雲)에 올라타고서 누런 두건을 두른 황금빛 사람을 데리고 만 길 높은 누대에 올라가니 신선 노인이 그 위에 걸터앉아 있었으므로 바로 땅에 이마를 대고 예배하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깨고 나서 대사를 낳았다.

대사는 태어나면서부터 총명하고 산처럼 우뚝하여 보통 아이와 같지 않았다. 조금 커서는 장난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는데, 다른 아이들과 함께 냇가에서 노닐 때면, 흑 모래를 다져서 탑을 만들고 돌을 세워서 불상을 만들기도 하였으며, 흑 꽃을 꺾고 밤을 주워다가 공양(供養)을 하기도 하였다.

어느 날 그물질하는 어떤 사람이 큰 자라를 잡아가는 것을 보고는 모아 놓은 밤으로 그 값을 치르고서 못 속에 놓아주었는데, 이에 다른 아이들이 감복하여 모아 놓은 밤을 모두 대사의 앞에 갖다 놓자, 대사가 매우 균등하게 나누어 주고 자기는 빈손으로 마을로 돌아가니, 노인들이 이것을 보고서 기이하게 여겼다.

7세에 대사의 조부(祖父)가 역사를 가르쳐 주었는데, 대사가 묻기를, “학자(學者)의 업(業)은 귀한 것입니까, 천한 것입니까? 만약 귀한 것이라면 학문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니, 조부가 이르기를, “세간(世間)의 일 중에서 학문보다 귀한 것은 없다. 고금(古今)의 성현(聖賢)들도 모두 학문을 통해서 성취하였으니, 어찌 감히 소홀히 해서야 되겠느냐.”라고 하였다.

이에 대사가 말하기를, “성현(聖賢)의 마음으로 업(業)을 한다면 귀하겠지만, 이를 어긴다면 천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배우는 것을 보면, 사람을 해치는 설은 많고 사람을 좋게 만드는 교훈은 적으니, 어찌 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조부가 이르기를, “사람을 좋게 만들고 사람을 해치는 것은 공허한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마음이 착하나니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니, 너의 말이 지당하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사는 힘껏 공부하며 게으름을 부리지 않았다.

13세에 유촌(柳村) 황여현(黃汝獻)에게서 「맹자」를 배웠다. 어느 날 저녁에 책을 덮고 탄식하기를, “세속의 학문은 비천하고 누추한데다 세상 인연에 얽매여 번거로우니, 어찌 무루(無漏)의 학문을 배우는 것만 하겠는가.”라고 하고는, 곧바로 황악산(黃嶽山) 직지사(直旨寺)의 신묵화상(信默和尚)에게 나아가 머리를 깎았다. 「전등록(傳燈錄)」을 처음 보았으나 다 익히기도 전에 이미 심오한 뜻을 깨달았으므로, 여러 노숙(老宿)들이 모두 그에게 와서 모르는 것을 물어보았다.

신유년(1561, 명종 16)에 선과(禪科)에 급제하였다. 화려한 명성이 점차 드러나매, 당시의 학사(學士) 대부(大夫)와 시인(詩人)으로서, 가령 박사암(朴思庵, 朴淳), 이아계(李鵜溪, 李山海), 고제봉(高霽峰, 高敬命), 최가운(崔駕運, 崔慶昌), 허미숙(許美淑), 임자순(林子順, 林悌), 이익지(李益之, 李達)와 같은 사람들이 모두 대사와 즐겁게 지내면서 시문을 주고받아 사림(詞林)에 전파되었는데, 사람들이 이를 미담으로 여겼다.

언젠가는 하곡(荷谷, 許筠)과 한문(韓文, 한퇴지의 시문) 중에서 가장 긴 글을 한 번 보고 외우기로 내기를 하였다. 그런데 대사가 착오없이 암송을 하자, 하곡이 바로 손으로 쓴 사본(寫本)을 대사에게 내주기도 하였다. 기고봉(奇高峯, 奇大升)이 말하기를, “이런 것을 믿고서 자족(自足)한다면 학문이 분명히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쓸데없는 일에 허비한다면 애석한 일이다.”라고 하니, 대사가 송구한 심정으로 가르침을 받들고서 부지런히 힘쓰며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소재(蘇齋, 盧守愼) 상공에게서 사자(四子)를 배우고, 또 이백(李白)과 두보(杜甫)의 시를 배웠는데, 이로 부터 문장이 날로 더욱 발전하였다. 그리고 내전(內典)의 그 많은 글들도 모두 섭렵(涉獵)하였으므로, 방포(方袍)를 걸치고 불전을 익히려는 자들이 산문(山門)에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을해년(1575, 선조 8)에 공문(空門, 불문)의 중망(衆望)에 의해 선종(禪宗)의 사찰을 주지(住持)하게 되었으나 이내 작별을 고하고는 석장(錫杖)을 떨치고 떠나서 묘향산으로 들어가 비로소 청허(淸虛)의 좌하(座下)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노사(老師)가 심지(心地)를 일깨우며 곧바로 성종(性宗)을 가르쳐주니, 대사가 당장에 크게 깨닫고는 즉시 쓸데없는 언어들을 쓸어버리고 노닥거리는 습관을 끊어버렸다. 그리하여 종전에 시문으로 유희(游戲)하던 것들을 기어(綺語)라고 참회하고는 한결같이 안심(安心)과 정성(定性)에 뜻을 두어 3년 동안 고행한 끝에 그 정법(正法)을 모두 증득하였다.

무인년(1578, 선조 11)에 노사에게 작별 인사를 올리고 풍악(楓嶽)으로 향하여 보덕사(報德寺)에서 세 철의 여름을 안거(安居)한 뒤에, 남쪽으로 팔공산(八公山) · 청량산(淸涼山) · 태백산(太伯山) 등 여러 산들을 유력(遊歷)하였다.

병술년(1586, 선조 19) 봄에 옥천(沃川) 산상(山上)의 동암(東菴)에 이르렀다. 어느 날 밤 소나기에 뜰에 피어 있던 꽃들이 모두 떨어지자, 대사가 홀연히 무상(無常)의 이치를 깨닫고서 문인(門人)을 불러 말하기를, “어제는 꽃이 피었는데, 오늘은 빈 가지만 남았다. 인간 세상이 변화하여 없어지는 것도 이와 같다. 뜬 인생이 하루살이와 같은데, 광음(光陰)을 헛되이 보낸다면 실로 가련한 일이다. 그대들은 각기 영성(靈性)을 갖추고 있는데, 어찌하여 반조(返照)하여 일대사를 끝마치려고 하지 않는가. 여래(如來)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인데, 어찌하여 꼭 밖으로 내달려 구하면서 세월을 허송한단 말인가.”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즉시 문도(門徒)를 해산하고 홀로 선실(禪室)에 들어가서 입을 다물고 가부좌(跏趺坐)를 틀고 앉아서 혹 열흘이 되어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 모습을 엿보면 오뚝하니 움직이지 않는 것이 흡사 진흙으로 빚은 조각 같았다.

기축년(1589, 선조 22)에 오대산(五臺山) 영감난야(靈鑑蘭若)에 주석(住錫)하였는데, 정여립(鄭汝立)의 역옥(逆獄)에 잘못 걸려들어 강릉부(江陵府)에 구금(拘禁)되었으나, 유사(儒士)들이 대사의 억울함을 변호해 주어 석방되었다. 경인년(1590, 선조 23)에 풍악(楓嶽)에서 노닐며 또 여름 세 철을 안거하였다.

임진년(1592, 선조 25) 여름에 왜적(倭賊)이 영동(嶺東)에 침입하여 유점사(楡岾寺)까지 물려왔다. 이때 흑자가 말하기를, “우리나라 사람이 길잡이 노릇을 한다.”라고 하니, 대사가 말하기를, “왜적이라면 글로 타이르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이 있으면 잘 일러서 깨우칠 수 있겠다.”라고 하고는, 10여 명의 문도를 이끌고 곧장 산문으로 들어가니 왜적들이 문도를 모두 결박하였다. 대사가 홀로 중당(中堂)에 이르니, 왜적의 두목이 대사가 비범한 것을 알고는 빈주(賓主)의 예(禮)로 대하면서 문도를 풀어주었다. 대사가 글로 써서 문답을 하니 왜적들이 공경하며 심복하고는 깊은 산속을 가리키며 보내 주었다.

대사가 문도에게 말하기를, “여래(如來)가 세상에 나오는 것은 원래 중생을 구호(救護)하기 위해서이다. 이 왜적들이 기세가 등등하니 함부로 인명(人命)을 해칠까 두렵다. 내가 응당 가서 이 미친 왜적들을 타일러 흉한 무기를 거두도록 할 것이니, 그러면 자비(慈悲)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즉시 석장(錫杖)을 날려 고성(高城)으로 들어가니, 적장(賊將) 세 사람이 모두 대사를 예우(禮遇)하였다. 대사가 글로 문답하며 살생(殺生)을 좋아하지 말라고 타이르니, 적장 세 사람이 모두 손을 모으고 훈계를 받아들였으며, 3일 동안이나 대사를 머물게 하여 대접을 하고는 성 밖에 나와서 전송하기까지 하였다. 아홉 고을이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대개 대사의 공이었다.

선묘(宣廟)가 서쪽으로 몽진(蒙塵)하자, 불의(不義)에 항거하여 비분강개(悲憤慷慨)하며 승려들에게 말하러, “우리들이 이 국토에 태어나 거하면서 숨 쉬고 밥 먹고 여유있게 지내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조그마한 것도 모두가 임금님 덕분이다. 이렇게 어렵고 위태한 때를 만나서 어떻게 차마 가만히 앉아서 볼 수만 있겠는가.”라고 하고는, 즉시 수백 명의 승병(僧兵)을 모집하여 급히 순안(順安)으로 달려가니, 그때 모인 대중이 수천 명을 헤아렸다.

이 때에 청허대사(淸虛大師)는 제도(諸道)의 승병을 총섭(總攝)하라는 조정의 명령을 받았으나, 노쇠하다는 이유로 사양하고는 대사를 천거하여 자기를 대신하게 하였다. 이에 대사가 마침내 대중(大衆)을 거느리고 체찰사(體察使) 유공(柳公) 성룡(成龍)을 따르며 중국 장수와 협동하여, 이듬해 정월에 평양(平壤)을 깨뜨리고 행장(行長)을 달아나게 하였다. 그리고 도원수(都元帥) 권공(權公) 울(栗)을 따라 영남(嶺南)으로 내려가서 의령(宜寧)에 주둔하며 죽이고 노획(鹵獲)한 것이 상당히 많다. 상이 이를 가상하게 여겨 당상의 품계를 제수하였다.

갑오년(1594, 선조 27) 봄에 총병유정(總兵劉縉)이 대사에게 부산의 왜영(倭營)으로 들어가서 청정(淸正)을 타이드록 부탁하였으므로 세 차례 왕복하며 모두 요령있게 처리하였다. 기요마사가 묻기를, “조선에 보배가 있는가?” 라고 하니, 대사가 그 소리에 응하여 대답하기를, “없다. 보배는 일본에 있다.” 라고 하였다. 기요마사가 다시 묻기를, “그것이 무슨 말인가?” 라고 하자, 대사가 말하기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당신의 머리를 보배로 여기고 있다. 그러니 보배가 일본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니, 기요마사가 놀라면서 탄복하였다.

상이 대사를 궁중으로 불러들이고는 평생의 일을 자세히 묻고 나서 하교(下敎)하기를, “옛날에 유병충(劉秉忠)과 요광효(姚廣孝)는 모두 산인(山人)의 신분으로 남다른 공훈을 세워서 후세에 그 명성을 전하였다. 지금 나라의 형세가 이와 같으니, 그대가 만약 머리를 기르고 세상에 나온다면, 응당 백 리의 땅을 위임할 것이요, 삼군(三軍)을 통솔하는 명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니, 대사가 감히 그럴 수 없다고 사양하였다. 상이 무고(武庫)의 갑옷과 병장기를 대사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대사가 영남(嶺南)으로 돌아와서 군병(軍兵)을 주둔하고 초격(抄擊)하는 한편 용기(龍起) · 팔공(八公) · 금오(金烏) 등 여러 산성(山城)을 잇따라 수축(修築)하여 우뚝하게 보장(保障)이 되게 하고, 각처의 방어시설을 엄히 정돈하였다. 그런 뒤에 즉시 인수(印綬)와 전마(戰馬)를 반납하고 척적(尺籍, 군적軍籍)을 비국(備局)에 바치고는 소장(疏章)을 올려 사직을 청하였으나 조정에서는 돈유(敦諭)하며 허락하지 않았다.

정유년(1597, 선조 30) 겨울에 제독마귀(提督麻貴)를 따라 도산(島山)에 들어가고, 무술년(1598, 선조 31)에 또 유제독(劉提督)을 따라 예교(曳橋)에 들어가서 모두 으뜸가는 공을 세웠다. 전후(前後)에 걸쳐 4천여 석(石)의 군량을 비축하였고, 병기와 갑옷도 만(萬)으로 헤아렸다. 상이 가상하게 여겨서 특별히 가선대부(嘉善大夫)의 품계를 내리고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제수하였다. 신축년(1601, 선조 34)에 부산성(釜山城)을 쌓고 내은산(內隱山)으로 돌아갔다. 계묘년(1603, 선조 36)에 명을 받고 서울에 왔다. 갑진년(1604, 선조 37)에 국서(國書)를 받들고 일본에 갔다. 여러 왜인(倭人)들이 말하기를, “이 스님이 보배를 말했다는 화상(和尚)인가?” 라고 하였다. 대마도(對馬島)에서 일본의 서울에 가니, 여러 대수(大帥)들이 모두 신심(信心)을 내어 약속을 받아들였다. 승려들이 사슴 떼처럼 모여들어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자, 대사가 일일이 가르쳐서 미혹(迷惑)을 깨우쳐 주니, 모두 머리를 땅에 대고 예배하며 부처님이라고 일컬었다.

그리고 대사가 이에야쓰(家康)를 만나게 되어서는, “양국(兩國)의 생령(生靈)들이 오래도록 도탄(塗炭)에 빠졌으므로 내가 널리 구제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하였는데, 이에야쓰도 불교에 귀의한 자였으므로, 대사의 말을 듣고는 신심을 내어 부처님처럼 공경하였다. 그리하여 협약을 제대로 맺고 귀국하게 되었는데, 그 기회에 포로로 잡혀간 남녀 1천 5백 명을 한꺼번에 데려오면서, 스스로 곡식을 마련하여 그들을 먹이며 바다를 건너 돌아왔다. 을사년(1605, 선조 38)에 복명(復命)하였다. 상이 그 공로를 가상하게 여겨, 가의대부(嘉義大夫)의 품계를 더하고, 어마(御馬)와 저사(紵絲)의 표리(表裏)를 하사하여 표창하였다.

이때 청허(淸虛)는 이미 시적(示寂)한 뒤였다. 대사는 바로 묘향산에 들어가서 그 영탑(影塔)에 예배하고 그대로 보현사(普賢寺)에서 복제(服制)를 마쳤다.

병오년(1606, 선조 39) 봄에 영선군(營繕軍)을 거느리고 법궁(法宮, 대궐의 正殿)의 공사에 나아갔으며, 삼강동(三江洞)에 초막을 지었다. 정미년(1607, 선조 40) 가을에 은퇴를 청하고 치악산(雉岳山)으로 돌아왔다.

무신년(1608, 선조 41)에 선묘(宣廟)의 휘음(諱音, 諱音)을 듣고 서울에 가서 배곡(拜哭)하였는데, 그로 인해 병을 얻어 매우 괴로워하였다. 금상(今上)이 서쪽 변방에서 호인(胡人)의 침입에 대비하게 하려 했으나, 명에 응하지 못한 채 가야산(伽倻山)에 들어가 조리(調理)하니, 상이 누차 어약(御藥)을 하사하였다.

경술년(1610, 광해군 2) 가을에 상이 염려하여 서울에 와서 치료받게 할 목적으로 방백(方伯)으로 하여금 돈유(敦諭)하며 상경하도록 하였다. 8월 26일에 대사가 불도(佛徒)들을 크게 모아 놓고 고하기를, “사대(四大)가 가합(假合)한 이 몸이 이제 진원(眞源)으로 돌아가려 한다. 어찌 번거롭게 왕래하여 이 허깨비 같은 몸을 수고롭게 해야 하겠는

가. 내가 이제 입멸(入滅)하여 자연의 변화에 따르려 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마침내 가부좌(跏趺坐)한 자세로 유연(悠然)히 서거(逝去)하였다.

11월 20일에 문도(門徒)가 유골(遺骨)을 받들어 사원의 서쪽 기슭에서 다비(荼毗)를 행하니, 상서로운 빛이 하늘에 뻗치고 날아가는 새들이 놀라서 지저귀었다. 이에 정수리의 구슬 하나를 모셔다 석종(石鍾)을 만들어 봉안하고 그곳에 솔도파(窰堵波, 탑)를 세웠다. 대사의 속성(俗姓)은 임씨(任氏)이니, 풍천(豐川)의 명망있는 가문이다. 증조부 효곤(孝昆)은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관직이 장악원정(掌樂院正)에 이르렀는데, 일찍이 대구(大丘)의 수령으로 있을 적에 밀양(密陽)에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하였다. 그는 유학(幼學) 종원(宗元)을 낳았고, 종원은 교생(校生) 수성(守成)을 낳았는데, 수성이 달성서씨(達城徐氏)에게 장가들어 갑진년(1544, 중종 39) 10월 17일에 대사를 낳았다.

대사는 세수 67세를 향유하였고, 법랍은 55년이였다. 사시(私諡)는 자통홍제존자(慈通弘濟尊者)이다.

대사가 젊은 날에 많이 저술한 것이 우리 중씨(仲氏) 하곡(荷谷)에게 있었는데, 병화(兵火)로 없어지고 말았다. 문인(門人)이 세상에 전승(傳誦)되는 것들을 모아 일곱 권으로 만들어서 전하게 되었는데, 아는 자는 그 청심(淸臚)한 맛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아! 대사는 말세(末世)의 시끄러운 시대에 태어나 용마(戎馬) 사이에 시달리면서 국가를 위해 강한 왜적을 막다 보니, 법실(法室)을 선양(宣揚)하고 중생을 교화하는 데에는 미처 겨를이 없었다. 그래서 대사를 아는 정도가 얇은 자들은 혹 뱃사공 노릇을 하는 데에는 뜻을 두지 않고 그저 세상을 구하기에 급급했다고 나무라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이 어찌 마군(魔軍)을 소탕하여 환란을 구제하는 것이야말로 그 집안의 공덕임을 알 수 있겠는가. 그리고 유마힐(維摩詰)은 아무 말 없이 곧장 불이법문(不二法門)에 들어갔으니, 또 무엇하러 시끄럽게 잔소리를 늘어놓겠는가.

나는 비록 유가(儒家)에 속한 사람이긴 하지만, 대사와 제형(弟兄)의 교분이 있기 때문에 대사를 가장 잘 알고 있다. 한번 물어보노니, 오늘날 세상에서 목우(牧牛)와 강월(江月)의 도맥(道脈)을 이을 사람으로, 우리 대사를 제외한다면 또 누가 있겠는가. 뒤에 반드시 분변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명(銘)을 붙인다.

생각건대 박가범(薄伽梵)이
인도에서 불법(佛法)을 제창한 뒤로
열반의 묘한 그 마음이
등(燈)에서 등으로 전해졌네.
진단(眞丹)의 동쪽 나라인
우리 삼한(三韓)까지 멀리 왔나니
누가 영명(永明)을 이었는가 하면
강월(江月)이 홀로 등글었다네.
그 마지막 빛을 이은 이들 중에서
서산(西山)이 누구보다도 앞장섰나니
지혜의 햇불을 새벽에 밝히고
예지(叡智)의 거울을 밤중에 걸었다네
제자들이 많이 모여들어
백과 천으로 헤아렸는데
오직 현결찬 우리 종봉(鍾峰)이
미혹의 냇물의 뗏목이 되었다네
종봉의 교화로 말하면
가없이 널리 구제하였나니
선이란 선은 모두 닦으면서
세상 인연에 물들지 않았다네
거두어 속에다 감추어 두면
병발(瓶鉢)로 소연히 지내었고
꺼내어 그것을 쓰게 되면

깃발과 창이 앞에 있었다네
 악마를 꺾고 고통에서 꺼내 주어
 국가가 그 덕분에 병들지 않았는데
 수포(獸袍)와 황금 인장을 내렸어도
 그 충애를 뜯구름처럼 여겼다네
 아득히 고해 속으로
 동쪽 이단(夷虜)이 가라앉자
 우리 자비의 배를 띄워서
 저 완악한 오랑캐를 감화시켰다네
 둘러서서 바라보는 휘복(卉服)들은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 하였나니
 꿰어앉아 약속을 받들게 하여
 왕의 법도를 제대로 선포하였다네
 국난이 수습의 기미를 보이자
 돌아가고픈 마음 더욱 설레어
 허깨비 몸 은퇴를 청하면서
 여생을 요양할까 생각하였다네
 법궁(法宮)의 공사를 감독하다가
 몸이 병든 것을 좋은 핑계로
 절간에 물러나 한가히 노닐며
 모두 내려놓고 편히 쉬었다네
 부디 오래도록 장수를 누리면서
 더욱 중현(重玄)을 연설하길 기대했는데
 어찌하여 쌍수(雙樹)에 뜻하지 않게
 인천(人天)의 대중이 모여들었는가
 단특(檀特)의 산악이 무너지고
 니련(泥連)의 강물이 메말랐나니
 백호(白毫)는 빛을 감추고
 금불상은 미소를 잃었도다
 적멸이 낙이라 하더라도
 모르는 자는 눈물을 흘리나니
 신실한 우리 불교 신도들이
 비단과 돈을 모금하였다네
 탐과 사당 세워 보답하나니
 스승님과 부처님 은혜
 가야산 홍류동 물굽이에
 상설(象設)을 일으켰다네
 원력이 하 크기도 하니
 겁이 다한들 없어지리오
 찬송하는 노래 그치지 않으며
 비석에 이를 글로 새겼다네
 두타(頭陀)는 빙긋 미소짓고
 마힐(摩詰)은 말이 없었나니
 가르치고 교화하는 두 가지는

모두가 제전(蹄筌)일 뿐이로세
 무쟁삼매(無諍三昧)를 얻었는지라
 실(實)과 권(權)이 모두 가하니
 해와 달처럼 밝고 밝아서
 만고토록 길이 빛나리로다

만력 40년(1612, 광해군 4) 12월 일

慈通弘濟尊者四溟大師石藏碑銘

有明朝鮮國慈通弘濟尊者四溟松雲大師石藏碑銘并序

自象教之東被三韓也 教律並倡 圓漸分門 數千年來 蒙伽黎者 人人各自誇握牟尼之寶矣 唯牧牛江月 獨得黃梅宗旨 蔚為禪門之冠 鉗鎚一震 萬人皆廢 俾涅槃妙心正法眼藏 祕傳於青丘之域 豈不異哉 普濟五傳 為芙蓉靈觀 而清虛老師 稱入室弟子 其慧觀妙悟 有出於前輩 是近代之臨濟曹洞也 厥後嗣法者 不無其人 而緇門盛推四溟大師 謂可繼西山之傳 或庶幾乎哉 師名惟政 字離幻 四溟其自號也 其先妣媿日 夢駕白雲 携黃幘金人躋萬仞高臺 則有仙老踞其上 即頂禮 覺而誕師 生而聰穎 嶷然不類常兒 稍大 不好弄偕 羣童嬉游川上 則或團沙為塔 豎石為佛 或採花拾栗為蒲供 一日見罟者或捉大鰲 聚栗償之 放諸淵中 羣童感之 咸以所收栗 置師前 師分餉甚均 空手以歸鄉 諸老見而異之 七歲其王父誨以史 師問曰 學者之業 貴歟賤歟 若貴則當學之不倦乎 王父曰 世間事 無貴於學 古今聖賢 皆由學就 其敢忽諸 曰若以 聖賢之心為業則貴矣 違是則賤也 世所學多害人之說 而少成人之訓 槩可謂貴乎 曰成人害人 不在空言 唯係心之善否 汝言至哉 師力學不懈 十三學孟子於黃柳村 汝獻 一夕廢卷 歎曰 俗學賤陋 世緣膠擾 豈若學無漏之學乎 即投黃嶽山直指寺禮信默和尚被剃 初閱傳燈錄 未熟 已悟奧旨 諸老宿皆就質焉 辛酉中禪科 華聞漸彰 一時學士大夫詩人 如朴思菴李鵝溪高霽峰崔駕運許美淑林子順李益之之輩 咸與之驩唱和詩翰 傳播詞林 人以為美談 嘗與荷谷 約一覽韓文最鉅篇 誦之不錯 荷谷亟以手寫本償之 奇高峰曰 恃此自足 則學必不進 可惜虛費枉功矣 師竦神受教 勤苦不少懈 因受四子於穌齋相 又學李杜詩 自是文章日益進 而內典千函 亦盡涉獵 方袍習竺墳者 雲集山門矣 乙亥歲以空門衆望 住持禪宗 告辭拂錫而去 入妙香山 始受益於清虛座下 老師提醒心地 直授性宗 師言下大悟 即掃蕪群言 斷除閑習 從前游戲詞家 穢為綺語 一志於安心之性 苦行三載 盡得其正法 戊寅別老師向楓嶽 結三夏於報德寺 南遊八公山清涼大伯諸山 丙戌春到沃川山上東菴 一夜驟雨 庭花盡落 師忽悟無常 招門人語之曰 昨日開花 今日空枝 人世變滅 亦復如是 浮生若蜉蝣 而虛度光陰 實為矜悶 汝等各具靈性 盍反 求之以了一大事乎 如來在我肚裏 何必走外求 而蹉過日時耶 即散門徒 獨入禪室 杜口結跏 或旬日不出 窺之則兀若塑人 己丑住五臺山靈鑑蘭若 誤結逆獄 拘于江陵府儒士輩訟其寃得釋 庚寅遊楓嶽 又結三夏 壬辰夏倭賊闖入嶺東 至楡岾寺時 或云我人為導 師曰 若賊難以書諭 倘有我人 則亦可譬解 率十餘徒 直入山門 賊悉縛之 獨師至中堂 則頭倭知其非常 待以賓主 解其徒 師書以往復 諸倭敬服 指送山深處 師語門徒曰 如來出世 元為救護衆生 此賊張甚 恐肆殘害 吾當往諭狂賊 俾戢凶鋒 則庶不負慈悲教也 即飛錫入高城 則賊將三人 俱加禮遇 師以書勸其勿嗜殺 則三將皆拱手受戒 挽三日設供出城 祖之九郡之得免虔劉者 蓋師功也 宣廟西幸 抗義慷慨 語諸僧曰 我等生居國土 息食優游 閱有年紀者 秋毫皆上力也 值此艱危 其忍坐視 即募數百僧 亟赴順安 則諸義僧皆來 會有衆數千矣 時清虛以朝命 總攝諸道僧兵 辭以耗薦 師自代 遂統大衆 從體察使柳公成龍 協同天將 明年正月 破平壤走行長 因隨都元帥權公慄下 嶺南駐紮 於宜寧 頗多殺獲 上嘉之 授堂上階 甲午春劉總兵縱 命師入釜營 諭清正 凡三返 盡得其要領 正問朝鮮有寶乎 師應聲對曰 無有 寶在日本 何謂也 曰方今我國 以若頭視寶 是在日本也 正乃驚歎 上招詣內闈 備問平生 下教曰 昔劉秉忠姚廣孝 俱以山人 建立殊勳 名流後世 今國勢如此 爾若長髮 則當任之百里之寄 授以三軍之命矣 師謝不敢而退 上以武庫鎧仗給之 師返嶺南 留兵抄擊 連築龍起八公金烏諸山城 屹為保障 各飾儲胥然後 即上印綬戰馬 以尺籍納于備局 抗章乞閑 朝廷敦諭不許 丁酉冬從麻提督貴 入島山 戊戌又從劉提督 入曳橋 皆有首功 前後備餉四千餘石 器甲萬計 上嘉之 特階嘉善 授同知中樞府事 辛丑築釜山 還內隱山 癸卯承命來京 甲辰奉國書往日本 諸倭相謂曰 此說寶和尚耶 自馬島抵其都 諸大師皆信受約束 緇流麇至 願受教 師一一指迷 即皆頂禮稱佛 及見家康 備言兩國生靈久陷塗炭 吾因普濟而來 康亦歸心釋教者 聞而發信心 敬之如佛 克成和好而歸 因括回被擄男女一千五百 自備穀餉之 還渡海 乙巳復命 上嘉其勞 就加

嘉義階 賜御馬紵絲表裏以獎之 時清虛已示寂 師便入妙香山 禮其影塔 仍守制普賢寺 丙午春領營繕軍 赴法宮役 結茅三江洞 丁未秋乞骸 還雉岳山 戊申聞宣廟諱音 抵洛拜哭 因得病甚苦 今上欲令備胡西陲 不獲應命 入伽耶山調治 上屢賜御藥 庚戌秋上念之 欲其就醫京山 令方伯敦遣 八月二十六日 師大會諸禪那告曰 四大假合 今將返真 何用屑屑往來勞此幻軀 吾將入滅 以順大化也 遂趺座悠然而逝 十一月二十日 門徒昇蛻骨 荼毘於寺之西麓 祥光燭天 飛鳥驚噪 於是輦頂珠一具 鑿石鍾藏之 樹宰堵坡於其地云 師俗姓任氏 豐川望族也 曾大父孝昆 文科官掌樂院正 曾守大丘 因以家密陽 生幼學宗元 宗元生校生 守成 媿達城徐氏 以嘉靖甲辰十月十七日生師 享世壽六十七 而法臘五十五 私諡曰慈通弘濟尊者 師少日多所著述 在我仲氏 荷谷 所失於兵火 門人哀其傳誦者 為七卷以傳 知者賞其清瞻云 嗚呼師之生 當俶擾之代 偏側戎馬間 與國家捍強賊 其於宜揚法室 振刷迷徒 蓋未之暇 淺之乎知師者 或病其乏津筏 而徒區區救世為 夫豈知誅魔濟難 是渠家功德 而摩詰無言 直入不二法門 又奚用嘵嘵立訓乎 不佞雖儒家者流 以弟兄之交 知師最深 試問今世續牧牛江月之道脈者 捨吾師其誰 後必有辨之者 仍係之以銘曰

維薄伽梵 倡法筌乾 涅槃妙心 燈以燈傳
 眞丹之東 溯我三韓 疇承永明 江月獨圓
 嗣其未照 西山最先 慧炬晨朗 智鏡霄懸
 于于上足 其指百千 只詔鍾峰 能筏迷川
 鍾峰之教 廣濟無邊 備修衆善 不染羣緣
 卷而懷之 瓶鉢蕭然 出而用之 旌戟在前
 摧魔拔苦 邦賴不羶 獸袍金章 寵若浮烟
 茫茫苦海 東浸夷晝 泛我慈航 格彼苗頑
 環觀卉服 如渴赴泉 跪奉約束 王略克宣
 國難甫野 歸興愈翩 思乞幻軀 以養殘年
 法宮董旅 因疾就便 優游紺宇 偃息青蓮
 庶享大耋 益演重玄 云胡雙樹 遽集人天
 嶽摧檀特 河涸泥連 瓊毫閱彩 金相失妍
 寂滅為樂 味者涕漣 烝哉梵徒 募化繪錢
 塔廟以報 師恩佛恩 虹流之隩 象設興焉
 願力所弘 銷劫不騫 謳頌勿替 琬琰斯鐫
 頭陀微笑 摩詰無言 立訓顯化 二俱蹄筌
 無諍三昧 可實可權 明明日月 萬古長鮮

萬曆四十年十二月 日立

송운대사비명

유명조선국밀양표충사송운대사영당비명병서
대광보국승록대부령중추부사 이의현 찬
가선대부행흥문관부제학지제 교 김진상 서
대광보국승록대부행판중추부사 유척기 전

아! 우리 선조 25년(1592)에 일본 적들이 많은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오므로, 선조는 서북 신의주 변방으로 피난하시고 흥봉(凶鋒)이 팔도에 침입함에 안팎으로 국록(國祿)을 먹는 자들은 썩이나 토끼처럼 도망하니 적은 우리나라를 마음대로 짓밟았느니라.

이 때에 송운대사 유정(惟政)은 불교를 닦고 있었는데 석장을 날리며 고성(高城)에 들어가서 적에게 살생을 즐기지 말라고 타이르니 적이 대사의 그 위엄이 늙름하신 것을 보고는 곧 일어나 공손히 절하고 그 무리들을 훈계하니 이로 말미암아 영동(嶺東)의 9군(郡)은 흉악무도한 비참한 지경을 면하게 되었다.

그 후 유정은 강개한 어조로 모든 스님에게 말하기를 “지금 우리들이 잘 살고 있는 것은 모두 임금의 덕택이며, 지금 원구 왜적이 침입하여 나라의 운명이 이와같이 위태하거늘 어찌 앉아서 가만히 보고 구하지 아니하겠는가. 내 이제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도우고 창생을 구하려 하니 뜻이 있는 자는 나와 함께 일어나라.” 하시고 곧 무리를 모았더니 수백 명이 모집되어 급히 순안(順安)으로 달려갔다.

이 때에 송운대사의 스승인 휴정(休靜)은 방총제도승(方總諸道僧)에 임명되어 있었으나 늙었으므로 사퇴하고 사명대사를 천거하여 자기의 대를 이어서 드디어 유성룡(柳成龍)을 따라 명나라 장수와 협동하여 평양 적을 파하고 도원수 권율(權慄)을 따라 영남에 내려가 수차 적을 참획(斬獲)하였으므로 임금께서 감탄하시어 당상관을 제수하시고 유총(劉總)의 병정을 따르게 하였다.

그리고 왜영(倭營)에 들어가 가등청정(加藤清正)을 회유하였는데 세 번 왕복하여 그 요령을 얻은 것이 많다. 가토 기요마사가 “조선에 보배가 있느냐.”고 묻자, 대답하기를 “없다. 보배는 일본에 있으니 네 머리가 바로 그것이다.” 하니 기요마사의 낫빛이 창백(蒼白)했다 한다.

돌아오며 임금이 내당에 불러 정탐한 왜적의 정세를 낱낱이 묻고 곧 전교(傳教)하기를 옛날에 유병충(劉秉忠)과 요광효(姚廣孝)는 모두 산인(山人)으로써 국가에 공훈이 많더니 대사도 만일 머리를 기르고 속인이 된다면 백리의 땅과 삼군(三軍)의 명을 무엇이든지 맡기리라 하셨으나 대사는 감히 당할 수 없다고 사양하였다. 그러나 임금은 그 뜻을 굽힐 수 없으므로 특히 갑옷과 무기를 하사하여 남은 적을 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또 성을 쌓고 한편으로는 군량미와 병기 등을 굳게 보완하고 곧 인수(印綬)를 올려 나이가 많으므로 쉬기를 원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정유년에 왜적이 다시 침입함에 대사는 명나라에서 새로 들어온 마유(麻劉)와 유정을 따라 갖은 포약을 해운 왜적을 평정하였다. 임금께서는 특별히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려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임명하였다. 신축년에 또 부산산성을 쌓고 갑진년에는 국서를 받들고 일본에 가니 모든 왜놈이 서로 돌아보고 놀래며 두려워하였다. 오직 삼가겠다는 약속을 받고 남녀 삼천수백 명을 데리고 와서 임금께 복명하니 임금께서 칭찬하시고 가의대부(嘉義大夫)에 올리고 말과 옷감 등을 내리어 포장(褒獎)하였다. 그 후 대사는 나이가 많으므로 사직하고 치악산(雉巖山)과 가야산(伽倻山)에 들어가 경술년 가을에 별세하였으니 세수 67세요 법랍은 57세이다. 장사하던 날 저녁에 사리 한 과를 얻어 석종(石鐘)에 간직하고 부도를 세웠다.

대사는 풍천 임씨이며 아버지 수성이 달성서씨에게 장가드시어 가정 갑진년에 대사를 낳았다.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차차 자라 글을 읽다 홀연히 깨닫고 황악산(黃嶽山)에 들어가 머리를 깎았다. 자는 이환(罹患)이며, 재주가 일찍부터 뛰어나니 소재(蘇齋), 사암(思菴), 고봉(高峯), 제봉(霽峰)같은 여러 높은 사람들과도 잘 알게 되고 또 시인(詩人) 최가운(崔嘉運), 허미숙(許美淑), 임자순(林子順), 이익지(李益之)등과도 시로써 놀게 되는데 시를 주고받고 하는 것이 훌륭하였다.

사명집(四溟集)이 있어서 세상에 간행되어 있으나 이것은 모두가 대사의 한 찌꺼기만 남은 것이며 진실한 것은 볼 수 없어 정녕 말할 것이 못된다. 오직 품기(稟氣)가 호일(豪逸)하고 사리에 달관하는 식견이 있고 지혜에 밝았다. 불교에 쫓았는데 그 교(敎)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와서 난리를 그치게 할 뜻을 품었으므로 인륜을 떠났으나 나라를 지키기 성심이 돈독하여 적의 세력이 조수(潮水)와 같이 밀려들어 온 나라가 어지러운 때 명나라 장수들을 맞이하되 능히 막지 못한 것을 한마디 말로서 못 왜(倭)를 굴복시키고 한자의 칼로서 뛰어난 공훈을 세우니 공(空)을 말하고 환(幻)을 말하는 한 증(禪)에 비할 바 아니다. 임금께서도 옛날의 영걸(英傑)에 비교하여 그 포부(抱負)가 보통이 아닌 것을 잘 알 수 있으니 어찌 한 시대의 의부(毅夫)가 되고 한 시대의 위대한 인물이 아니겠는가.

영남 밀양 표충사(表忠祠)에서 사명대사를 향사하는데 휴정대사는 처음에 난을 감당한 공이요, 영규(靈圭)대사는 적을 섬멸한 공이 현저하고 또 순절(殉節)하였으므로 대사와 함께 향사한다. 숙종대왕 때 명령을 내리어 제수를 관(官)에서 주었고 지금 임금께서 또 명하여 복호(復號)를 주니 이것은 아름다운 풍속을 후세에 권장하는 까닭이다. 대사는 일찍이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그 길이가 띠(帶)에까지 이르니 또한 훌륭한하였다. 지금 유상(遺像)이 표충사(表忠祠) 영당에 있다.

내가 본래 스님에게 문자를 지어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므로 글을 지어 달라는 청이 오더라도 거절하였으나 오직 대사의 사적은 특히 훌륭하고 뛰어났으므로 차마 의례상으로 다른 것과 같이 물리치지 않고 드디어 새기게 되니 그 말에 이르니라.

사람에게 오륜(五倫)이 있으니 첫째는 군신(君臣)이다.
전쟁에 나아가 의를 위해 분기하니 나라는 있고 몸은 없었다.
이것이 정리(正理)요 명교(名敎)를 따르는 바이로다.
범서(梵書)를 읽고 바릿대를 가지면 부처이요 사람은 아니다.
홀로 절만 지키고 불경만 읽고 있는 것이 보통인데
세상의 위란(危亂)을 보고 어찌 가슴 속에만 신음할 것인가.
거룩하다 송운대사(松雲大師)의 행동은 환(幻)이요, 마음은 진(眞)이다.
수염이 무릎에 이르니 그 정신이 더욱 빛났다.
그 본뜻을 생각하니 수행자는 의관(衣冠)에 만족함이 아니다.
임진왜란이 줄지에 일어났음에 난리를 맑히겠다 맹세하고
군사를 모으고 무리를 뽑으니 군사의 규율이 새로워졌다.
유점사(楡岾寺)에서 중생을 구제하니 감화가 왜적에도 미쳤도다.
아홉 고을이 편안 하니 사람들을 고루 살린 것이다.
서산대사(西山大師)가 먼저 하기를 사양하고
임금에게 알리더라. 군사 지낸 데를 생각해보니
평양(平壤)과 정진(鼎津)이다.
로획(鹵獲)이 곱이나 많으니 비단과 은이 융숭하였다.
부산 적영에 세 번이나 갔다 올 때는 정성을 들여 힘을 다하였고
보배를 말할 때는 그 말이 장하였으니
기운이 가을 하늘을 덮었다.
혀로서 칼날을 대로하니 멀리 강한 이웃이 항복하였다.
칠년전쟁에 공이 백성에게 있었도다.
임금이 가름하게 생각하고 교서를 내려 순순히 이르기
옛날 유병충(劉秉忠)과 요광효(姚廣孝)는 그 공훈을 기린에 비함직하니
너도 능히 뜻을 굽혀 속세에 나와 나를 도운다면
백리의 땅과 삼군을 맡기겠다 하였으나
스님은 절하고 이마를 숙이고 감히 할 수 없나이다.
신은 늙어서 무능하오니 바라옵건대 인자하심을 드리우소서.

다만 산 속에 들어가 잔나비와 새, 짐승과 서로 친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신의 본뜻이라고 지성으로 아뢰고
 편안히 돌아와 치악산(雉嶽山)에 들어갔다.
 은혜와 상을 거듭 내리니 표절(表節)이 순수한데
 호광(毫光)이 갑자기 살아지므로 법운(法運)이 마침내 기울어졌다.
 탑묘(塔廟)는 공중에 솟았고 현주(玄珠)는 진귀함을 보았다.
 밀양 무안에 있는 표충사(表忠祠)는 천추에 길이 편안할 것이다.
 유상(遺像)이 사당(祠堂)에 있으니 상쾌한 기운이 고요히 서렸도다.
 오직 이와 같이 포장(褒獎)하는 것은 대개 제사 받들기를 신칙(慎飭)하여
 이전과 같이하지 아니하니 그 가르침이 이에 인(因)함이요,
 세분의 대사(大師)를 함께 향사(享祀)하니 서로가 주빈(主賓)되게 함이로다.
 공에 보답하고 의열(義烈)을 들어냄이 깊이 후세에 미치게 하였다.
 내가 그 일을 쓰고 정민(貞珉)에 새김은 스님들로 하여금 스승의 의리를 따르게 함이니
 공허(空虛)한 적막 속에 빠지지 말고 스승을 따라 환난(患難)을 구제할 것이다.

1742년(조선 영조 18) 10월에 세우다

松雲大師碑銘

有明朝鮮國密陽表忠祠松雲大師影堂碑銘并序
 大匡輔國崇祿大夫領中樞府事 李宜顯 撰
 嘉善大夫行弘文館副提學知製 教 金鎮商 書
 大匡輔國崇祿大夫行判中樞府事 俞拓基 篆

粵我 昭敬大王 在有之二十五年 日本賊 大學兵 入寇 主上 鄙在西隋 凶鋒 彌滿八路 中外食焉者 多雉兔逃 賊遂肆意蹂躪
 維時松雲大師惟政 佛者流也 飛錫入高城 諭賊勿嗜殺 賊見其儀容 凜然即起敬 戒基徒 由是領東九郡 得免屠戮之慘
 既而慷慨 語諸僧曰 吾等 優游飲啄 皆聖恩也 今國危至此 坐視不救 可呼 乃募衆 至數百 亟赴順安
 時師之師休靜 方總諸道僧兵 辭以老 舉師自代 遂從體察使柳成龍 協同天將 破平壤賊 隨都元帥權慄 下嶺南 婁有斬獲 進階
 堂上 使隨劉總兵縱
 入倭營 諭意清正 三往三返 盡得要領 正問朝鮮有寶乎 曰無有 寶在日本 若頭是也 正色沮
 及還 上召至內闈 歷問事情 仍教曰 昔劉秉忠 姚廣孝 俱以山人 勳在國家 爾若長髮 百里之寄 三軍之命 無所不可 師辭以不
 敢 上亦不屈其志特給武庫鐵杖 俾抄擊餘賊已又助築城埤 飭儲胥 完保障 卽上印綬 抗章乞休不許
 丁酉倭再逞 從麻劉二督府 具有勞勩 特陞嘉善 拜同知中樞 辛丑又築釜山城 甲辰奉國書 往日本 諸倭 相顧驚憚 受約束惟謹
 還被虜男婦三千餘口 復命 加階嘉善 優錫資以獎之 是後年益老乞骸 自雉岳 入伽椰山 至庚戌秋示寂 世壽六十七 僧夏
 五十七 荼毘之夕 得舍利一具 藏之石鍾 建窰塔波
 師豐川任氏也 父守成 娶達城徐氏 生師於嘉靖甲辰 幼有異質 稍長讀書 忽有契悟 投黃岳山薙髮 字曰離幻 才思夙詣 爲蘇齋
 思菴 高峯 霽峰 諸名公所賞識 與詩人崔嘉運 許美叔 林子順 李益之輩 遊爲詩清酒可觀
 有泗溟集 行于世 然斯皆師之士 其糠爾 固不足道也 唯是稟氣豪逸 自有達識明智 從異教而不爲其教所囿 出世而懷弭亂之
 志 離倫而篤衛國之誠 當賊勢潮驅 霧霧匝天 忠義鬱律 不能自禦 片言 折伏群醜 尺劍 建立殊績 有不可以談空說幻之一枯禪
 比而倫之 聖教 引古 英傑策勉者 蓋亦深知其抱負之不常 則豈不爲一時之毅夫 蓋代之衛男也哉
 嶺南之密陽有表忠祠以享師 而休師以有最初勘難之功 靈圭以殲賊著烈 終又殉節 與師並餽 肅宗朝 命官供祭需 當宁又命給
 復 所以樹風聲 勸來後也 師嘗存髻不去 其長至帶 亦異矣 今遺像留在祠中
 余雅不喜爲釋子作文字 有來請 輒麾之 唯師事跡絕奇 義難一例斥 却遂爲之銘 其詞曰

人有五倫 一則君臣
 臨難奮義 有國無身
 斯爲正理 名教攸遵
 呪梵持鉢 佛也匪人
 獨守空門 自甘夷淪
 視世危亂 寧肯嘸呻
 偉哉松雲 跡幻心真
 存髻至膝 有燁精神
 想厥雅意 不屑緇巾
 蠻警卒起 誓清氛塵
 哀兵選徒 師律一新
 榆帖救衆 化彼兇囂
 九郡安帖 全活惟均
 西山讓先 用徹重新
 歷載從戎 箕疊鼎津
 鹵獲侯多 特侈緋銀
 釜營三返 尤竭忱恂
 說寶語壯 氣薄秋旻
 以舌代鋒 遠懾強隣
 七年兵戈 功在南民
 聖情眷倚 諭教諄諄
 曰昔劉姚 勳比麒麟
 爾能屈志 佑我昌辰
 百里三軍 嘉命可申
 師拜稽首 其敢逡巡
 臣老無能 願垂慈仁
 祇林道場 猿鳥相親
 是臣本懷 困款畢陳
 翩然歸臥 雉嶽嶙峋
 恩漿稠疊 表節之純
 毫光遽闕 法運終湮
 塔廟湧空 玄珠示珎
 凝川報祀 永綏千春
 遺像在堂 爽氣氤氳
 給需賜復 寵章式頻
 惟此一着 蓋飭戎衤
 非如前代 渠教是因
 三師齊享 共作主賓
 酬功彰烈 施及無垠
 我述其事 刻之貞珉
 爰俾鶩子 師義寔循
 毋泥虛寂 追師濟屯

崇禎後再壬戌 十月 日立

참고 문헌

- 사명유정, 율진이 이상현, 《사명당대사집》,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4.
이지관, 《역대고승비문 06 조선편01》,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4.
《2021 금석문탁본조사보고서》, 문화재청·불교중앙박물관, 2022.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논고

사명대사의 서예

진복규(포항공과대학교)

I. 생애

사명당(四溟堂) 유정(惟政, 1544~1610)은 조선조 명종~선조 시기의 대표적인 선승이자 임진왜란 중에는 구국의 승병장이었으며, 강화협상과 전후 조일 외교 복원 과정에서 외교사절이자 교섭자였다. 그는 청허 휴정(淸虛休靜, 1520~1604)을 계승한 임제종의 적통으로, 나라를 위한 표충(表忠)과 중생의 홍제(弘濟)를 아우른 선지식(禪知識)이었다.

대사의 본관은 풍천(豊川)으로 속명은 임응圭(任應圭)이다. 증조부 임효곤(任孝昆)은 문과에 급제해 장악원정에 이르렀고, 조부는 임종원(任宗元)이며 아버지는 임수성(任守成), 어머니는 달성서씨(達城徐氏)이다. 『사명당지파근원록』에 따르면, 대사는 부처님의 63대 적통인 의현과 동방 제1조 보우, 제2조 혼수, 제3조 각운, 제4조 정심, 제5조 지엄, 제6조 영관, 제7조 휴정을 이어 법통을 계승한 적자(嫡子)이다.

대사는 중종 39년(1544) 10월 17일 밀양도호부 상서이동면 고라리에서 태어났다. 법휘는 유정(惟政)이고, 자(字)는 이환(離幻)이다. 호는 한산(寒山), 종봉(鐘峰)이고, 당호는 사명당(四溟堂)이며, 자호는 송운(松雲)이다. 시호는 자통홍제존자이다.

7세인 명종 5년(1550)에 대사의 조부에게 『사략(史略)』을 배웠고, 13세인 명종 11년(1556)에 유촌(柳村) 황여헌(黃汝獻, 1486~?)에게서 『맹자』를 배웠다. 15세인 명종 13년(1558)에 어머니를 여의고, 16세인 명종 14년(1559)에 아버지를 여의었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출가한 것으로 보인다. 명종 15년(1560)에 황악산 직지사의 신묵 화상에 게 나아가 머리를 깎았다. 명종 16년(1561) 18세에 승과에 급제하였다.

당시 사대부 문인 학자인 사암(思庵) 박순(朴淳, 1523~1589), 아계(鵝溪) 이산해(李山海, 1539~1609), 제봉(霽峰) 고경명(高敬命, 1533~1592), 고죽(孤竹) 최경창(崔慶昌, 1539~1583), 하곡(荷谷) 허봉(許篈, 1551~1588), 백호(白湖) 임계(林悌, 1549~1587), 손곡(蓀谷) 이달(李達, 1539~1612)과 시문을 창수하며 교류하였고, 소재(蘇齋) 노수신(盧守愼, 1515~1590)에게서 사자(四子)를 배우고 또 이백(李白)과 두보(杜甫)의 시를 배웠는데, 이로부터 문장이 날로 더욱 발전하였다.

선조 8년(1575) 휴정의 문하에서 임제종의 심인을 받았다. 선조 19년(1586) 봄에 무상의 이치를 깨달았고, 승속(僧俗) 불이(不二)의 대승적 자비심으로 중생 구제에 나섰다. 49세인 선조 25년(1592) 일본의 무력 침략으로 왕이 서쪽으로 몽진하자, 대사는 휴정을 대신하여 제도의 승명을 총섭하여 도체찰사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을 따르며 중국 장수와 협동하여, 이듬해 정월에 평양성을 수복하였다. 51세인 선조 27년(1594) 봄에 총병 유정이 대사에게 부산의 왜영으로 들어가서 가토 기요마사를 설득하도록 부탁하였으므로, 모두 세 차례 왕복하며 일을 요령 있게 처리하였다. 61세인 선조 37년(1604) 이후 대마도로 건너가 도주 소 요시토시를 만난 다음, 본토 도성으로 들어가 관백인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 화친을 맺은 뒤, 일본에 잡혀갔던 동포 3천여 명을 데려왔다. 62세인 선조 38년(1605)에 복명하였다.

이후 대사는 묘향산에 들어가서 휴정의 영탑에 예배하고 그대로 보현사에서 복제를 마쳤다. 63세인 선조 39년(1606) 봄에 영선군을 거느리고 법궁의 공사에 나아갔으며, 삼강동에 초막을 지었다. 67세인 광해군 2년(1610) 해인사에서 8월 26일에 입적하였다.

11월 20일에 문도가 사원의 서쪽 기슭에서 다비하고 석종을 만들어 봉안하였다. 세수 67, 법랍은 55세이었다. 영

조 14년(1738) 밀양 표충사에 공식 사액 사우가 건립되고 제향이 이루어졌다.¹

II. 서예의 연원과 특징

사명대사의 서예가 누구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는지 한정된 자료를 통해 추정해 본다. 그가 배웠던 스승과 교유한 인물들에 대해 살펴보고 그 속에서 실마리를 찾아보도록 하겠다.

사명대사가 글씨를 누구에게 배웠는지 알려주는 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또 대사 글씨의 연원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문헌도 아직 없다. 대사가 글을 누구에게 배웠으며, 어떤 이들과 교유하였는지 살펴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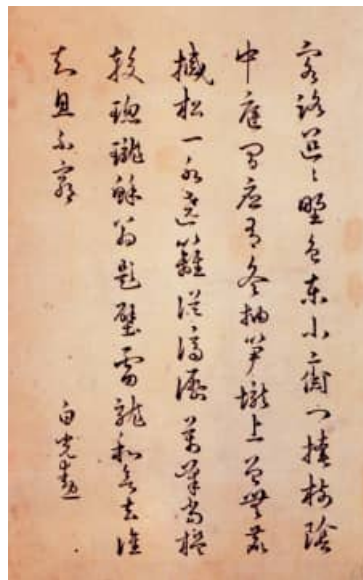
대사가 어릴 때 조부에게 글을 배웠다고 하였으나 추측해 볼 내용은 없다. 생애 부분에 언급한 대로 황여현에게 『맹자』를 배웠다²고 하는데, 황여현은 문과에 급제하고 사가독서를 하였으며, 이조 좌랑, 전적을 거쳐 승문원 교리, 공조 정랑과 울산군수를 지냈다. 사환의 경력으로 보아 문필의 역량이 뛰어났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문장과 글씨로 소세양(蘇世讓), 정사룡(鄭士龍)과 함께 당대에 이름이 있었다.’³고 하였다.

또 그의 자가 ‘헌지(獻之)’인데, 서예사에서 서성(書聖)이라 칭송되는 왕희지(王羲之)와 더불어 병칭되는 명필 아들의 이름이 왕헌지(王獻之)이다. 10대의 한창 명민하던 시기에 만난 스승의 글씨가 뛰어나다면 당연히 제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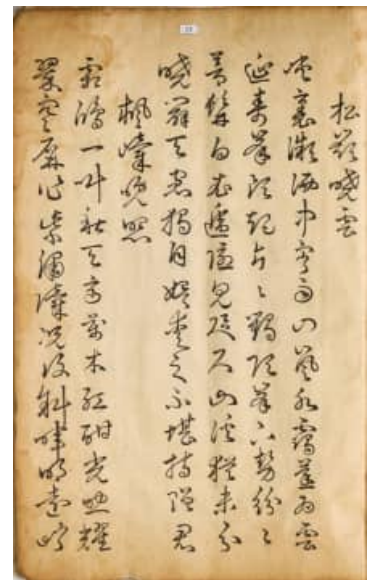
16, 17세에 부모님을 여의고 출가하여 직지사 신목 화상에게 배웠을 것인데, 신목 스님에 대한 자료를 살피지 못했다. 18세에 승과에 급제하였는데, 전후의 자세한 사정은 전하지 않는다.

이후 30세에 직지사 주지를 맡기까지 그가 배우고 교유한 인물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수신에게 사자(四子)와 이두(李杜)의 시문을 대사가 배웠다고 하였다.⁴ 박순은 대사보다 20년 이상 연상으로 시문과 글씨에 두루 뛰어났는데, 당시의 명필인 석봉(石峯) 한호(韓濩, 1543~1605)나 옥봉(玉峯) 백광훈(白光勳, 1537~1582)과 교유하고 가르치기도 했다. 이산해와 고경명도 명필로 이름났는데, 이산해의 경우는 초서에 매우 뛰어났다. 이달과 최경창은 특히 시에 뛰어나 백광훈과 더불어 삼당시인으로 불렸다. 그런데 노수신과 박순은 둘 다 백광훈의 스승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런 관계를 고려하면, 사명대사와 백광훈과는 어떤 접점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사명대사가 백광훈과 관련한 자료를 보지 못했지만, 대사의 필적 중에 여러 점이 백광훈의 글씨와 친연성이 깊어 보인다. 특히 『용담취규정잡영』 초서본의 서풍은 백광훈의 「칠언율시」⁵와 상당히 접근하고 있으며, 30세에 쓴 「허응당집발문」과 53세에 쓴 「서애태상운(西厓台相韻)」과 62세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달마도제시」도 그렇다. 더하여 62세에 탐적사로 일본 교토에 체류할 때 쓴 대부분의 세필 초서는 이같이 백광훈의 서풍과 일맥상통한다. 이런 초서는 당시에 신사임당(申師任堂, 1504~1551)과 그의 아들 옥산(玉山) 이우(李瑠, 1542~1609) 및 백광훈과 그의 아들 송호(松湖) 백진남(白振南, 1564~1618)에 의해



도 1. 「칠언율시」 백광훈 필



도 2. 「승령효운」 사명대사 필

1) 이상 대사의 생애 부분은 다음 책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조영록, 『사명당평전』, 한길사, 2009.

2) 허균, 「사명대사 석장비명」 “十三學孟子於黃柳村汝獻.”

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황여현조 참조.

4) 허균, 「사명대사 석장비명」 “因受四子於蘇齋相 又學李杜詩 自是文章日益進.”

5) 우림화랑, 『선현들이 남기신 묵향』, 2005. 36면 50번 작품.

유행했다.

해서나 행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사의 해서는 백광훈의 필적 중에 「방한걸묘갈」 서풍과 통한다. 포항 대성사 소장의 「사명대사 호신불 원장」이나 「용담취규정잡영」의 해서본의 글씨와 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32세에 묘향산 보현사에 주석하던 서산대사 휴정의 문하로 들어가 수행하게 되는데, 서산대사도 선가의 명필로 알려졌으니, 사명대사의 글씨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대사의 필적을 살펴보면 해서나 초서가 주류를 이루고, 해서가 조금 밖에 없다. 그러나 해서는 모든 글씨의 기본이기에 해서와 초서가 주된 작품 속에도 어우러져 남아 있다. 전서와 예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해서 필적은, 21세에 쓴 「선죽교」시와 41세에 쓴 「원장」, 51세에 가토 기요마사와의 회담에 필담을 도운 일본 승려 닛신에게 써 준 「북해송운시일진법어」와 56세에 쓴 「용담취규정잡영」 해서본이 있고, 62세에 탐적사로 교토에 머물 때 대사로 쓴 「불심종조달마원각대사」 등이 있다. 모두 단박하고 단정한 대사 특유의 필치로 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용담취규정잡영」 해서본의 가운데 상당 부분(23~35면 전반)이 대사와는 다른 서풍을 보이고 있어 의아하다. 이 글을 지은 용담 임흘(任屹, 1557~1620)은 퇴계 이황(李滉, 1501~1570)의 제자로 알려졌다. 그래서 퇴계 서풍의 글씨로 그가 쓴 것인가 생각된다.

초서 필적은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물론 필적 간에 서로 분류를 넘나들며 통하는 경우가 많다. 우선 기본에 충실하여 단정하게 보이는 세필 초서[小草, 今草]로, 30세 쓴 「허응당집발문」과 53세에 쓴 「서애태상운」, 57세에 쓴 「용담취규정잡영」 초서본과 65세에 쓴 「약사경발문」 등이 있다.

대사 특유의 서풍을 강하게 드러낸 선필의 초서[大草, 狂草]로는, 37세에 쓴 「부석사안양루증창기」와 「용담취규정잡영」 초서본 말미에 붙은 「오연절구」, 61~62세 전후에 쓴 「우야정장관」 1수⁶와 「등운주자화사상방」 함련, 「벽란도 시차운」과 「透萬機之前」 법어 대련과 「강하별송지제」 1구, 「披髮綠衣翁」 오연절구와 「暮雲收盡溢清寒」 칠언절구, 「답군옥서」와 65세에 쓴 「민사구어」 시고와 연대 미상인 동아대박물관 소장의 간찰과 「철현소사증시」 등이 광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 초서 작품은 단정하고 깔끔한 일반적인 초서에서 약간 풀어진 것으로 소초와 대초의 중간 정도이거나 해서와 뒤섞인 행초서로 볼 수 있겠다.

초서 가운데, 「우야정장관」 1수⁷, 「등운주자화사상방」 함련, 「벽란도차운」, 「透萬機之前」 법어 대련, 「강하별송지제」 1구 등은 오랜 경륜에서 오는 필력에, 불법(佛法)을 수호하는 선사로서의 선필(禪筆), 승병장과 탐적사로서의 기개를 담은 과감하고 웅장한 필치로, 스님의 대표작이라 이룰만 하다.

서애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은 “상당히 시를 잘 지었는데, 해서와 초서도 잘 써서 총림 중에서 유명했다.”고 하였다.⁸ 병자호란을 당했을 때, 승병대장인 남한승통을 맡았던 백곡 처능이 부휴 선수의 글씨에 대해 “글씨도 또한 힘차고 아름다워 위(魏)의 종요(鍾繇), 진(晉)의 왕희지(王羲之) 서법을 본받았다. 송운 유정과 함께 명성을 날려 당시 난형난제라고 불렸다.”⁹고 하여 사명대사의 글씨가 매우 뛰어났음을 곁들여 찬상(讚賞)했다. 사명대사가 탐적사로 일본 교토에 머물 때, 쇼코쿠지의 주지 사이쇼 죠타이는 대사의 시를 보고 “구절마다 기이하고 좋고 묘하여 기쁨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필적도 역시 아름다워 내가 개인적으로 보배로 하려 하자 대사가 쾌히 허락하였다.”¹⁰고 하여, 사명대사의 시뿐만 아니라 글씨도 아름답다고 칭송하였다. 청천(靑泉) 신유한(申維翰, 1681~?)은 1719년 기해사행 통신사의 제술관으로 일본에 갔을 때의 사명대사의 목적에 대한 일화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내가 에도의 객관에 있을 적에 한 왜인이 송운의 필적을 몇 장을 갖고 왔는데, (중략) 홍황색의 종이는 색이 변하여 거무스름하였고, 글자 크기는 까마귀 정도 되었다. 초서의 필법이 중후하고 질박하였으며, 종이 끝에는 모두 송운서(松雲書)라는 세 글자가 있었다. (중략) 송운의 필적만 홀로 해외에 전하고 있으니,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불후(不朽)하게 전해지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 기예에 있지 않다고 하겠다.”¹¹라고 하였다. 자신이 본 대사의 초서를 ‘필법이 중후하고 질박함하다.’고 평

6) 이 작품은 신기수 구장의 작품으로, ‘松雲’이란 대사 특유의 관지와 인문이 있다.

7) 주6)과 같은 작품이다.

8) 유성룡, 『서애선생별집』 권4 「잡저(雜著) 송운(松雲)」, “頗能詩 善眞草 有名叢林中.”

9) 백곡 처능, 『대각등계집』 권2 「追加弘覺登階碑銘」, “筆亦遒媚 效鍾王法 與松雲政公齊名 時號二難.”

10) 사이쇼 죠타이[西笑承兌], 『녹원일록(鹿苑日錄) 경장(慶長)10년 2월조. “松雲大師見讚詩則 神中口人歸去 句句奇 吉吉妙도 不堪欣然 筆跡亦麗 予作私賞 者快然.”

11) 『송운대사분충서난록』 「甲午七月再入清正陣中探情記」 뒤에 붙인 신유한의 해설문 중 “余在江戶客館 有一優持松雲筆跡數紙而來日 此吾百年珍藏物也 紅黃紙色渝而黯 字大如鴉 濃墨行草 草法重厚多質 紙末皆有松雲書三字 問其所從得 則日故事無徵 而蓋於兵戈中往來 及乙巳奉使時 留蹟甚衆 至今日本人 貨而藏之者 不特如此云 余竊嘆日 車五山天輅 以文章自名萬曆辛卯 以通信製述官 到日本時 揮灑詩墨 必如風雨 而優

하였다.

교산(蛟山) 허균(許筠, 1569~1618)은 사명대사의 시를 평가하여 “아는 사람은, 맑고 넉넉한 맛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¹²고 하였고, 도곡(陶谷) 이의현(李宜顯, 1669~1745)은 “지은 시가 맑게 뛰어나 볼 만하다.”¹³고 하였다. ‘맑고 넉넉함’과 ‘맑게 뛰어나’는 사명대사의 시뿐만 아니라 서예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로 보인다.

대사의 글씨는 담백하면서도 힘이 있고, 단정하면서도 기세가 넘치며, 학문적 소양의 축적에 따른 인문적 향기와 고매한 선필(禪筆)의 아취가 어우러져 다양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 단순히 서예 자체로만 평가할 수 없다.

III. 맺음말

사명대사의 서예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은, 단순한 필법의 분석을 넘어서 그 정신과 삶의 총체적 표현을 읽어내는 일이다. 그의 글씨는 단정하면서도 기세가 넘치고, 담백하면서도 그 안에 굽이치는 의지와 자비의 마음이 스며 있다. 임진왜란이라는 격동의 시기에 승병장과 외교사절로 활약한 사명대사는, 곧은 뜻과 대승적 자비심으로 나라와 중생을 구하고자 했고, 그러한 사상은 그의 필획 하나하나에 생생히 투영되어 있다.

그가 교유했던 당대의 문장가와 명필들, 특히 백광훈과의 서풍의 친연성, 그리고 선사(禪師)로서의 내면 수양은 그의 서체에 깊이와 무게를 더하였다. 글씨는 단지 손끝의 기예가 아니라 마음의 기운이 흘러나오는 법. 사명대사의 서예는 그러한 점에서 지극한 선(禪)과 충(忠), 그리고 시의 경지를 동시에 담아낸 고매한 자취이다.

그의 글씨는 단정한 해서부터 기개 넘치는 광초에 이르기까지 변화와 역동을 지녔으며, 문인적 교양과 선사의 기풍이 한데 어우러진 독특한 경지를 이루었다. 그것은 곧 ‘한 사람의 글씨’라기보다, 한 시대를 살아낸 한 인간의 전생애와 정신을 아로새긴 기록이자, 정신적 유산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명대사의 서예는 단지 필적의 아름다움이나 기법적 우열을 논하기보다는, 그 안에 깃든 시대적 사명, 인문적 교양, 선사의 정신과 수행의 깊이를 함께 읽어내는 태도가 요청된다. 이는 사명대사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경외이자, 그의 서예를 대하는 우리가 지녀야 할 진정한 안목일 것이다.

俗今無識其名者 求其片語而不可得矣 松雲筆跡 獨傳於海外 世所謂不朽在人 而不在藝也.”

12) 허균, 「사명대사 석장비문」 “知者賞其清瞻云.”

13) 이의현, 「밀양 표충사 송운대사 영당 비명 병서」 “爲詩清澗可觀.”

참고 문헌

단행본

- 사명 유정 저, 이상현 옮김, 『사명당대사집』, 동국대학교출판부, 2014.
신유한 엮음, 이상현 옮김, 『송운대사분층서난록』, 동국대학교출판부, 2015.
조영록 지음, 『사명당평전』, 한길사, 2009.
사명당기념사업회 편, 『사명당 유정』, 지식산업사, 2000.
신학상 저, 『사명당의 생애와 사상』, 너른마당, 1994.
이원식 외, 『조선통신사』, 동호서관, 1982.

논문

- 손한빈, 「사명대사 유정 서예 연구」, 『서예학연구』 제34호, 한국서예학회, 2019.
지미령, 「일본 혼묘지소장 사명당 유정 관련 유물에 관한 일고찰」, 『문화와 융합』 제40권 3호(통권 53집), 2018.
이재준, 「사명당 유정 신발견 유묵 연구」, 『한국역사유적연구원 논문 5집』, 2022.
진복규, 「〈방한걸묘갈〉을 통해 본 옥봉 백광훈의 서예」, 『동양예술』 제68호, 한국동양예술학회, 2025.

도록

- 우림화랑, 『선현들이 남기신 묵향』, 2005.

* 특별전 전시도록에 실린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거나 재인용하였다.

신학상, 《사명당의 생애와 사상》(성광문화사, 1995)

사명당기념사업회, 《사명당과 임진 및 강화교섭》(사명당기념사업회, 1999)

통도사성보박물관,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날 기념 통도사 고승진영 특별전 진면목》(통도사성보박물관, 2003)

국립청주박물관·예술의전당서예박물관·통도사성보박물관, 《고승유묵》(국립청주박물관, 2004)

조영록, 《사명당평전》(서해문집, 2009)

밀양시립박물관·표충사 호국박물관, 《호국의 대성 사명당 송운대사》(밀양시립박물관, 2012)

사명유정 저, 이상현 옮김, 《사명당대사집》(동국대학교출판부, 2014)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경남대학교 데라우치 문고 간찰 속의 조선시대》(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4).

사명유정 저, 이상현 옮김, 《청허당집》(동국대학교출판부, 2016)

손한빈, 「사명대사 유정 서예연구」, 《서예학연구》 34 (2019)

권혁진·허남옥, 《오대산 한시를 만나다》(한국학중앙연구원, 2020).

문화재청·불교중앙박물관, 《2021 금석문 탁본조사보고서 : 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문화재청, 2021).

표충사 호국박물관, 《사명대사의 호국정신 세상을 치유하다》(표충사 호국박물관, 2021).

이재준, 「사명당 유정 신발견 초서 연구」, (한국역사유적연구원, 2022)

이재준, 「사명대사 유정 선시 팔곡 병풍」, (한국역사유적연구원, 2023)

사명대사 월정사 중수 435주년 기념

사명당 유정 대선사 선필 禪筆로 만나다

| | |
|--------|--|
| 주최·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월정사 월정사성보박물관 |
| 총괄 | 해운스님(김정귀) |
| 기획 | 자엄스님(홍순문), 홍순욱 |
| 진행 | 월정사성보박물관 학예연구실 (김경옥, 서은호, 임진호, 조유나, 이동혁, 임진호) |
| 논고 | 진복규 |
| 유물촬영 | 하지권 |
| 디자인·인쇄 | 고려출판사 |
| 발행처 | 월정사성보박물관 |
| 발행일 | 2025년 7월 |

